

서지번호 951 Y839

or report is 韓史觀,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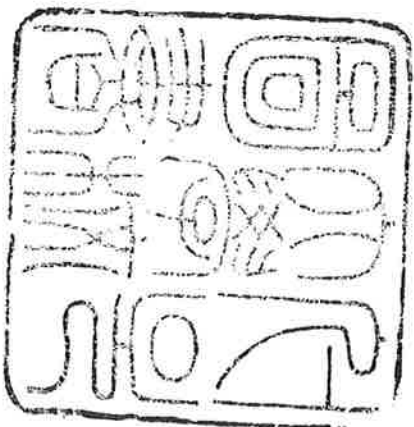
(1)

省齋李始榮著

感時漫語

(駁黃炎培之韓史觀)

一 潮 閣



刊 行 辭

우리는 거개가 敬慕하는 省齋 李始榮선생은 韓末朝鮮과 上海臨政과 大韓民國政府를 연결하여 우리 政府의 正統性을 이어주는 가장 큰 脈이시다.

先生께서 이와 같은 큰 脈이라 할 수 있는 까닭은 韓末의 高位職에 있던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襄退취 가는 國運을 돌이켜 보려고 盡力한 분이요, 庚戌國恥 이후 六兄弟들이 상의하여 一門 全家率과 같이 中國으로 亡命하여 韓末指導者의 氣概를 높이 세웠고, 上海臨時政府를 樹立하여 光復 후 還國時까지 臨政을 지켰고 있었으며, 大韓民國 建國과 더불어 初代 副統領으로서 民主主義의 基礎를 닦는데 心血을 기울이신 분이시니 愧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先生은 韓末의 愛國의 指導者요, 日帝時 獨立運動家요, 大韓民國 建國功勞者이며, 또한 民主守護者이며, 나아가 그 該博한 知識으로써 民族正統史를 定立하려고 努力하신 史學者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 上梓하는 『感時漫語』는 先生의 모든 面貌를 躍如하게 나타낸 著書이지만 특히 民族正統史를 定立하고자 하는 先生의 높은 뜻이 節節이 담겨져 있다.

先生께서 본 本書에서 우리 民族 生命力의 永遠함을 強調하는 論據를 倍達民族의 優秀性과 悠久한 歷史性에 두고 이러한 民族에게는 瞬間的 困辱은 있을지라도 결코 永遠히 滅亡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確信하고 계신 것이다.

512631

지금 우리 민족의 사는 길은 祖國을 先進化시키는 데 있고 이 課業은 民族史의 當爲이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使命이기도 한데 이 거창한 歷史의 重擔을 바로 갈아 담기는 데는 무엇보다도 民族의 精神의 根幹이 튼튼해야 할 것이다.

本書는 비록 中國亡命時에 先生의 痛恨을 담고 獨立運動線上에서 精神武裝의 要諦로서 著述한 것이니 하더라도 民族의 自矜心을 드물며 先進化를 圖謀하는 지점에 있어서 어찌 緊要한 動力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省齋先生 紀念事業會에서 舊本의 먼지를 털고 本書를 翻譯 刊行하오니 江湖諸賢께서는 惠諒하시고 本意아닌 誤譯이 있을지라도 鞭撻하여 주시기 바라며, 本書의 唯一本을 所藏引繼하여 주신 安浩相박사와 翻譯의 최종 監修를 하여 주시고 특히 題字까지 揮筆하여 주신 反求 全相希선생과 刊行을 맡아 주신 一觀閣 韓萬年社長과 本書 翻譯 刊行에 縱橫間의 일을 맡아 처리한 東燦企業(株) 金昌默會長·崔炳勳社長과 또 趙眞善·李一雨·李然雨 諸氏에게도 感謝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添言할 것은 우리 憲政 二十六년의 金字塔格인 先生의 副統領 辭任詞인 「國民에게 告함」을 添附하오니 참고하시고 漢文原本은 上海出版本 그대로 影印하여 轉載한 거라 誤字 있는 것을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一九六三年四月 日

省齋李始榮先生紀念事業會

會長

李始榮

獻辭

一九八二년의 여름은 民族의 憤怒로 인해 유난히도 더웠던 季節이었다. 日本 歷史教科書歪曲事件이 터져 우리 모두의 경악과 興奮을 일으켰고 近一世紀 이상 日本의 所管한 植民地的 歷史記述態度로 응어리졌던 全體 아시아 國民의 非難과 指彈을 惹起케 했다.

바로 이러한 때, 省齋 李始榮 할아버지가 中國亡命時 日帝에 의하여 擧려진 歷史와 帝國主義 侵略으로 얼룩진 中國大陸의 한심한 情況을 보시고 慨嘆한 나머지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자 지은 이 冊 『感時漫語』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冊은 中國에서 一九三四년에 出刊된 것이지만 國內에서 原本을 찾지 못하여 안타까와했던 崔安浩相博士께서 省齋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번역 出刊하고자 여러다가 六·二五 事變으로 잃어버린 것이 우연히 書齋에서 발견되었다고 기쁘게 나에게 나에게 傳授하여 주셨다. 지난 여름의 熱氣를 지른 이후 우리는 여러가지 敎訓을 얻었다. 것처럼 生硬하게 들리던 「民族史觀」이란 概念이 이제는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解放 이후에도 내내 빛을 보지 못했거나 스홀함게 다루어진 丹齋 申采浩선생, 白岩 朴殷植선생, 高海 韓龍雲선생들의 力作들이 속속 國民의 힘으로 소개되고 읽히게 되었으며, 것처럼 버뜨기만 하였던 「獨立紀念館」建立이 이제 全

國民的인 호응과 참여로成事를 보게 되었다. 거기에 덧붙여 이冊이 出版된 것은 결코 우연의 一致라 보지 않으며 이는 우리 民族의 進運이 밝아옴을豫言이나 하는 듯 강한 감격 을 얻어 주고 있다. 이러한 民族魂이 담긴 著作들을 모으고 또 이를 學問的으로 정리하고 올 바르게 평가하여 이 精神을 民族雄飛의 根幹으로 삼는다는 것은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 마땅 히 留意할 일이라 생각한다.

이冊에서 病은 中國의 史學者 黃炎培를 反駁한 것은 植民史觀에 대한 憤怒와 같은 것이 고, 이冊에 始終貫流하고 있는 우리 民族의 優秀性을 論證하는 것은 우리 民族의 矜持와 自 覺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다. 또한 이冊에서 言及된 李朝의 「廉潔政治論」과 韓族의 「美德· 善俗論」은 오늘날 正義社會를 이루려는 우리 모두의 信念과 이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 省齋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三十周忌를 맞아, 할아버지 六兄弟(健樂·石樂·哲樂· 會樂·始樂·慶樂)이 財産을 팔고 全家를 데리고 滿洲로 건너가 新興武官學校를 세우고 獨立 同志를 키우고 抗日鬪爭을 벌이며, 民族 精氣를 奮起시킨 뜻의 한 조각을 이 책에 세상에 내놓게 되니 감격스럽고도 慷慨한 마음 무었으로 표현할 길이 없다.

끝으로 國內唯一本을 소장하여 刊해 주신, 安浩相博士님과 題字를 위하해 주시고 版內 符號까지 監修해 주신 反求全相希先生님과 省齋先生紀念事業會 尹宅重회장님, 그리고 一湖閣 韓年社長님께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一九八三年四月日

李 鍾 贊

目 次

刊行辭 尹宅重 . iii

獻辭 李鍾贊 . v

1、黃炎培의 韓國史觀을 論駁함 緒論 1

2、檀君은 堯임금과 并立 2

3、倍達民族의 起源 4

4、箕子의 平壤과 高句麗의 平壤 7

5、渤海 및 高麗 11

6、韓族의 言語·文學 및 道教 13

7、歷史辨正 一 31

(1) 箕子의 封國 31

(2) 韓民族文化의 由來 31

(3) 日本의 神功皇后에 관한 이야기 33

8、	歷史辨正二	47
	(8) 集會·結社에 관하여	47
	(7) 排華感情을 촉발시킨陰謀	46
	(6) 韓國貨幣觀에 대하여	43
	(5) 韓國사람의創造力	39
	(4) 韓國사람의智德	37
	序言	49
	(1) 張良이力士를招聘한 것에 대한考據	52
	(2) 伯夷의首陽山	53
	(3) 大院君行政	54
9、	韓·中兩國이 당한 日本으로부터受侮	69
10、	李朝中葉의 靡濫政治	77
11、	中國人의 廉潔觀念	80
12、	韓·中兩國의 冠婚喪祭	83
13、	李朝의 近代政治	85
14、	中國의 近代政治	90
15、	中國改革論	94
16、	李朝末 宮中秘史	102
17、	韓末의 日本公使 非行	107
18、	日本의 對韓歷史	112
19、	韓族의 美德·善俗	115
20、	中國의 鑑戒	118
21、	韓·中兩國人의 缺陷	122
22、	世界失國人의 缺陷	124
23、	結論	126
◇	附錄 ◇	
	「國民에게 告함」(副統領辭任詞)	131

緒言

癸酉年(二卷) 여름 우연히 中國사람 黃炎培가 쓴 『朝鮮』이란 책을 읽은 일이 있다. 그런데 많 그 文體의 거친 말투나 허황된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取捨選擇하여야 할 것이 너무나 많

았다. 본래 中國人의 韓國觀은 脫落이 심하고 자제치 못한 部面이 상례인지라 滿清 때에는 韓國 事情에 관계되는 著書가 六,七종이나 있었으나 어떤 책은 尙량한 誤謬를 범하거나 혹은 不 倫한 偏見으로 眞實에 어긋난 점이 많아 가히 볼만한 冊이라곤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黃氏의 글은 卽精力을 기울인 것 같으나 역시 어긋나고 그릇된 점은 아주 많았다. 그래서 韓國人이 볼 때에 어느編을 보더라도 黃氏가 日本人을 蔑視하여 일본을 宣揚한 듯한 느낌이 들어 메스껍기 이를 데 없다.

따라서 이제 君子의 義理로써 그의 失策을 간략하게 語實하고 나서 나의 管見을 덧붙일까 한다. 그러나 단연코 黃氏의 글을 평한다는 題目을 빌어 他人을 攻擊한 나머지 나 스스로의 자랑이나 망령된 견해를 宣傳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眞이다. 申

國人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걱정 많고 多事多難한 시국에 처하여 이러한 장어치 없는 말을 玩賞趣味로나마 입을 잠조차 없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히 他山之石의 教訓을 줄 수 있는는 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어차피 북을 틀어 쓰기 시작한 글이요 이 體系도 서지 않고 條理조차 缺한 글이 되었으되 너무 침말하지 말고 옳고 바른 것을 깨우쳐 주었으면 한다.

註 1 黃煇(公冕) 中國江蘇省川沙縣出身。日本에 留學 敎育學專攻 江蘇省敎育司長을 지내고 그 후 實利·實用의 民主主義敎育의 見解를 痛惡하여 一九一七年 中華職業敎育社를 創設 사장이 되었다.

一九二一年 北京의 軍閥官僚政府로부터 敎育總長으로 任命되었으나 就任을 기원하고 中日戰爭 중에는 國民參政會 常任委員 民主同盟의 重鎮으로서 民主主義의 擁護에 盡力하였다.

一九四五年 國共提携을 위해 延安를 방문하였으며 一九四八年 政治協商會議에 努力, 一九四九年의 中共政權 立후 政務院 副總理 輕工業部長으로 임명되고 그 후 民主建國會 主任委員,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副委員長으로 轉약하였음. 著書에 『延安歸來』와 『朝鮮』이 있고本書에 痛駭하는 바는 『朝鮮』著書의 내용이 관해서이다.

2. 檀君은 堯임금과 并立

近世의 國際慣用語로서 同文同祖와 共榮共存 또는 輔車唇齒 素敦陸誼等 語句가 있다. 그러 나 이제 이러한 친밀한 말들을 그릇된 표현이라 할 수 있으리우마는 눈을 돌려 國際間的의 實

際問題를 저시하면 임으론 끝맛 같은 달콤한 말을 하면서 허리춤에는 卜筮를 품어 있고, 災殃의 원인이나 근본이 되는 씨앗을 품고 있는 영웅한 外交家들도 곤란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자는 하고 트는 자도 無感覺하게 틀어 한겨 外交上의 사탕발림 말로 알 뿐이지 조금도 감동하는 바가 없게 된 실정이다.

이제 내가 韓中 兩民族間에 진실로 밀접한 사이라는 표현을 아첨하는 뜻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문록 國際間的의 慣用語들을 듣고 이것이 선봉에서 우려나오는 말들이 아니고 면전에서 꾸며서 하는 外交修飾辭로서 헛된 聲氣으로만 외면치케를 한 실속없고 輕薄한 文面과 空虛한 儀禮라고 하여 이것을 破棄할 것이 아닌 줄 안다. 도리어 韓中 兩民族間的의 실제적 관계에 비추어 보면 歷代 祖先이 攄 骨髄에 스며들고 肺腑에 명신해 들 일은 서로 밀접하고 가까와서 그 興廢存亡이 兩國이 잠시라도 분리해서 는 숨을 쉴 수도 없는 境면이다.

이처럼 韓中 兩族의 관계는 일찌기 예를 볼 수 없었던 바라 이제 그 흔적을 스잡하여 살펴 보면 저 아득한 四千年 전 우리나라의 檀君님은 陶唐의 堯임금과 동 시대에 임금님이 되시었고 그의 아들 扶婁는 夏禹와 『塗山의 會議』에서 만나 두 나라의 國境을 勘定하였으니 이것이 곧 韓中 兩民族이 和結하는 첫걸음이었다.

『神檀史』라는 책에 檀나라의 舜임금이 攝政을 때 九州 十二山을 封했다고 했는데 朝鮮國의 西쪽 行政區域은 幽州와 并州가 모두 그 境內에 들어 있는 바 朝鮮國도 使臣을 파견하여 境界를 測量하여 幽州의 營州의 一州를 朝鮮國의 領土로 하게 하였다고 했다.

모여 주도록 하였다. 在位九十二年 戊子三月에 檀君께서는 阿斯達(九月山)에 드디어 神(마리산·마니산)에 石壇을 쌓게 하여 하늘에 제사지내고 하늘과 祖上의 恩惠에 보답하는 본을 명하여 穴口(江華府에 그 城이 있는데 穴칭 「三郎城」이라 한다)에 築城을 하게 하였다. 또 摩尼山 産品을 장악하였으며 肅愼氏는 弓矢를 만들고 沃沮氏는 斧耒를 만들고 檀君의 제 아들에게

또 樂官인 提持는 歌舞를 管掌하였고 君長(官名)인 推天生은 각각 民

고 부르는데 이는 農官 高矢氏를 잊지 않는 때문인 것이다).

또 史官인 神誌는 書契(서글)을 撰述하는 일을 맡았으며, 農官인 高矢는 農事를 管掌하였다(韓族 風俗에 특이한 말에서 유래한 것을 보면 「고사례(고수례)라

이 는 彭慶 즉 仙王을 기리는 뜻이다).

祠堂을 짓고 聚石을 한 다음 官民이 통과할 때 반드시 致誠을 드리는 풍속이 있는 바 이를 仙王堂이라 한다. 土地를 보호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후세인들은 彭慶를 仙王이라고 불렀다(보통 峻嶺通路에 驅獸의 일을 맡았으며 아들 扶蘇는 禮俗을 管掌하였고, 元輔(領議政의 官稱) 彭慶는 山川과 드는 일을 맡아 그곳이나 도구를 만들었으며, 아들 扶蘇는 病·藥을 治하고 아들 扶慶는 狩獵 匪岬神后는 紡織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권장했으며, 太子 扶婁는 도자기 굽는 일과 鑄物만

다(神人이 降生해서부터 建國하기까지 이전의 百二十四年을 神市時代라 칭한다).

父子·君臣·飲食·衣服·居處·編髮과 蓋首(여자가婚禮 때 쓰는 모자)의 制度를 제정하였다

五事(綴食·生命·疾病·刑罰·善惡)을 主管하며 人間의 二百六十六事를 다스리시고 男女·

3. 倍達民族의 起源

지금 앞에서 譽揚한 倍達(즉 韓族이 檀木을 倍達이라 부른다)의 起源은 檀君의 開化로부터이고 韓中雨族의 관련된 歷史가 시작된다.

이 倍達族은 上古에 瀛海(濟州)이 북에서 小海(黑龍州)의 이남까지 九夷(夷는 大禹를 뜻하는 韓族은 大禹를 잘 쓰는 民族이라는 뜻이다)로 분산해 살았다.

伏羲氏와 虞의 舜임금도 이 곳에서 태어났다고 神檀記)에는 기재되어 있다.

四千三百九十年 神人이 太白山 檀木 밑에 天符三印을 갖고 사람과 萬物을 化育하시며 道를 피지고 가르침을 세워 都邑을 건설하여 開國하니 國號를 朝鮮이라 했다고(朝鮮의 뜻은 朝日 鮮明에서 유래한다).

3. 倍達民族의 起源 4

註 1 嶺南 11州의 하나이며 肅寧有城(B C 三層)은 冀州의 冀南地方 恆山의 峯을 穿하여 并州로 流다. 즉 河北 省의 蔚正安·保定 및 山西省의 蔚大原 大同 등에 해당된다.

註 2 「幽州」 肅寧은 冀州의 東北을 幽州라 하였나.

註 3 「營州」 肅寧가 靑州(지금의 山東省)를 가리키 그 東北을 營州라 하나 사실상 營州와 靑州는 同一한 땅이라는 說이 尤려하다.

箕子는 潑水の 東平壤地方(지금의 永平)과 遼水の 西平壤地方(지금의 廣寧) 사이의 空地에 처
음 거주하였다. 후에 子孫들이 차차 强盛하여져서 疆土를 날로 開拓하여 各 都邑을 東平壤

4. 箕子の 平壤과 高句麗의 平壤

【註 1】 金敎獻(金久遠)이 지은 『神壇實記』나 이의 別本을 指稱한 듯하다.
【註 2】 「百二十四년의 神市時代」 이는 大倭敎의 敎理에서 緣유된 것이다.

女眞·黑哲이라 한다.

北貊·鮮卑·契丹·遼이다. 沃沮의 후에는 東沃沮·北沃沮이며 肅慎의 후에는 勿吉·靺鞨·
靺國의 후에는 北貊·胡貊·梁貊·句麗貊·小水貊·濊貊·牛首貊이며 그 중에서 靺鞨은
는 사람이 많으며 그 遺言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國의 江蘇省과 浙江省 일대를 統理했다는 말이 있고 또 兩省의 土音은 우리 나라 말과 같이 쓰
統治하고 있었다고 하며 또 崔致遠(崔?)이 唐나라 宰相에게 보낸 回書에는 百濟國이 中
舊來의 地라는 바에 의하면, 徐國은 浙江省 紹興郡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二千里의 땅을
하여 滅亡당하였다. 徐國의 享國年間이 약 千年間이나 계속되었다.

陽縣의 北方)에서 會盟하였고 후에 瑯琊(山東省 諸城縣의 東兩)으로 都邑을 옮겼다가 楚나라의
周나라 末葉에는 楚나라 靈王(B C 四三〇~四二七)과 申(春秋 때의 나라 鎡湖 蔡姬이며 故城은 河南省 南
이르렀다.

의 偃王(B C 二世紀경)은 仁德으로 나라를 다스리니 來朝하여 朝貢하는 나라가 五十餘國에
라와 徐나라 兩國간의 國境을 경하였는데 서쪽은 周나라가 동쪽은 徐國이 차지하였다. 徐國
黃河를 뜻한다 지금의 安徽省 北端을 흐른다)의 沿岸에서 크게 破하니 周나라 穆王은 降伏하여 周나
너 徐國이라 하였다. 마침 周나라 穆王(B C 二三三~二二五) 때에는 徐國이 周나라 軍師를 黃河(淮
州(安徽省 泗縣의 북쪽이 故城이 있다) 지방에 雄據하였는데 疆域을 널리 개척한 뒤에 國號를 마침
徐國은 滅의 초기에 殷나라 小乙(B C 二二〇~二一五)이 쇠약해진 때를 맞이하여 남쪽 徐
氏朝鮮의 후손은 馬韓이며 滅의 후손은 徐滅·東滅·南滅이고, 徐滅의 후손은 徐國이라 한다.
의 후손은 金(二二二~二一四)·滿清(二二二~二二〇)이며 南扶餘의 후에는 百濟(B C 二~A D 三〇)이고 箕
卒本扶餘는 그 후 高句麗(B C 三~A D 三三)·渤海(三九~三三)·女眞(東西女眞이었다)이다. 東女眞

(B C 四~A D 五三)·高麗(三九~三三)·朝鮮(三三~三三)·韓(二二二~二二〇)으로 이어진다.
徐苑扶餘·南扶餘가 되고 그 支派가 濊·貊·沃沮·肅慎이 되었다. 徐苑扶餘는 그 후에 新羅
그 후 各宗들이 分居하여 繁盛하였는데 扶餘는 다시 갈라져서 東扶餘·北扶餘·卒本扶餘·
이 남아 있다).
로 化하여 御天하시니 때의 御世가 大略 一百十六年이었다(九月山에는 御天石臺가 지금도 뚜렷

地方(지금의 遼陽)으로 옮겼다.

그 후 燕나라 將軍 秦開와의 싸움에 패하여 幽州·朔州·薊州의 땅 一千里를 잃었으며 그의 四十一世孫인 箕準이 이르러 衛滿에게 쫓겨어 망하였으니 그 歷年은 九百二十九年이었다.

衛滿朝鮮은 箕氏의 뒤를 繼承하여 軍士를 강하게 하고 國士를 넓혀나갔는데 孫인 右渠에 이르러 漢나라와 서로 싸웠으며 漢나라의 東部都尉인 涉河를 殺害하였기 때문에 漢나라 武帝는 그의 將軍 楊僕·荀彘의 무리로 하여금 공격하여 오니 右渠는 힘을 다하여 항거하였지만 그의 部下에게 殺害되었다. 漢나라 武帝는 드디어 衛氏를 멸망시키고 그곳에 四郡을 設置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高句麗·百濟·新羅에 의하여 이 四郡은 다시 收復되었다.

四郡은 衛氏의 옛 國土를 전부 차지한 것이 아니고 그 한쪽 구석을 차지한 때문에 洌水의 남은 의견이自立하고 있었던 것이다.

五、六百年을 經過하여 隋文帝는 中國統一의 威勢를 계속하여 떨치고자 여러 차례 軍士를 일으켜서 우리나라(韓)에 干란을 주었다.

臨渝關의 싸움에서 漢나라의 王인 楊諒이 거느린 二十萬大兵이 一敗塗地당하여 隋煬帝가 그의 뒤를 이어 王으로 即位하고 또 다시 軍士를 크게 일으켜서 宇文述·來護兒·字仲文·劉士龍의 무리로 하여금 水陸軍百十三萬三千八百人을 거느리게 하니 號稱 一百萬이다(運輸兵을 합하면 四百萬이 넘는다).

兵營이 연결되어 있는 길이가 九百六十里에 이르렀으니 東洋의 歷史에 있어서 일찍이 없었던 大動員이라 하겠으며 이들은 모두 九道로 나누어 출발하여 平壤에 모두 集結토록 하였으니 그 기벌이 盛大하고 壯한 것이 저 페르시아王(波斯王) 크세르크세스의 大遠軍을 능가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薩水の 싸움에서 高句麗의 王弟 建武와 乙支文德에게 패하였다. 이 薩水の 싸움에서 隋나라는 辛世雄將軍 이하 백만의 將軍과 兵卒이 죽었으며 宇文述 등이 겨우 죽음을 면하고 도망쳐서 살아왔으니 遼河를 건너 살아 돌아간 者가 不過 一千七百名이었다고 하며 隋나라는 이 싸움으로 인하여 망하고 말았다.

唐나라 太宗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隋나라의 四次에 걸친 失패의 恥辱을 雪辱하겠다고 말하면서 魏微의 諫言도 듣지 아니하고 張亮·李勣·薛仁貴 등으로 하여금 十五萬二千의 兵力을 이끌고 길을 나누어 出兵시켰다. 이때에 먼저 遼水의 다리를 끊어버림으로써 「必死의 戰意」를 보이게 하고 高을 덮어 斬鑿을 메워버림으로써 이 勳병은 반드시 勝利하여야 한다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將兵에 보여 주었다. 雙方간에 殺傷者가 이미 數萬이 넘었으며 唐軍은 먼저 白岩城을 빼앗고 다시 進擊하여 安市城으로 육박하였다. 그때의 形勢로 보아서는 곧바로 城門이 열리고 勝利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든 할 듯하였으나 兩軍이陣을 치고 進退를 거듭한지 한달이 넘었으니 城은 오히려 견고하여 빼앗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太宗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만히 城中을 살펴보고는 그 당당하던 氣勢가 꺾기 있음

은 물론 열렬히 지지하여 버렸다.

마침내는安市城主楊萬春이 쓴 화살에 눈이 맞아失明하고 말았다. 이 실명으로 인하여 太宗은 軍士를 回軍할 때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敗戰이 있는지 얼마 아니 되어 唐太宗이 죽으니 唐나라 歷史에서는 이事實을 숨기고 다만 太宗이 癩疾을 앓다가 그餘毒으로 죽었다고 하였다.

高句麗 하나쯤 滅시키지는 일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物件 하나를 꺼내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고 큰 소리 치던 唐太宗! 어찌 알았으랴? 高句麗兵士가 쓴 화살에 그의 눈이 失明될 줄을!

이것은 高麗의 牧隱先生 李穡이 지은 詩이다.

千秋에 大膽하시다 楊萬春
將軍이여

좌살은 勇(軒) 단생을 쓰아 그 분암을 멀어프렸구나!

이것은 金三淵이 金昌業을 燕京으로 보내면서 건송하는 자리에서 지은 詩의 한 귀절이다.

李穡은 元나라 末期의 사람이오 金三淵은 清나라 초기의 人物인데 모두 太宗이 실명한 사실을 實證하고 있다.

5. 渤海 및 高麗

그 후 新羅는 唐나라 兵力을 끌어들이며 百濟를 滅시키었다. 비록 三韓을 통합한 功績은 있으나 同族간에 釐·갈을 나눈지라 疆域은 축소되었다. 또 나아가 歷史속에서 貶된 내를 풍기듯한 果를 거치게 되었다. 高句麗의 遺民들은 新羅에 歸附한 자가 대부분이었으며 故地를 收復코자 하는 뜻에서 羅唐간에 抗爭이 再演되었다. 이에 唐나라는 李謹行·薛仁貴로 하여금 軍事를 이끌고 다시 外을 벌이게 하였다.

그러나 新羅의 大將 文訓은 逆戰하여 唐船 四十艘를 大破하고 계속하여 李謹行의 兵士 二 十萬을 買有城(楊州)에서 破滅시키고 戰馬 二萬匹을 擄獲하였다.

이에 唐나라는 다시 鞞鞫(勿吉의 轉音)과 연합하여 兵事를 再起하였으나 大小戰爭의 일흔번 싸움에서 唐兵은 모조리 패하였다. 靺鞨를 기습해 가면서 薛仁貴와 二十二回나 戰鬪를 가졌으나 倭倭浦에서 가진 大戰에서 唐兵은 大敗하였다. 次후로부터는 唐軍이 다시 오지 못하였다. 高句麗의 後裔는 渤海를 그 구려를 繼承해서 일으키니 渤海國은 옛 高句麗 舊疆을 收復하여

五京文物을 燦然하게 古루 갖추고 하니 唐史에서 東方勝國이라 칭하였다. 高麗 光宗(949)에 崔(完)임금은 宋나라 太祖 趙匡胤(960)과 隣誼가 두텁게 結속되었기 때문에 契丹의 禍를 물러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일찍기 天授(高麗太祖의 年號年間(939~42))에 契丹은 여러 차례 修好를 請해왔으나 高麗는 堅決하고 不許하였다. 貢物로 가지고 온 駱駝는 萬夫橋 밑에서 棄死하도록 하고 使臣으로 온 使者는 海島에 流配까지 보내니 咸기야 成宗 十二年(空)에 契丹은 蕭遜箚이 八十萬 大軍을 이끌고 國境을 침범해 왔다. 이에 高麗는 徐熙를 中軍使로 명하였는데 徐熙는 이를 舌戰으로서 排斥 退却시키었다.

그 뒤 다시 「康兆의 變」(1009)을 틀러 契丹은 다시 十萬의 兵士를 일으켜 침범해 오니 이때 國勢는 위태롭게 작이 없었으며 온 나라가 크게 驚動하였다. 이에 顯宗은 姜邯贊을 上元帥로 명하고 姜民瞻·楊規·金宗鉉 등을 副元帥로 명하여 擊退하도록 하였다.

契丹에서는 蕭排押·蕭遜箚 등을 都統으로 삼고 善戰 勇武하였는데 때마침 邪律阿保機가 承繼를 하여 稱帝를 하고 新興의 盛勢를 떨치던 때라 그 勢가 凶猛하였다. 그러나 龜州의 戰役에서 河果達海里將軍 이하 十萬의 契丹 兵力이 모두 沒死하고 逃避해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에 불과하였다.

당시 姜公의 計策을 쓰지 않았다면 온 國民이 모두 옷깃을 왼쪽으로 입는 習慣(胡風俗)이

되었을 것인데……하면서 顯宗은 姜邯贊을 일러 再造之功이 있다고 이롭게 칭찬을 表했다.

中國의 二十五史인 『金史』에선 말하기를

粟末(속말·黑水(후수)) 등 靺鞨부족은 高麗에 모두 臣服하고 살았으며, 또 高麗는 曷懶旬(갈전)에 九城을 쌓았다.

고 적고 있다.

高麗는 代대에 걸쳐 여러 차례 蒙·元の 禍를 입었으나 그래도 遼東의 일부는 領有하고 있었는데 李氏朝鮮이 이르러 疆城이 豆滿·鴨綠에서 멈추고 말아 한번 축소되고보니 다시 말키지 못하고서 위축되고 微弱해진 채로 오늘날까지 連綿하게 수백년이 흘렀다.

6. 韓族의 言語·文字 및 道敎

韓族의 言語는 三國이 分立되어 있던 時代를 經過해서 代제로 統一되어 있었다. 그러나 土語는 동일하지 않은 말이 조금 있었다.

- 神誌秘詞
- 大辨說
- 朝代記
- 周南逸士記
- 誌公記
- 表訓天詞
- 三聖密記
- 道證記
- 動天錄
- 靈中錄
- 地華錄
- 書雲觀秘記

주 기 되었다.

이 때부터 온갖 古典이 禁書處分되고 假本이 眞本으로 바뀌고 다음과 같은 珍籍이 자취를 감
 에 의한 禍라 할 수 있다.
 蒙古의 忽必烈(一二七九~一二九四)에 의한 『高麗史』의 刪削이라 할 수 있으며 다섯번재의 變厄은 일본

이 때 新羅의 舊史와 經籍은 한가닥의 빛볼이 되어 깃더미로 화했다. 네번째의 變厄으로서
 서 唐將李世勣이 高句麗에 대해 저지른 것과 세번째의 變厄으로서 曠野의 禍厄을 들 수 있는데
 문에 『箕子朝鮮』의 歷史記錄이 모두 蕩火되고 殘存한 것이 없게 되었으며, 두번째의 禍厄으로
 첫번째 입은 禍厄으로서 燕나라(漢의 諸侯國)의 縮王(B.C 三二?)의 亂을 들 수 있는데 이 때
 은 禍도 한, 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없었으니 어찌 痛恨스럽고 수키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歷代의 經籍과 文字 등이 입
 되었다 볼 수 있다. 四千餘年の 悠久한 歷史 속에서 外國 異民族의 侵略을 계속 당하여 禍를
 우리 韓國은 나라를 享有한지 四千餘年이 오 三韓時代 이후부터는 信憑性있는 歷史가 시작
 話에 수한다고 볼 수 있으며 湯임금 이후의 歷史라야 겨우 믿을 만한 것이다.

中國이 文化先進國이라 하나 殷나라 湯임금(B.C 1300年代) 이전의 歷史를 바라볼 때 이는 神
 했으며 發音을 音譯함에 있어서 僥會와 侮辱을 가한 점이 대단히 많다.
 은 六聲의 이름을 따서 鳥類의 鳴聲을 따서 中國의 官制와는 다르다고
 그리고 陳壽(西晉 사람 三〇~三六)가 쓴 『三國志』(二十五史의 하나)에서는 三韓의 官制가 牛馬와 같
 의 文字를 써왔다고 하였다.
 에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있으나 三韓(馬韓·辰韓·弁韓)의 官制가 稱에는 新羅中葉 이전까지도 韓
 金나라의 根源은 滿洲와 高麗이며 根本은 서로 동일한 것이다. 각 지방에 土話가 있기 때문
 滿洲의 清나라 乾隆皇帝(一七三六~一七九六)는 『滿洲源流考』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月白襄松夜 달빛은 꼬얌히 의로운 손나무에 내리고
 波安鏡浦秋 파드조차 잠이 든 경포대의 가을
 哀鳴來又去 지저귀는 새소리만 슬프게 오고 가는데
 有信一沙鳴 모래 위 수리개는 어떤 손석을 가져왔는고

高麗國의 四代王인 光宗(光宗)은 接賓使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他是 亂을 피하여 中國揚子江 남쪽인 楚. 越 지방에 사는 錢氏라는 사람이 집에 묵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好事家가 있어 거문고 밑바닥에 「東部塞松亭曲」이라는 글을 써서 海波에 漂流케 하였던바 越나라 사람이 주어 그 바닷가에 새겨진 文章을 해독할 수 없었다. 따라서 張儒가 그 뜻에 가 있었기에 越나라 사람이 그에게 이 글의 뜻을 물었더니 張儒는 즉석에서 이를 解讀하여 漢詩로서 대답해 주었다. 즉 내용인즉

그런데 오직 李太白(은)은 唐詩人(인)만이 이를 해독할 수 있어 答狀을 써 보냈다...

渤海國에서 唐나라에 國書를 보냈는데 唐나라 朝廷에서 이 글을 解得하는 者가 없었다.

字로 새겨진 글들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돌아왔다는 記錄이 있고 또 『李太白全集』의 「玉塵叢談」이란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나 文化 柳氏의 族譜에 쓰여진 王文(扶餘朝)의 書法을 보면 篆字를 많이 쓰고 符籀같은 二體를 주기도 한다. 또 平壤의 法首橋에 있는 古碑나 南海의 島의 岩壁에 刻印되어 있는 글자가 혹지나 徐市(秦始皇 때 長生不死藥을 캐려 온 사람)가 남겨 놓은 흔적이 아닌가 의문드레 보지만 이미 秦始皇 때 쓰던 篆字도 아니고 籀字도 아님이 명명하게 밝혀졌으니 韓人의 古代文字임이 틀림 없을 것이다. 또 『三國史記』의 「新羅本紀」 憲康王編에 보면 憲康王十二年(은)에 寶露國이라는 나라 使臣이 黑水國을 통하여 新羅에 通和를 요청했는데 이때 나무조각에 古文

또 高興이 지은 『百濟史』, 李文眞이 지은 『高句麗史』, 居梁夫가 지은 『新羅史』 그리고 『渤海史』에 이르기까지 여러 書譜들이 단지 그 령명만 남아 있을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文藝品으로 神誌(檀君時代에 쓴 管鑾한 宣吏)가 쓴 『秘詞』가 있는데 그 글씨의 모양이 奇異하고 의미가 深奧하여 讀者가 해독하기가 어려운데 高句麗의 大弘英이 이 『秘詞』를 漢文으로 번역하고 아울러 序文에 註釋을 붙인 『九變震檀圖』(九變은 國都의 變遷을 뜻하며 震檀은 朝鮮을 일컫는 말이)가 있다. 韓人은 文字를 아주 上古時代부터 가지고 있었다.

저 黃帝軒轅(B.C. 2600~2300)이 東쪽의 나라 靑邱(韓)國으로부터 몸소 「三皇內文」을 「紫府仙人」에게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는 아득한 神代에 속하는 일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安舍老·元董仲의 「三聖記」 등 多數이다.

최근에 『天符經』을 序文에 註釋을 달고 이를 解釋한 사람이 있는데 말하기를 이 『天符經』은 처음에 「하나」라는 理致의 極致를 究머리에 敘述하고 中間에 가서는 萬事 萬物의 설명으로 擴散하였다가 末尾에 가서는 다시 「하나」의 理致로 統合하였다. 宇宙의 全體를 빠짐없이 여기에 記載하였다. 즉 森羅萬象과 宇宙의 隱秘를 또 成住壞空하고 浩劫變幻과 人生本然의 性命原理를 그리 고 道門의 秘藏과 圓覺의 妙諦에 이르기까지 不備한 것이 없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盡本天一地二人
 一三積十鉅無圓化
 三天三地三人二
 三大三合六生七八九
 運三四成環五七一妙
 衍萬運萬來用變不動
 本本心本太陽昂明人
 中天地一終一

一始無始一折三極無

거문고 바닥에 새겨진 글은 新羅語의 漢字로써 우리 말을 表音式으로 나타내던 이른바 鄉 仙·皇衣(조외)仙人·花鄔風月主 등은 世상에 傳도 없던 佛敎의 眞髓라 할 世上을 保全하며 백성들에게 敎訓이 되는 眞像大道(즉 大像敎를 뜻함)와 敎化의 眞髓라 할 杜佑(타오)의 『通典』·『冊府元龜』 및 『隋唐新書』 등에서 그는 그 명칭만을 간략하 게 學論하였을 뿐 그 내용은 記載하지 않았는데 다만 剛直하고 箝舌를 위해 죽음을 아끼지 않는 氣風과 어질고 무던하며 끝도 없이 너그러운 美德, 그리고 高潔하고 그윽한 발 자취들이 보잘 것은 없지만 그 片鱗만이라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저 檀君時代에 찬술되었다고 하는 『天符經』이 후세에 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新羅人 崔致 遠이가 古碑 하나를 얻어서 그 碑文을 漢文으로 번역하고 거기에 跋文으로 數字를 그 뒤에 붙였는데 이를 妙香山의 어그 石壁이다 刻하여 후세에 남겨 두었다. 檀紀 四二五〇年 丁巳年 黃海道 桂延壽라는 사람이 이 글을 妙香山 窟에서 발견하여 이것 을 印刷하여 世상에 傳했는데 아홉줄로 된 아홉줄의 글로 되어 모두 八十一字인 것이다. 또 두 章을 나누고 句를 끊어 三篇 九章 七十六句가 되나 뜻이 깊고 그윽하여 讀해하기 어렵다. 그 本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東方의 檀君神은 特出한 神聖한 檀君을 祀하여 百姓을 溫厚하게 하고 勤勉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堂堂하고 強力한 民族이 되게 하였으며, 檀君의 이가 功績을 扶蘇에서는 「代天敎」라 하였으며 新羅에서는 崇天敎라 하였으며 高句麗에서는 敬天敎라 하였으며 高麗 때

明나라 사람 王奔洲(本名 王世貞 三才(三才))가 쓴 「續宛委餘編」이란 책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三神은 첫째 桓因(古語로 天父「하느님」을 뜻함)이요, 둘째 桓雄(天師요, 셋째 桓儉인데 이 둘은 秋로 祭祀를 敬건하게 모시었다. 箕子가 東쪽에서 와서 神의 理致를 欽敬하면서 敎理와 經典을 譯讀하고 阿斯達山에 祠堂을 지었으며 그 祠堂은 紫檀木으로 建造하고 三神位를 모셨다. 賢良一百名을 選拔하여 春이든바 箕子의 三八政 가운데 세 번째가 祀(제사)이니 이는 報本追遠 즉 先祖의 은혜에 감 사 보답한다는 뜻이다.

「韓」이나 「桓」이 모두가 우리 말로는 大(큰 것)을 뜻하는데 滿洲 말로는 「汗」으로 일컫게 되는데 이 「汗」은 「韓」과 同音이다. 「儉」은 君(군)을 뜻하는 것이니 桓儉이나 王儉은 모두 같은 뜻이다.

또 「東方神檀君史」에 이르기를

고 처음부터 어찌하여 서둘러서 妄靈된 評을 내리는가. 그러나 저들이 아는 것만을 늘어 論하는 것을 보면 中國人의 韓國觀은 대개가 길가에서 주 엮은 史에서 비롯된 것이요 疎漏하고 不精한 것이어서 深究熱考한 후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 중에서 비교적 實義를 잃지 않고 事實에 가깝게 記錄을 적은 것이 있는데 司馬相如(B C)가 「漢書」에서 漢武帝(B C)에 관하여 한 말이다. 陛下께서 謙讓하시어 미처 말씀하지 않으시니 오나 「三神」의 歡心을 사시는 일이 오니이다 (여기서 三神이라 함은 곧 「上帝」를 뜻함이다).

中國人들은 항상 自國의 文化가 일찍 開發되고 政敎가 발달되어 隣國까지 善察하였다고 생각하며 災禍와 기구한 恥辱을 면여 왔거늘 아직도 自悔自痛嘆스럽도다. 韓人은 이와 같이 기이한 災禍와 기구한 恥辱을 면여 왔거늘 아직도 自悔自痛嘆스럽도다. 韓人은 이와 같이 기이한 災禍와 기구한 恥辱을 면여 왔거늘 아직도 自悔自痛嘆스럽도다. 韓人은 이와 같이 기이한 災禍와 기구한 恥辱을 면여 왔거늘 아직도 自悔自痛嘆스럽도다.

기전 歷史를 마르 잡는 데 있어서 近時에 宋教仁氏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었다.

일찍이 東省(滿洲를 뜻함)에서 滿洲族의 清나라가 中國大陸에 쳐 들어가기 전의 秘史가 많이 발견되었다. 그 秘史들이 지금은 거의 모두가 東京에 있는데 그 가운데 滿洲族이 高麗에 表文을 올렸는데 그 表文에 이르기를 스스로 「後金奴才」라고 自稱한 데목이 있다.

7. 誣史辨正 一

- 【註 1】乾隆皇帝(二二~二九)、清國 第六代王 十次武功을稱頌한 「御制十全記」를 찬술하였다.
- 【註 2】南海郡 一東面 長阿里에 있는 큰 마을에 서겨진 글자이다.
- 【註 3】唐나라 杜佑(칠~十三)가 지은 史書。

『前清滿洲誌』에는 拜天敎의 일에 관하여 詳述되어 있으며、韓國의 儒生 李星湖와 丁茶山의 著書에도 三敎(大敎)와 三神說에 관하여 記述한 바가 있다.

고 하였다.

弘聖帝를 開天한 帝王으로 冊立하였다

昌明(年號未詳)四年十月에는 또 다시

고 하였으며

興國 靈應王을 尊崇하는 禮를 다 하였다.

『金史』大定十二年(二二)十二月에는

社에 告饗다. 마침내 드디어 三神位까지 모시게 되었다.

遼의 皇帝는 친히 이곳을 觀察하고 또 出師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곳을 먼저 찾아와 廟

檀木을 심고서 神樹라고 명칭을 붙였다.

廟社를 木葉山(목설산)에 세우고 東쪽을 향하여 天神의 位(위)를 設하고 廟社의 庭園에

『遼史』神冊元년에 보면

檀君의 開天 建國하심도 역시 十月三日이다.

敬拜하였다.

에는 王儉敎라 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三神을 祭祀지내는 것이며 해마다 十月이면 하늘에

고 하였다(여기서 奴才라는 두 자는 滿洲에서는 上國에 對해서 쓰는 通用稱號인 것이다). 黃炎培氏가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權域韓國을 뜻하며 無窮花는 韓國의 國花이다)을 방문하여 韓國史를 模倣하였는데 그 본의가 歷史의 實狀을 刪削하는 데 있지는 않았겠지만 借作 鑑戒하여 日本을 대신하여 專力を 한 나머지 일본의 그 假仁과 僞善에 對하여 說을 宣揚하는 結果가 되었다.

특히 怪異한 일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傳承되어 오는 것을 묻고 다니며 遺風을 採掘 探訪하면서 어찌하여 隱人 文士는 찾지 않고 외갈수로 日本人의 한쪽 말만 듣고 또 本은 버리고 未단 취하며 實은 버리고 虛만 내세우려고 하였는가 말이다.

黃氏가 根據로서 삼아 활용한 소위 行政年鑑이란 책은 일본의 犯罪行爲에 해당하는 책이요 秘本의 眞實만을 誇示하는 것이요 日本人들만이 絶世의 稀貴한 珍本이라고 自畫自讚하는 소리를 일본인의 主音이(口吻)에 오르내리고 있는 책이며 남을 멸시하고 자기 혼자만 잘난 체한 책인 것이다. 또 대체 黃氏의 생각이 이처럼 선하게 모아 랐단 말인가.

일본인을 相對하여 韓國史의 眞體를 討論하여 探究한다는 것은 事實의 實情을 크게 모르는 것이며 여우와 더불어 謀反을 도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暴力罪만이나 앞에서 언저로 仁義와 法道를 들먹이는 것과 같거늘 그러고서도 오직려 할 일을 다 했노라고 快心の 微笑를 지으며 특의양양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때는 북에 미움을 적었을 때 어찌하여 여기까지 悲愴이 미치지 못했는가.

지난해에 尹致昊가 政治犯으로서 구속되어 있었는데 西洋人이 友誼로서 그를 訪問하고자 했더니 日本官吏는 이를 거절할 방편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西洋人이 罪囚의 慘酷한 實狀을 新聞에 發表할까 꺼려 하는 생각에서 일본인들은 비밀히 監獄을 감식하고 衣裳이며, 房이며를 은송 재것으로 바꿔 놓았던 것이다.

이래서 서양인은 마음속으로 日本文化가 韓人罪囚의 監房에까지 미쳤구나 했을 것이다. 그 더 나뉘어 있었으랴 그 서양인들이 獄門을 나서자마자 無道한 蠻行이 옛날과 다를없이 계속되었다는 事實을!

黃君의 생각이 일찌감치 여기에 미쳤더라면 그의 지체는 분명히 서양인이 尹致昊를 방문했단 것보다는 반드시 더 賢明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外華만을 보아 日本文明의 發展이 아를 많다는 것만을 알고 韓國人의 哀痛하는 標本을 보지 못하고 이를 紙面 위에만 반영시켜 놓았던 것이다.

上海에 관한 설명을 들어 보자. 上海는 원래 황량한 바닷가의 한 구역을 차지하고 있던 그 읍이다. 그런데 外國人의 開港이 있고서부터 그 발달속도가 一瀉千里格이었다. 이른바 大英路 大馬路의 갖가지 시설은 사람의 눈을 眩惑하게끔 하였다. 시립삼아 이 찬란한 세계를 이룩한 힘이 어너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中國人의 膏血을 각취하지 않고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現在의 일을 어루만지면서 옛날일을 追想해 보면 悲癘스런 일이 어느 쪽이 더 심했을까.

경하듯 하며, 조금도 마음에介意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즉 道學으로서 세상을 멸친 朱晦菴(朱熹 一一三一~一二〇〇)이 제자들에게 答辯한 것을 보면 아직도 明樞치 못한 데가 있고 博學多識한 章太炎(章炳麟 一八七三~一九三六)도 「漢四郡의 疆域」에 대해서 명칭하니 분별을 못한다.

그런데 스승으로 文豪라고 자칭하는 梁啓超(梁啟超 一八七三~一九二九)는 隣國(韓國)의 歷史도 연구하지 않은 주제에 근거도 없는 말을 떠벌리며서 심지어 國文조차 없는 未開한 나라에서 난항지 않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한탄까지 늘어놓았다. 그 밖에도 薛仁貴(薛仁貴 六四一~七〇三)의 「東征」이니 「英雄漢」란 것들이 그 열마나 朝鮮亡國史의 씨를 심었던가!

혹은 條約 文句의 抄錄을 記載하는 것 이외에는 事實에도 없는 虛妄하고 謬誤된 말을 많이 나열해 놓고서 年代나 姓名이나 기타 사실 모두가 顛倒되고 錯誤된 것이 한두 가지 아니라 한 사람의 文章도 제대로 價値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논을 불러 저들의 中·下等社會를 보면 아래 燈臺 밑에서 술잔을 기울이다가 犀角이 도드해지면 주고 받는 말이 「부부대령」이나 「백지비계 특집」이라 서로 禮當무제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으며, 흥미진진해 하는 것이 고작이다. 각종 韓國의 명이 어디에 있다고 믿는다면 廣東의 남쪽이라고 대담하지 않았지만 四川의 서쪽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이런 담론들은 事理에 불명하다는 失手라는 볼 수 있을지라도 이러한 것을 저들의 過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宗親의 文學之士들이 事實을 근거부지 않는 글

한편 咫尺간에 있는 上海의 縣治를 各省의 各縣과 비교하면 한두 개의 模範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도가 歐羅巴·美國의 여러 도시와 있는 이른바 「자이니남안」(唐(唐)과의 差異)은 바가 무색케 하는 것뿐이다.

每事를 여기에 대비할 필요야 없겠지만 다른 나라의 위를 들며이고 단정할 정원은 아닌 것 같다. 物質文明이란 원래 우리가 파라는 마지만 自力自辨할 能力이 되지 못해서 의주인의 威力에 눌리어서 血汗을 提供해 가면서 만수에 걸치는 高等生活를 누릴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는 비록 淸나라는 奢侈之國이라도 걸채로는 菩提之國으로 淨土를 짓이라도 되어 사슬과 멍돼지가 무리지어 뛰놀던 저 수렵지대가 훨씬 좋았을 것이다.

黃龍은 본래 석지가 있는 사람인지라 上繼의 아름다운 發展이 서양인의 思慮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禮讚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黃龍의 感想이 어찌하겠는가 알지 못할 일이다. 멀리 遼及해서 南宋(一一二七~一二七六)의 전후로부터 최근 淸나라 말기 이래로 中國의 國勢는 날로 위축되어 떨치지 못했고 모든 對外的 交涉는 머리를 숙이고 命숨을 트는 특이라서 남에게 온갖 裁量權을 떠맡기고 말았으니 가위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다. 이런 恥辱의이고 奇怪한 禍根은 일일이 列擧할 수 없으나 그 대부분이 外國의 實情을 다 알지 못한 데서 연유된 것이다. 말인즉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라고 한다. 이미 相對를 모르고 있었으니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셈이며, 이것이 중국이 衰弱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

國際間에 있어서 가장 密接하고 가장 緊박한 사이에 있는 韓國의 歷史를 마치 隔岸의 불구

近世의 政治家들을 볼진대 소위 日本通이라 지칭하는 者들의 行跡을 보더라도 다만 일을巧妙하게 粧飾하는 데만 치우쳐 결국 憑公營私하는 痕迹만 보일 뿐이다. 이래서 저들은 權力을 喪失당하고 나라를 屠殺하게 하는 방향으로 歸結되었다. 또 世人들은 洋風에 젖은 벼슬아치들을 妙하게 粧飾하는 데만 치우쳐 결국 憑公營私하는 痕迹만 보일 뿐이다. 이래서 저들은 權力을 喪失당하고 나라를 屠殺하게 하는 방향으로 歸結되었다. 왜냐하면 이 洋學士들의 智能의 犯罪는 보통의 國賊들보다 훨씬 더 兇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결코 事實無根한 소리가 아니다. 한결을 더 나아가 말한다면 일

諜利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中國人의 경우는 이와 다른 것이다. 저들은 이러한 것을 放置하여 所得이 있게 有用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國家公益에 附屬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개인의 昇進이나 料가 되어 있다.

다. 故로 調査·연구의 結果는 한결같이 統一되어 있어 반드시 썩어서 감킬 수 있도록 養育되지 않으면 안 된다. 中國人의 國家目的은 國家의 利益을 연구하는 데 있고 개인 利益의 目的은 연구하는 데 있지 않다. 故로 열마나 거리가 있는가를 명백하게 해준다.

없고 비뚤어진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公私間이나 巨하고 細하거나 精하고 麤한 사이가 적은 제와고(일본인의 직업은 專門이고 精密하고 깊은 연구를 거친 것이어서 희미한 것이 일본이 主權하고 있는 「東亞同文院」의 行政區域 分省分縣의 작업을 보면(日本人居留地에 관한 해야 한다)는 말과 「그대도가 좋다는 두 가지의 案이 나오게 된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不條理나 弊病이 있는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改革

시 試驗삼아 中國에서 朝에 있는 사람이 田野에 처하고 있는 사람이 空間에 지금 중국 각 省에 여러 가지의 圖畫하는 자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 歷代의 中國政治家들은 外國의 事情에만 소홀한 것이 아니라 自己 나라의 사정에 있어서도 私私私慾이나 자기의 口腹에 관계 없는 일에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隱隱한 태도를 취하여 者는 이 점 응시하지 마란다.

之中에 가끔씩 가혹한 오르는 感懷가 있어 부득이 본인의 所見을 發說하지 아니치 못하며 諷刺 本人이 쓴 글이 여기까지 이르러 더 이상 계속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突然히 不悅 精密하고 상세한 지경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것도 몇 가지의 刑行物이 있기는 하나 아직도 皮相의 인내 머물러 있을 뿐 여전히 시작한다.

고 막대한 손해를 입은 터에야 비로소 일본의 行跡을 研究하느라 급급한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들은 자연히 東北지방(奉天 瀋陽)을 잃고 閩北(上海 寧波)의 땅을 손타당하 말함자면 急性惡菌과 같은 日本에 대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識見도 마찬가지다.

또 한결을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중국인이 外國情況에 불명한 것이 어찌 韓國만이겠는가 說이 社會的 定說이 되고 말았으니 특히 痛歎스럽고 哀惜하기 이르러 없다.

저 이를 잘 알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社會는 眞實과 虛僞가 交替되어 마침내 이런 虛僞雲 만을 써 왔고 또 서로 相助하는 精神과 共濟하는 精神이 결여되어 있었으니 저를 庶民들이 어

본의 증규에 대한 策略도 마찬가지이다. 일련의 民間·政黨·軍閥·僧侶 또는 각 思想主義者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野慾은 만에 박은듯이 똑같은 것이나 다만 그 方術에 있어서만 變態이 다르고 隱顯이 다른 것이다. 中國社會는 이와 같이 이해하기 어렵게 명료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다.

僧侶가 일면 上海에 도착하면 王慶의 徒黨이 徒黨이 되어 아첨하는 말과 承順해 함이 頭山龍介 같은 者들의 屬人이 되고 만 것처럼 보인다.

頭山龍介는 秘密의 偵察의 任務를 가지고 중국에 來到한 자인데 中樞要人들은 앞을 다투어 諂諂적을 거꾸로 끌면서 저들을 迎接하느라고 覬覦하고 남보다 뒤질세라 안말을 한다.

오히려! 僧侶들이 비록 가짜의 慈悲佛心을 가졌더라도 野黨의 總理와 舊交를 비루 맺었다면 일련의 既定方針에 이르러 反對心理를 갖는다든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것은 三尺童子라도 明白히 말할 수 있는 일인데 어찌하여 覺察하지 못하고 명칭하던 말인가.

이런 바에 東西南北四方을 향하여 한마탕 크게 웃어나 볼바에!

黃君이 쓴 所論에 대하여 數三處 바로 잡아야 할 대목이 있다.

【註 1】「宋教仁(1892~1922)」潘東·民國初의 革命家 日本皇親田大校修撰
【註 2】「章太炎(1869~1937)」潘東·民國初의 革命家 日本에 亡命한 者 있음

(1) 箕子の 封國

箕子는 周나라(B.C 1050~1025) 武王이 殷나라를 征伐하는 소용돌이를 피하여 武王의 臣僕이 되는 恥辱을 받지 않으려고 五千名의 부하를 이끌고 東昏(朝鮮)으로 찾아 왔다.

檀君朝鮮의 扶餘王은 廣闊한 땅을 할애하여 주니 箕子는 本國의 賢人인 王受疏를 존비해서 士師로 삼아 「八條의 法規」를 施行하여 仁化를 廣播하고 平壤에 都邑을 建設하고 國號를 역시 「朝鮮」이라 하였다(「平壤」이란 俗의 뜻은 首都를 의미하는데 「平壤」이라고 칭하는 곳은 함부근데가 아니다).

周나라 漢史에 箕子를 王으로 封하기는 했지만 周나라의 關係는 아니었다고 하나 이 記錄과 다르게 적은 것은 없이 모두들 같게 적고 있다. 그러나 事理를 推察해 보면 箕子가 武王이 封하는 位置를 受諾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武王은 각기 管轄區에 있는 땅에다가 어떤 사람

을 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具眼之主는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2) 韓民族文化의 由來

檀君님의 神聖한 가르침은 四千四百年이 흘러간 지금에도 멀어진 것이 없다. 비록 經典과 遺籍이 여러 차례 厄禍를 만나 자취없이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그 固有의 美德은 流傳되

어은 善俗과 함께 지금까지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다. 敦倫·忠孝·愛敬은 五戒에 和合되고 祭品三白·衣服尙白·虔供三神·十月祭天·鑿徽呼矢 등과 같은 것이다. 여자는 貞

信하고 담자는 謹厚하며, 古史에서 氣仁之國이라고도 하고 君子之邦이라고도 칭하였으니 이

어찌 檀君으로부터 전하여서 유래된 것이 아니겠는가.

黃君의 글에 論斷한 것을 보면 根源을 연구하지 않고 祭天衣自에 대해서도 도리어 箕子遺 風에서 비롯된 것처럼 당혹하게 만들며, 또한 文化의 유패를 論及함에 있어서도 上古時代의 先進文明에 追及하지 못하고 世界文化史上 匹敵할 것이 없는 國仙·仙郎·皇衣·花郎 등의 길

고 근은 뿌리가 三國時代 이래로 있을 줄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韓族의 一切進化는 漢四郡이 후부터 發源된 것처럼 一筆로 論斷하고 있다. 이는 결론이 비록 周密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滅實主安의 失策을 범했다는 酷評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辰韓 때의 사람 「文朴」이 阿斯達山에 들어가 「檀君修道」를 修得하고 그 후 永郎·迦郎·南 石行·安誥와 같은 四仙의 徒가 神教와 異蹟에 관한 글을 써서 세상에 크게 傳播시켰다.

神教의 범위는 無限하고 理致의 奧妙함은 無窮하여 전체를 鑿論하기 어려우나 그 宗旨의 표 현은 鸞郎碑文에 나타나 있다.

즉 나라에 玄妙한 길이 있으면 三教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에 摛하여 感化됨은 다음과 같다.

전에 들어가면 兩觀에 추하고 적을 나서서는 일침에 비하여 함은 孔子의 教와 近接한 것 이며 含蓄없는 일에 처하여 있고 말없이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道敎와 가까운 바가 있으며

(3) 日本의 神功皇后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新羅의 崔致遠(???)이 쓴 글인데 崔致遠은 저 유명한 黃眞의 亂에 대한 檄文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다.

蝦夷라는 族屬은 본디 人類의 正義의 正義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떠돌아 다니며 掠奪 을 하는 것을 生業으로 삼고 사는 족속인데 그 來歷은 오래 전부터이다. 그런데 이들은 불행 하게도 韓族과 隣接해 살게 되었다. 이 녀들의 侵寇·窺好은 멀리 三國時代로부터 高麗·李朝 에 이르는 二千年間에 걸쳐 大寇에서 小寇에 이르기까지 모두 史書에 記錄하기란 어려운 일 이다.

그러나 壬辰倭亂의 큰 戰爭을 제외하면 저들의 침략 도둑질은 좀더듬에 지나지 않았으며, 가끔 바닷가에 침입하여 勝負를 내는 소요사건이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新羅時代에 땅을 빼 앗기고 降伏을 했다면 하는 말은 일찌기 틀어본 적도 없으며 野史나 舊傳을 두루 살펴보면 도 이러한 이야기는 없다. 만약 이와彷彿하고 近似한 記錄이 있다면 저들이 반드시 成文으로 擧證하였더라도 이는 부질없이 과장해서 적은 글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韓族이 日本을 討伐하였다는 말은 뚜렷하게 記錄으로 남아 있다. 廣開土王이 일

본을 南征하였다든가 新羅가 수차 일본을 征伐하였다든가와 같은 것이다.

金世濂(金世濂)의 『海權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日本年代記』라는 책에 日本의 應神王 二十二年 新羅가 日本의 明石浦를 征伐했는데 이 明石浦는 大阪으로부터 百里되는 곳에 있다.

赤關의 東쪽에 한 언덕이 있는바 日本사람이 이를 가리켜 馬塚이라 했다. 즉 新羅의 軍士들이 陣중이 일본을 쳐 들어오니 일본이 降伏하고 武裝解除를 했는바 이때 白馬를 降伏의 表示로 죽여 이 언덕에 묻었다.

고 하였다.

新羅의 太宗(三十一代武烈王)이 일본을 征伐하여 大勝했으며, 眞平王 四年(三三年) 즉 日本의 敏達王 十一年에 日本의 서쪽 지방을 征伐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安順菴(安鼎福 三三)의 기록에 의하면 絶影島라는 섬에 오래 된 要塞地가 있는데 新羅의 太宗武烈王이 倭國을 征伐할 때 築造한 것이며, 俗稱「太宗壇」이라 불린다고 했다.

또 高麗元宗 十五年(二五五年)에는 金方慶·林之亮·金忻 등이 元나라 兵士와 함께 연합하여 일본을 攻撃하였는데 對馬島의 壹岐를 侵攻하여 三郎浦에 進擊(三千餘名을 싸우고 尸如麻에 埋伏했다가 때마침 大風을 만나 回軍하였다.

또 高麗忠烈王(三三) 七年 元帥 金方慶에게 명하여 戰船 九百隻으로써 水陸兩軍 四萬名을 이끌고 元나라 元帥 忻都와 洪茶印 등과 함께 일본을 征伐하여 大明浦와 壹岐島를 大破하여 敵을 斬하고 노획함이 아주 많았는데 그때 元나라는 다시 范文虎로 하여금 江南의 兵力十萬을 이끌고 戰船 二千으로써 江蘇省으로부터 日本의 國境을 침공하였는데 때마침 颶風을 만나 全軍이 물에 빠져 沒死당하여 回軍하고 말았다. 이 戰役에서도 高麗軍은 늘 이겼으며, 결코 패하지 않았다.

高麗 말기에 이르러 日本의 侵寇는 더욱 심하였는데 朝鮮王朝의 太祖 李母은 여러 차례 大勝을 거두었는데 바 저 智異山 山麓에서 數千의 倭寇를 斬하고 다음에는 倭寇의 세력도 점점 약여 숨을 죽이게끔 되었다.

李成桂(李母)가 凱旋하여 돌아오는 날 崔瑩 大將軍은 三尺의 칼끝으로 社稷을 平安케 하였으며 「라는 詩句로써 李將軍의 戰功을 찬미하였다.

朝鮮朝 定宗(三三)이 對馬島를 討伐하였고 世宗大王(三三)은 李從茂·柳廷顯을 명하여 兵船 一百七十七隻과 水陸軍 萬七千名을 동원하여 對馬島를 征伐하여 一千九百三十九戶의 집을 불태우고 二百級의 머리를 斬하고 日船 百四十九隻을 노획하니 對馬島主 宗貞盛이 降伏하여 마침내 兵士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三浦를 열어 倭國과의 貿易을 리용하게 하였다. 예로부터 日本의 倭寇가 줄을 이어 海上侵寇는 때를 가리지 않고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이를 擊退하였으므로 별로 대단치 않은 일로 여겨왔다.

더욱이 倭寇의 侵犯은 歷史的으로 관찰한즉 韓國 海岸에 대한 倭寇에 그치지 아니하고 중

국의 江蘇省 浙江省 등지와 皖閩(安徽省의 古號)의 沿邊은 특히 被虜가 심하였다.

저 朱元璋의 明나라(三才(三傑)) 二百年間에 倭寇를 방어하는 일에 從事하느라고 海洋과 內陸地方은 영원히 平安한 날이 없었으며 要塞地마다 되흔린 작두이 부러이 남아 있을 정도였으니 바닷가의 일부 구역은 倭寇가 모여 들고 흩어지는 場所로 되었으나 明史를 훑어보면 倭寇 倭문에 夢을 빼앗겼다고는 記述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事實을 쓰는 書法인 것이다.

우리나라와 倭寇의 關係 역시 동일한 예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黃炎培는 오직 일본측의 記述만을 좇아 민고 글을 쓴 품이 일본으로 하여금 거짓 證據를 드르도록 허용하게 하였으니 그의 地圖는 가히 아리송한 바 있다.

神功皇后의 거짓 歷史대목은 일본인의 虛僞와 誇大의 歷史托막이다. 처음에는 和를乞해서 割地했다가 거짓말을 해두고 또 다시 歷史地圖에 색깔을 바꾸어 해 놓고서 거짓말을 하는 따위의 誣妄의 虛說을 事實인양 꾸며 놓았다. 黃君이 이 때문에 가서 한때나마 의심 을 두지 않고 盲信하고서 그러한 史實의 典據가 있는 곳이 적어 놓았으니 이는 이해하기 어려 운 점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지금 半島의 山河는 이미 地圖의 색깔이 바뀐지 몇해가 지났는데 구구하 게 과거의 흔적이 史跡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跋扈분들은 무슨 수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나 그것 은 그렇지 않다.

(4) 韓國 사람의 智德

韓國 사람의 智力과 道德은 日本人과 비교하여 論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이는 결코 虛僞·誇張의 이야기 가 아니다.

日本이 人類歷史에서 차지하고 있는 歷史는 실로 二千年 미만이다. 저들이 추대하는 이른 바 神武帝는 世人이 아직도 크게 의심하게 여기고 있는 바다. 비록 神武帝가 實在의 人物이 라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中國의 太古時代의 傳說의 人物인 盤古氏 같은 것이어서 머나먼 옛 적의 일이라 이를 상세하게 探究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人類進化의 온갖 根源은 韓國 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韓國民族은 歷史的으로 神聖한 모습을 갖추고서 久遠한 歷史를 享有한 民族이기 때문에 日本人을 대하기를 사랄족에도 들지 않는 不齒者로 여겨온지 오래되었다.

「日本」이란 두 글자는 庚戌國恥 이전에는 公文文書에만 마지못해 쓰던 글자이지 그 밖에 사 람이나 物件에는 꼭 「倭」字를 덧붙여서 代名詞로 사용했었다(예 倭人·倭國·倭寇 등).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韓國 사람들은 비록 나라를 잃고 滅族의 慘禍를 당했으나 日本에 대 해서는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거나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특수한 精神構造를 지니고 있는 것

이다. 乙巳保護條約을 전후하여 十年間倭敵을 치는 奮勇한 義軍의 壯學는 可리할 이었거니와 그 밖에도 저 安重根義士가 伊藤博文을 쏘아 쓰러뜨린 일, 李奉昌이 日廳을 狙擊한 일, 金益相·吳成倫이 田中義一에게 爆彈을 던진 일(일찍이 中國을 劫掠하려는 일본측의 戰略에 쫓아 秘密히 派遣되었던 일본의 陸軍大將田中義一을 狙擊으로 倭賊을 討러 죽인 일(金相玉烈士는 單身으로 모든 京城의 兵力과 警察도 騎馬隊를 尙대하여 混戰하기를 하루 밤·밤 동안 계속하여 倭賊의 屍體가 絶境이 쌓이는 가운데 마침내 彈丸이 떨어져 自決하였으며 羅錫麟烈士는 일본의 重要機關에 自費에 뛰어들어 일본의 重要人物을 射殺한 후 끝내 自殺하였다).

또 宋學先이 朝鮮總督을 狙擊했고, 尹奉吉義士는 白川大將 등을 爆死시켰으니 이들은 특히 빼어난 烈士들로서 豪傑다운 義로운 肝膽을 가취 日月과 雲을 다들 만한 人物들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官班나 兵士·巡警을 때려 죽여 「仁과 義」를 다한 人士들은 그 수가 棼만 을 헤아리고도 남으니 일일이 그 예를 다 들 수 있는 틈이 없으며 저들은 마땅히 祖先의 빛 나는 傳統을 남김 없이 발휘한 功을 기리어 表彰해야 할 것이며 또 世界를 향하여 그 迷夢을 깨우치게 한 功도 마땅히 표창해야 할 것이다.

韓國사람이 國家光復에 대한 信念은 伸冤雪恥의 根은 바가 있어 常存; 各地에서 접어들어 오는 것과 같이 보통일로 보기 때문에 前衛隊가 쓰러지면 後衛隊가 이어 막아 三十年 동안이나 이렇게 싸워오기도 지칠 줄을 모르니 이것이 어찌 한때의 우연한 일일 수 있으리! 一時的

興奮 때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오호라! 韓國사람이 어찌 生死의 갈림길에서 好惡을 取捨할 줄을 모르겠느냐?

첫째로는 形勢가 부득이한 때문이요. 또 한편으로는 先烈들이 남긴 遺業을 몸에 새겨 간 격했기 때문인 것이다. 저 忠正公 閔泳煥先生께서 殉國하시면서 遺書로 남기신 글을 요약권 때 「살고자 하는 者는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는 者는 반드시 살리라」 하였다.

하는 일이다.

(5) 韓國사람의 創造力

韓國사람의 創造力이 優越하며, 결코 他民族에 뒤지지 않음을 일일이 例證할 수 없으나 대략 世界的으로 제일 앞선 것을 골라 말하면 다음과 같다.

저 高麗의 僻僻하게 틀어찬 大藏經板은 멀리 九百餘年 전의 일로서 그 美術的 價値의 精巧하고 緻密함은 世界 제일이다. 이 經板은 현재 陝川의 海印寺에 있는 바 가히 세계적 珍本이다. 高麗 때의 鐵活字는 知白州事 徐養이 創造한 것이니 글자가 精巧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高麗 高宗(三三~三九) 때에 鑄字를 써서 禮文을 印刷해 책을 냈는데 지금부터 七百餘年 전의 일이다. 李舜臣의 거북선은 壬辰亂(三三~三九) 때 日本의 水軍 十萬名을 하루 아침에 殲멸시켰다.

英國海軍省에서 쓴 책에는 「韓國軍艦은 鐵板으로 뒤집어 썼으며 모양이 마치 거북의 등처럼 생겼으며 前進後退가 가토 세로 移動이 自由自在이라 그 빠르기도 마치 나는 새와 같아 日本의 水軍을 大破하였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鐵甲艦의 鼻祖이다」라고 記錄되어 있다.

또 日本海軍에서 發刊한 책에 의하면 「李舜臣將軍이 만들어낸 거북선은 그 성능의 뛰어난 이 英國 提督의 功績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다」라고 하였었다.

近世의 日本海軍大佐 邊田이 撰述한 책에 보면 豐臣秀吉의 智慧、小西行長의 勇猛은 韓國을 위협하고 明나라를 공격하여 마치 天下를 뒤엎는 듯한 세력을 보였으나 홀연히 큰 偉人을 만나 이 무서운 세력을 하루 아침에 꺾이게 하였으니 이 偉人은 朝鮮의 三韓水軍統制使 李舜臣將軍이다.

李舜臣과 빛은 그리고 東郷平八郎은 세계의 三傑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의 성격은 神秘로운 智慧로 가득 차 아무도 그것을 測量할 길이 없는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

또 明나라 將帥 陳璘이 上奏한 表文에는 李舜臣은 하늘을 덮고 太陽을 가리울 만한 뛰어난 功績을 세웠으며、經天緯地할 英才이니 이는 한 나라의 名將이 아니라 天下의 上將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朴齊朝鮮·宣祖 때 武臣의 砲軍가 있다. 세상에서 흔히 이 砲軍 飛蟻巢天雷라고 부른다. 手辰倭亂 때 이 大砲는 日軍을 殲滅시켰는데 이 砲九이 한번 敵帥에 떨어지면 天地를 진동하

며, 무수한 鐵片이 별메처럼 부서져 날아감으로써 敵들을 날려 버리고 놀라 드마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 鄭平九(朝鮮·宣祖 때 發明家)의 飛車가 있는데 역시 壬辰倭亂 때 晉州 牧使 金時敏은 이 飛車를 사용하여 倭軍 二萬名을 殲멸시켰다 한다.

이 飛車는 가죽으로 製造하였으며, 등허 四名을 태웠는데 生김새가 마치 나는 황새를 닮았다고 한다. 뽕뽕하게 생긴 腹部에서 바람을 일으켜 나는데 한번 한번 수백丈을 날라 간다. 그러나 한번 회오리 바람을 만나면 힘을 잃고 더 날지 못한다고 한다.

申景澹(英祖 때 實學者 申叔舟)이 쓴 「飛行車史」라는 책이 있는데 아들은 飛車는 세계 航空의 鼻祖라 할 만하다.

韓國의 文字를 말할 것 같은면 저上古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 있는데 마치 秦나라의 篆字나 楚字같은 것이어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五百年 전 朝鮮朝의 世宗大王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리신 기록한 임금님이신데 그가 文物과 藝術을 製作하시고 後孫들에게 遺業으로 남기신 것이 아주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 韓族固有의 文字인 것이다. 멀리는 古代의 文字體를 본뜨시고 새로운 글자를 創造하시었는데 기묘하고 신통하여 세계의 온갖 人間과 物質의 音響을 옮기는 데 조금도 부족하거나 正確하지 않은 점이 전혀 없으므로 古今東西의 文字 가운데 그 으뜸머리가 되었다.

「러시아의 어떤 學者는 「韓國의 「한글을 아주 科學的이며、數學的이어서 세계에 이와 견

高麗의 成宗(六代 卒) 즉 지금부터 千年 전에 銅錢과 鐵錢을 이미 鑄造하여 사용하였 으며, 이와 함께 銀瓶貨라는 것도 鑄造하여 사용하였으니 重量은 十五兩이며, 二韓地圖를 그 림으로 그려 넣은 것이다. 이를 속칭 「濶口」라고 하였다.

한편 高麗 肅宗(十五代 卒) 때에는 銅貨를 주조하였는데 「海東通寶」, 「海東重寶」, 「三韓通寶」, 「三韓重寶」 또는 「東國通寶」, 「東國重寶」, 「東國共寶」라는 것도 있었다. 그 最古의 것으로 「朝鮮通寶」가 있다.

近代 日本의 法學士 淺山賢介가 著述한 『韓國貨幣史』라는 책은 비록 精密하고 詳考한 책도 아니지만 日本通이라 자부하는 黃君이 이 책을 구경도 못하고서 함부로 妄靈된 소리를 거침 없이 하는가. 저 三國時代 後하여서는 布貨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或間에 金, 銀도 사용하 였다.

그는 차차 報告하기를 韓國백성은 愚鈍해서 數字의 計算法도 잘 모른다고 侮辱的인 말까지 지껄었다.

黃炎培는 報告해서 말하기를 韓國人의 貨幣는 처음으로 사용하기를 滿洲 淸나라의 順治(三)年間에 만들어진 貨幣라고 하였다.

(6) 韓國貨幣觀에 대하여

年 세월의 神秘를 안고 있는 高麗·朝鮮의 陶磁器의 아름다움을 좋아할 수는 없다.

高麗의 磁器와 秘窟 안에 있는 僧舍樓의 浮屠 기와 瓦屋! 이 가운데 하나는 千年 古代의 珍物인 반면 다른 하나는 五百年 전의 寶物이다. 세상에 이와 미진 못한 물건이 없다.

저 淸나라 康熙帝(四代 卒) 때의 窯製나 日本·歐美 등지의 機器品이 이 千年·五百年 珍物보다도 더 아깝고 痛歎할 일도 아니겠는가.

식이 퍼져 모자랐던 人物이었던 것 같다. 그러서 이 察할 겨로막아 施行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精巧하고 經濟한가를 한눈에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이니 그때 反論을 제기했던 자는 재주와 학 지름 中國사람이 사용하던 注音符에 비하면 어느 것이 간편하고 煩雜하며, 또 어느 것이 더 편리하면 되는 일이지 어찌하여 어느 나라의 新興이니 新인이니를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무릇 文字란 道를 實踐하는 道具이다. 따라서 진실로 보급하기에 편리하고 文들을 退浴하는 한다.

字를 본떠서 쓰려고 하는가」라고 하여 반대하는 자가 있어 이 議論은 빛을 보지 못하였다

이때 어느 內閣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新興의 中華民國에서 하필이면 新인인 韓國文

國에 施行하는 주장을 폈었다.

袁世凱(中華民國 初代 大統領 卒)는 오랫동안 韓國의 서울에 駐在한 바 있는데 한글의 靈 妙한 理致를 배워서 깨닫고 그가 中華民國 國初의 大統領을 지낼 때 韓字를 採用하여 널리 中

國에 施行하는 주장을 폈었다.

가진 나라라고 격찬하였다.

할 만한 文字가 없다고 하였으며, 英國이나 美國의 人士들도 韓國은 보배롭고 귀한 文字를

中國같은 나라는 五胡族과 滿族·蒙古族 및 苗族·獠族에 이르기까지 여러 族屬이 오랫동안 혼잡되어 있고 姓氏마저 變易되었는데 어찌 慧·愚함을 그 先祖에 따라 유래된 바를 명료히 밝히려는 蕪君의 이런 생각은 심히 모자라기 짝이 없으며 착각이 심한 것이다.

여기서 우스운 故事 하나가 생각난다. 옛날에 韓國사람 曹元理가 數學에 밝았는데 그의 친 구인 漢나라 사람 陳廣漢은 자기척의 쌀뒤주의 數가 몇 개인지 물어먹었기 때문에 曹元理앞에 대나무 算筒을 갖다 놓고 그 수를 계산해 달라고 졸랐다. 그러더니 曹元理는 쌀이 몇升 몇

스스로 斷言할 수 있다. 지금 韓國인이 처해 있는 形勢가 慘然해서 부서진 조각마져 없는 지경이나 航空術이나 각종 競技나 공부 成績을 볼지라도 한결같이 일본인보다 優秀한 것이 사실이다. 이래서 일본인은 猜忌해서 여타가 지르 韓國인의 資質에 制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 구인의 움트는 손을 자르그 꿈쩍 못하게 하며 일어서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慣行으로 쌓여져 있음을 익히 보든바다.

蕪君은 韓族이 複雜한 種族이라 폄박하면서 그 起源을 遡及하여 그 慧愚를 증명이라도 하려고 하나 스스로 이렇하기 힘든 일이다.

韓族이 비록 少數의 種族이나 蒙古族의 混血된 바가 있다 하더라도 千百年 전후의 일이며, 또 손수의 日本族의 피가 섞이었다 하더라도 역시 四百年 전의 일이라 이미 이들은 同化된 지 오래이다. 그러기 때문에 터질만함이라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 지금 세계의 어느 나라라도 한

國인과 같은 單一族이 어디에 또 있는가.

韓族은 원래 大陸과 海洋의 구별이 있다. 남쪽 海洋性은 表情이 많은 편이며, 북쪽 大陸性 氣質은 質朴하고 敦厚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智慧롭다거나, 愚鈍하다거나 할 수는 없

는 것이다. 황차 韓國人の 血統을 얻지로서 上古時代의 그것과 비교하여 탐구하는 것도 잘 못이다.

오차이 韓國인은 生活에 있어서 驚蕪상태나 心的 安全에 있어서 일본인에게 크게 뒤진다. 能力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의 業務를 向上시키기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 있어 制限을 받고 있기 때문에 韓國인 本然의 能力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韓日에게 同等한 地位가 주어진다면 韓國인이 일본인보다 배 이상 優秀할 직업은

습이 된다고 강제하게 계산해 알려 주었다. 陳廣漢은 설리주의 門을 열어 일일이 설의 勸을 기입하며, 조사해 봤더니 설의 數를 알리게 되었는데 曹元理가 말한 數量보다 한 兩(兩)밖에 되지 않고 꼭 맞았다. 그런데 설 뒤주 속에서 크기가 쌀 한 되(一升)만 큰 쥐 한 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漢人 陳廣漢은 한국인 曹元理의 뛰어난 竹算術에 탄복하였다. 그러나 曹元理는 도리어 「쌀과 쥐를 구별 못하고 션을 썼으니 부끄러울 뿐!」이라고 대답했다 한다.

(7) 排華感情을 증발시킨 陰謀

지난번에 있었던 萬寶山事件이란 것은 과연 韓國사람들이 自發的으로 일으킨 사건이었는가. 大抵 이 사건은 위에서 日本官憲의 指令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요. 韓中兩民族의 感情을 이간시키려는 陰謀에 의한 것이었다.

최근 약 二〇年 이래 日本官憲들은 韓國사람의 一舉一動은 반드시 隱密하게 살피고 細密하게 視察하여 왔던 것이다. 우연하게 마음속으로 비난하는 말이 오고가도 심한 刑罰을 받게 되었으나 유독히 萬寶山事件에 있어서는 공공연히 무리를 지어 破壞하고 殺傷하는 행위가 구도에 달하였어도 警察과 憲兵은 시간이 흘러가도 말리지 않을 만큼의 엄고 장엄이나 꾸며져서 행세하였으며, 最近에 있는 각 言論機關도 커음이 배비세끼처럼 一言半句의 말 한마디 없었다. 마칠내 사회의 有志들이 참다 못해 凶暴을 중지하고 罪態를 마포잡자고 말리자 이번에는 도리

어 日本警察에 의하여 이러한 일이 抑制를 당하게 되고 일체의 事件真相을 발표되는 것이 뒤올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被禁까지 되었은즉 기괴하고 증오할 일이라. 日人들의 마음 쓰임을 보면 먼저 無根하게 「事件爆發」이라는 電報을 널리 傳播하여 內外民心을 煽動시키고 또한 無知徒輩들을 教唆하여 流言蜚語를 돌려 더욱 民心을 激하게 하여 이와 같은 건무후무한 慘劇을 演出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領事의 抗議와 輿論이 沸騰하게 되자 즉시 사건을 은폐하고 假飾하는 計略을 꾸며 暴徒들을 一方買收하고 또 한편으로는 逮捕하여 懲罰하는 恣意를 宣布하였으니 日本人들의 그 豫定된 奸計와 謀略이 한 치도 차질이 없어 마치 計劃表를 걸어놓고 행하듯이 뚜렷했던 것이다.

그런데 黃君은 저들의 暴力과 威力이 두려워 아주 이를 婉曲한 말로 敘述하여 감히 한마디의 實妄과 非難의 말을 發說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怯懦이 비열함이 도를 넘은 듯하다.

(8) 集會·結社에 관하여

韓國人の 集會·結社는 날이 갈수록 그 형편이 單調하고 空이 없었음이 그 추세이었다. 만약 日本方針에 불리한 團體가 있다면 既成團體이라도 전력을 기울여 解散시키고 앞으로 成立시키려는 단체는 단채는 금지하고 허가하지 않았다.

저 賣國의 走狗인 「進會」와 같은 것은 그 모습을 바꾼 것이 「天道教」인데 이 天道教는 新

오늘날 中國은 理致에도 없는 일을 받아들여 이것을 自己 것으로 變習해온 지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國際間에 있어서 는 아직 獨立國家의 地位를 지키고 있다.

저 九·一八事件(一九三一年) 이후 中國人들이 敵國의 財貨를 擧가하는 熱度가 더해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열도가 몇 도나 되겠는가. 그리고 東北地方(滿洲를 뜻함)을 應接하라는 소리는 대단한데 지금 어그 정도의 經지에 다다랐는가. 바로 이 점이 實로

序 言

8. 証史辨正二

첫처럼 行世하는 것이 今의 韓人의 實情인데 今 韓國의 眞相을 알고자 할진대 屢次 나타난 단체들을 보고 알려고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韓君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어두었던 모양이다.

그가 韓國에 到漢後를 때 방문하는 곳마다 동간질을 하는 일본인이 絶을 떠나지 않았고 그가 接하는 사람은 모조리 淑管識한 저자거리의 장사아침들에 拘限되어 있었으므로 일단 그가 北 韓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인들은 孫側을 愛護하고 推側을 仇惡하며서 자기들은 아무 疑心적인 점이 없는 하고 絶交하는 寸劇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것은 孫義菴先生의 遺骸를 公에 背信하는 것이 斷罪하며, 禮拜堂에서 자리를 달리 天道敎서 舊派인 孫基鉉 등은 曷칭을 問우어 崔麟 등의 출렬하고 비밀한 行跡을 擊討하고 해서 한 신문도 이를 보도한 신문이 없었다.

물들은 별로 懽待를 받지 못하고 늘어서 있었으나 이 崔麟의 一黨이 벌이는 추악한 행동에 관 涉은 녀점을 받으며 각목히 늘어서서 이 創立을 祝賀하였다. 數類의 韓國語 新聞社의 主要人 崔麟 등이 이른바 「時中會」라는 단체를 創立함에 있어서 總督府의 高級人物들이 華奢 이유가 있다.

무릇 新幹이란 말은 老木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온다는 뜻인데 또한 幹과 韓은 同音이라는 各地方의 重要分子를 일제히 檢査하고 監視하기에 이르렀다.

近時에 解體된 「新幹會」와 같은 것은 主趣가 非露 諜報하는 하나 團員이 全國의 으로 퍼 져 있고 확차 있어 日本인이 몇몇을 두고 秘密히 調查하여 끝내 解散시키는 暴舉를 자행하고 내고 인정 한 것이었다.

들 劣等한 結社體나 魔團은 원래 日本인이 培植한 製品이기 때문에 眞實로 保護할 가치가 있 은 日本이 품고 있는 內心의 의도를 맞추어 아첨하면서 自治를 희망하는 者들이 이다. 이 舊派로 나누어져 新派는 소위 崔麟 등이 하는 「大正親睦會」 따위를 托서 이를

일체의百姓들의輿論은 쓸데 없는 것으로 여기고 現行 政策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누가 함께 가리우고 가로 막고서는 열렬을 쟁그려 四方에서 누구에게나 屈從하 고 있으니 백성들은 이에 관심을 안부게 되었다. 이것은 天下에 일찍이 없던 大變故이요。前 世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혹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날의 政治는 外柔內剛해야 하기 때 문에 一面抵抗 一面交涉를 상례로 한다는 혼하게 않은 예를 開創해서 新術語를 쓰고 있다. 그 려서 안으로는 백성들의 疑愁를 緩和시키고 밖으로는 外敵의 마음에 迎合해야 하기 때문에 腹 背가 다 마비되어 앞으로 굽히지도 못하고 뒤로도 굽히지도 못하는 進退幽谷에 빠지고 말 것이니 그 情 狀 또한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로만 같은 사람의 性情을 타고났을 것인가 어찌 각기의 身元保證狀을 출겨 팔 아 넘기기를 바라겠는가. 그러므로 저들에게도 반드시 別途의 적용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알 고 마땅히 때가 到來하기를 기다리며서 剖부를 찌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으나 끝내 그들의 極 惡한 결과를 가져오야 말았으니 어찌 天下의 國民에게 謝罪할 수가 있겠는가.

各분이 바르지 못하고 言語가 順理에 따르지 못하고서 능히 大層을 수습하였다는 말을 모 르긴 하지만 전시라도 틀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저 망령된 사람들이 不安한 마음을 끌 어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니 밋은 太陽을 향해서 걸으면서도 夕陽에 방황하는 사 람처럼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다.

蕘炎培君의 論辨한 것이외 또 한두 가지 설명해 둘 것이 있다.

총론의 疑詞之類은 대목이다.

自我의 根本을 變質시키고 輕微히 따라가며, 또 敵國의 財貨는 不買同盟을 의치고 있는 사이에 敵國財貨의 價値는 倍增하였다. 應募해서 乞求어 들인 軍需物資는 東北地方에 購 得되지 못하고 재축하는 글만이 新聞의 간구색을 宣傳되고 있을 뿐이다. 敵의 財貨를 排 斥하고 義勇軍을 後援하자고 들끓던 열면 音聲은 사그라져 가고 다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오호라! 歷史上 일찍이 없었던 恥辱을 당하는 이때를 맞이하여 全中國의 敵愾心은 不抵抗 이라는 제 글자 속에 파묻히고 자취를 감추었으니 士大夫의 氣節과 風裁를 아지도 다시 復唱 해야 올만 말인가. 失地를 收復하고 敵產財貨에 대하여 不買同盟을 강화하고 抗日兵力을 연 습시키는 이 세 가지는 中國人 개개인이 걸머져야 할 義務이며 他에 讓步할 수 없는 中國의 國 是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여닫는 大門짝에 써붙이는 口號로 끝나고 참되게 實踐하 는 忠誠은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 이는 크게 痛嘆할 일이다.

요사이 政客들은 國內에서는 그 氣概가 壯한 듯하나 外國에 대해서는 心虛하여 外交交涉의 한번 있으면 事事件 屈伏하고 民論이 반대하는 것이 있으면 타치는 곳마다 彈壓하는 것을 能事로 알고 있다. 혹은 市廛의 當宿를 떠나서 보지도 않고 尙대방의 顏色를 살펴 감히 反論을 펴지도 못하고 奴隸의 비굴한 行實을 하고서 무릎을 꿇리고 부끄러운 줄도 느끼지 못 한다.

韓國先代の文儒洪耳溪(洪良淮 洪祖 洪)의 學者(三)가 지은 「首陽辨」이란 글이 있으니 한번 參證할 만한 글이다.

韓國은 文보다 實이다. 實實이 앞선다. 故로 老人들이 오래 전해 오는 말은 믿을 만하고 이 孤竹國은 海州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古來로부터 中國은 文이 앞서고 實實이라 周나라 武王이 다스리는 땅 안에 있는 山에서 고사리라도 캐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찍이 海州에는 淸聖詞가 지어져 있고 春秋에 享祀를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로 써 추리해 볼 때 伯夷·叔齊는 義로운 사람들로써 周나라의 糧食을 먹지 않았다고 한 義士들이 아니라 海州에 있는 山에서 고사리라도 캐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中國에서 말하는 首陽山이란 馬融(馬(玄) 後漢의 儒生)이 指摘하는 바에 의하면 蒲板(縣名 옛 年 舜의 都邑地 현제는 永濟縣의 東南 鹿都鎮이다)等處에 있는 山이름이라 하나 그곳에는 首陽山이란 것이 없다. 그러나 수천년 동안 옛 老人들이 서로 전해 오기를 수양산은 海州府에 있다

(2) 伯夷의 首陽山

지금 한국 서울의 博物院에는 陳列된 古物이 일본인이 盜品해 간 것 가운데 가장 最劣作品만 再買入해서 藏할 것인데 그 수가 전체의 반 이상이다.

日本인이 옛날 遺物을 살살이 뒤져 도둑해 갖기 때문에 지금은 남은 것이 없는 형편이다. 想像컨대 아마 이 物件도 韓國의 서울에 있지 않을 것이다.

지 豐德府에는 玉으로 만든 古塔이 있었는데 이는 三韓時代의 珍品이었다. 三十年 전 일본 의 宮內大臣 田中光顯이던 자가 밤을 틈나 이것을 竊盜해 가져 갔는데 중국의 蘇州에 있는 寒山寺의 鐘과 함께 비록 비리 밭이 지 있기는 하나 상대가 될 만한 珍物이었다.

일찍이 韓國의 서울 兵器庫에는 한 개의 큰 鐵槌가 保管되어 있었는데 重量이 百斤이 넘는 것이라 했다. 예로부터 전해 오는 말로는 滄海力士가 쓰던 遺物이라 했다. 본래 두 개의 鐵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保管해 두었는지 알지 못할 일이다.

日本인이 옛날 遺物을 살살이 뒤져 도둑해 갖기 때문에 지금은 남은 것이 없는 형편이다. 想像컨대 아마 이 物件도 韓國의 서울에 있지 않을 것이다.

지 豐德府에는 玉으로 만든 古塔이 있었는데 이는 三韓時代의 珍品이었다. 三十年 전 일본 의 宮內大臣 田中光顯이던 자가 밤을 틈나 이것을 竊盜해 가져 갔는데 중국의 蘇州에 있는 寒山寺의 鐘과 함께 비록 비리 밭이 지 있기는 하나 상대가 될 만한 珍物이었다.

擊破시키는 戰功을 올렸다.

兵을 請援한 일이 있는데 緬國의 날선 騎兵들은 과연 廣武(山西省 慶武縣)의 別관에서 頂羽를 지금의 江原道 江陵府이다. 또 楚나라 項羽와 漢高祖가 싸울 때 漢高祖는 緬國에게 날선 騎秦始皇을 博浪沙中(中國 河南省 博浪縣의 東南에 있는 地名에서 擊斃하였다. 이 東漢의 滄海國은 기 위해서 東쪽의 濊國에 와서 黎道俞이란 力士를 招聘한 다음 一百二十斤의 鐵槌를 가지고 張良(본래는 韓의 武士 AD? 漢)은 자기의 祖國인 韓을 滅ん시킨 秦나라에 대해 怨讐를 갚으려고 濊國에는 勇士가 많이 있었고 濊國에는 騎射가 많기로 天下에 소문이 나 있었다.

外交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閉關한 것을 이어온 때문인지 아무도 外國과 交涉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자가 실체로 없었다. 남쪽에 日本이 있고 북쪽에는 中國이 있어 去來를 갖고 있었는데 본래 韓國人은 日本人을 보기를 奴隸와 倖 같이 취급하였기 때문에 通商을 권하지 않았고 오직 東萊 한 곳만 貿易할 것을 認准하여 對馬島의 饑荒을 救濟하도록 하였다. 다만 中國에 대해서는 으레 전부터 歷史적으로 相互關係가 있었기 때문에 方寸之間이라든가 항상 떨어져

서 있었다. 이것이 大院君의 內治概要이다. 이러한 일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稱頌받은 일이었지만 權門勢家나 富豪들로부터는 많은 원망을 얻었다. 만약 한번이라도 反撥이나 抗議가 일어나면 즉각 압력을 넣어 이를 다스렸으니 이의 뜻을 일반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지 아니라 戚族이나 權門勢家나 富豪들로부터 거두 建設工事は 해마다 增大되고 이에 따라 所要經費는 많은 돈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런 巨額하고 勢力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었다.

면해지고 백성들은 안심하여 자기의 家業에 열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어찌 地位가 尊貴 떨어지면 백성들이 이를 떠받들어 행하고 禁制가 나오면 이를 범하지 않았으니 나라 안은 속 故로 政治는 대낮처럼 밝아져 清明하게 되었다. 그래서 大院君이 執政하는 기간에는 명령이 지하고 살 수 없는 弊政을 근본적으로 上層部로부터 痛徹한 改革을 斷行하지 않을 수 없었다. 刑이 事理에 맞지 않고 上下간에 欺罔을 일삼고 體系가 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百姓들이 의 또 從前에는 공연한 罪惡이 官廳 출입이 盛行하고 賄物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訟事나 行

는 데 一朝에 陋規를 改革하여 貴賤을 막 분하고 이를률적으로 均擔하도록 하였다. 道·縣의 庭境이었던 公廩과 社倉은 본과 糶穀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공립스러운 것이 사라졌다. 歷代로 弛緩되고 퇴폐했던 軍의 紀綱과 裝備은 준비시켜 다듬어지고 內實을 갖춰졌다. 燬되어 그로부터 三百年 동안 再建하지 못하고 있었다. 署나 名所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그 모습을 달리 만들어 놓았다. 景福宮은 저 正辰倭亂 때 灰 실로 可憫스러웠다. 景福宮을 重建하는 것이 서술이나 地方에 자리했던 千百個의 官들로 하여금 國政을 분담시켜 理致에 맞게 다스리니 二年도 못되어 政治가 刷新되니 그 모습 大院君은 이러한 危難을 맞이하여 먼저 賢良한 人材를 選拔하고 젊은 자람을 黜育시키고 이 綱紀가 紊亂하여서 國庫는 枯渴되고 國勢는 즉 날어진 것 반처럼 시들해 갔다.

韓末에 外戚들이 政事를 壟斷하면서부터 權門·豪族이 跋扈하여 公事가 私門으로 移管되고 이어서 조급도 구워스려운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도 없는 사람이라 했고, 性質은 暴戾하다 하였다. 그러나 그는 率直하고 正直하며 痛快한 부분 한 것은 眞實을 의면한 견해인 것이다. 그는 大院君을 가리켜 醫問이 부족하고 투별한 재주 養君의 敘述한 바를 보면 남을 賤迫한 것은 있어도 남을 稱讚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

(3) 大院君行啟



지 않았다. 그래서 燕京에 使臣을 파견하여 세 번이나 왕래하도록 하여 天下大勢를 審察하도록 하였으나 보고된 바는 별반 서로 差異가 없었다. 즉 보고마다 마침내 觀善을 圖謀하고 민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中國 하나뿐이며, 그 밖의 나라는 말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었다.

슬프다. 이때는 이미 北京도 저녁 놀이 침침하게 드리워져 있을 때였고 기나긴 밤꿈에 잠겨 있을 때였다. 總理衙門의 王爺들은 아직도 北京 동쪽의 民街에 자리한 각국 大使館에 나부끼는 國旗를 주저 識別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歐羅巴사람과 美國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연히 외부색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混稱해서 양도 깨비라고만 하였다.

北京에 나오는 新聞에는 아직도 自大迷夢에 사로잡혀 있어 外國의 使臣이 처음 도착하는 자가 있으면 某國의 파견된 使臣이 來朝하였다는 표현으로 儀典상의 上下도 없이 보도하였다. 그리고 萬國의 衣冠이 中國의 冕旒冠에 얹혀야 할 줄 알지 못하여 拜謁한다는 文何로 보도하니 이는 中國이 聖인이 있는 곳이고, 기타 外國은 모두 오랑캐라는 中華思想에서 나온 소식이니 가솔과 슬픈 일이리라 하겠다. 方長亂舞하는 時代에 大院君이 中國王爺에게 직접 가서 王爺에게 面談하였다 하더라도 天下大勢에 대하여 核心的이고 簡明하고 具體的인 것은 王爺들로부터 터연어들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事情이었다.

大院君은 누구를 中國에 派遣했는지 何人을 接했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맡을 받았는지 지금에 와서 追及해서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大院君은 이보다 먼저 存虛인 陋習을 肅清하고 여러가지 을바른 提案들을 미納하기를 희망

하면서 또 한편 異教徒들을 捕殺하였다. 이때 프랑스 神父 리델(디엘)은 大院君의 天主 敎彈壓事件을 프랑스 海軍提督 「로오즈」에게 泣訴하니 당시 淸나라 駐在 「프랑스」公使 「벨로네」의 명령으로 前記 「로오즈」少將은 艦船 七隻을 이끌고 水·陸軍 二千五百명을 江華津으로 출동시켰었다.

大院君은 李景夏를 巡撫使로 임명하고 梁憲洙를 先鋒으로 韓聖根·李章濂 등을 遊擊으로 삼아 廣城과 葛岾 사이에서 「프랑스」軍을 防禦케 하였으나 저들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江華는 「프랑스」軍에게 함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끝내는 呼聲이 捕手 八百名을 동원시켜 싸우게 하여 프랑스 艦船을 大破시키니 「로오즈」는 겨우 單身逃走하였다. 이것이 소위 丙寅洋擾이다. 또 丙寅洋擾가 있는 뒤 佛·美·獨 등 三國人이 共謀하여 비밀리에 牙山灣에 잠입하여 그곳에서부터 德山에 들어가 大院君 先親의 臺所를 파헤쳐 丙寅洋擾의 恥辱을 보무하려 하였으나 일이 발각되어 도망치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계속해서 美國의 배가 大同江에 침입하여 지방인의 손에 의하여 焚殺되었다. 이에 駐淸 美大使 「로오즈」는 아시아 艦隊 司令長官인 「로저스」에게 송하여 먼저 韓國에 가서 遭難者를 救護하고 아울러 貿易條約을 締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로저스」提督은 美國軍艦 五隻을 이끌고 江華海岸으로부터 沿岸의 水深을 測量하려고 漢江을 거슬러 올라갔다. 여기서 大院君은 砲擊할 것을 下命하니 江華 中軍 魚在淵은 力戰 끝에 戰死하였다. 美國軍은 韓國人の 勇敢性을 비로소 알고 오랫동안 버티지 못할 것을 깨달아 退却하여 中國 山東半島

貴國은 때에 맞춰 對應하되 原則을 固定하고 變更해서는 不可합니다.
 生馬君이 貨慾스런고 狡狴하옵니다. 때문에 前進하는 計를 씀이 좋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日本과 貴國이 交隣하는 여러 節次를 示唆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 바 倭人은 性情이 野
 稱頌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 疆土를 保全하고 社稷의 受侮를 防禦함에 心血을 쏟으심은 모두 宜當한 일이며, 至極히
 每事를 비교 審査하시며, 養生하시고 담으시어 中國의 主權大政(唐·宋代의 宰相宿名)과 같
 構想을 적어 보내셨기 때문에 小生은 無涯한 感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事에 관하여 反覆해서 그得失을 推究하시고 그 情勢를 分析하시며, 忠誠한 計劃과 睿辯한
 來하였읍니다만 昨年 設말 보름날에 사 보내신 書翰을 接하였읍니다. 尊兄께서는 邦交의 一
 橋山尊兄! 太師閣下! 正月에 이 글을 抄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차례 書信이 往

의 從叔이신 李裕元에게 다음과 같은 書翰을 보낸 바 있다.
 하였으나 그래도 이를 굳게 거절하여 좇지 않았다. 이에 北洋大臣 李鴻章(三三~三〇)은 본인
 마친내(己卯年(三三)) 가을 淸國이 개입하여 韓國朝廷과 佛·美兩國과 通商하도록 수차 권
 자들과 大院君 당시의 일을 어찌 비교하여 논하리오.
 留伏을 하면서 꼬리를 치고 불쌍히 여겨줄 것을 애걸하면서 自國人 앞에서 驕慢을 부리는
 요사이 자칭 文明한 新知識人으로서 世界大勢에 通曉한 외교인들이 強國의 威勢앞에서는

은 강한 人間의 壓烈한 息患가 남겨 있다는 점이다.
 후 어떤 이는 이 俳文을 夜郎自大的의 虛勢라 嘲笑할지 모른다. 그러나 夜郎自大 그것과 다른 점
 이 碑字의 碑文은 『斥和俳』라고 부른다. 이후 眼光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이를 볼 것이다.
 라고 했다.

洋夷侵犯(洋夷가 쳐들어 올때)
 非戰則和(싸우지 말고 화하자 함은)
 主和賣國(降伏을 주장하는 賣國이니라)

그 碑文에 말하기를
 으며, 서을 鐘路에 碑石을 세워 글을 새겨 넣었다.
 大院君은 이 두 차례의 洋擾를 겪고나서는 洋人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게 되었
 일익이 있고난 뒤이다.
 때문에 中國이 간섭할 바가 못된다고 하였다. 日本이 우리의 對等條約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을 질 것을 詰問하게 되었다. 이에 李鴻章이 대답하기를 韓國의 內治外交는 본래 自主의 이기
 二次의 洋擾를 거친 후 美國과 佛國은 中國을 향하여 다같이 韓國砲擊事件에 대하여 책임
 의 芝罘港으로 되돌아 갔다. 이를 가리켜 辛未洋擾라 한다.

中國의 兵力과 兵站은 日本의 十倍이라 日本을 알지르고 스스로 自營하여 尙상 國權을 지 령하려 하고 있을지라도 다만 貴國을 戒心하여 安全을 圖謀코자 하는 생각에 미치지 못하리니 그 때마다 주저스런데 이르러 한 때를 맞이하여 은밀하게 武備를 갖추고 計劃을 세우고 國力을 鍊磨하여 尙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疆域을 굳게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危險이 거듭 닥치더라도 鑿色을 바꾸지 않고 능히 남을 증동 속에 넣어 둔 것처럼 의연해 야겠읍니다. 매저 交隣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修約을 지키고 相對가 틀을 엮모 게 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一朝의 有事時엔 相對方은 不義하고 우리는 義

人은 貴國을 생각하기를 「右文之邦이라 여기고 있으나 財力이 充裕치 못함으로 뜻대

로 너를 돕습니다.

이에 中國과 貴國은 틀을 내어 弱點을 露出시키지 않고 장래 安保를 維持시키기는 참으 각자기 兵船을 發하여 琉球의 國王을 劫廢하고 그 疆土를 삼켜 버리고 말았읍니다.

琉球는 수백년을 繼續하여 온 舊國인데 일찌기 日本에 罪를 지은 일이 없지를 금년 봄에 있었읍니다. 모두가 注意를 요하는 바입니다.

막상 倭國과 이웃하여 있는 나라를 살펴보면 北에는 貴國이 있고 南에는 中國의 臺灣이 에 國庫는 淸淨하고 國債는 結算이 쌓이고 부득불 어떤 일을 꾸미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 지금 저들은 바야흐로 版圖를 넓혀 저들이 쓰는 많은 國費를 充當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이 세 富強의 技術을 모두 習得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勞力 때문 하고 있습니다.

日本은 오직 이 부찌 西洋의 文物을 崇尙하고 大衆으로 삼으려 하며 배방으로 일을 추진 概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래 日本의 行事에 乖謬가 있는 것을 觀察한다면 저들의 마음 쓰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일찌기 앞서서 方策을 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응달하게 그 면 구실을 憑藉하게 하지 마십시오.

결코 먼저 猜忌하고 嫌惡하는 마음을 相對方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저들이 어 鄙人이 일찌기 이런 말을 書信으로서 僣兒에게 勸한 바가 있습니다.

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두고 두고 오랫동안 和睦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好機를 만나 잘 되기를 希望한다면 日本에게 싸움이나 紛爭의 빌미를 주 는原因이 될 것인즉 倭人의 말은 반드시 마음속에서 由來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득을 보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며 원칙에 合當함을 얻지 못한다면 外援이 드리어 仇敵이 되 鄙人의 생각으로는 예로부터 交際하는 方法이란 原則에 따르다면 仇敵이라도 外援이 되어 和好하기를 願하신다면 兩國은 속을 것을 두려워할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여 貴國과 通好하도록 介人해 달라는 要請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貴國이 誠心으로 지난해 倭國에 駐在하는 何侍講 淸國公使로부터 報告된 바에 의하면 倭人이 數次에 辱하

로 하기는 힘을 빌릴 것이오나 지금이라도 신속히 모든 것을 整頓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이 一朝一夕에 그 效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日本이 鳳翔丸과 日進丸의 두 戰艦을 派遣하여 釜山浦에 駐留시키고 巨砲를 操練시킨다 하니 무슨 意圖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이런 일이 되더라도 中國은 힘을 다해 相助할 것이오나 혹시 길이 너무 遠隔하여 미처 제때에 되지 못할까도 念慮될 뿐입니다.

더우기 염려되는 것은 日本이 널리 西洋人들을 조빙해서 水・陸軍의 兵法를 教練시키고 艦砲의 威力를 익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貴國은 西洋人을 逮捕한 일이 아니라도 늘 敵을 상대하여 할 難題를 안게 되는 두 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西洋 각국을 主宗으로 해야 할 事件에 있어서라!

아닌게 아니라 日本人은 西洋人의 勢力을 憑藉할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隣邦을 侮辱하고 侵犯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西洋人이 貴國에 가서 通商할 것을 마라고 했으니 비록 排斥을 당하고 돌아 갔지만 貴國의 眞意는 釋然치 못했읍니다. 만일 日本이 美・佛・諸國을 찾아가서 韓 岡開港의 稱을 誘導하고 露國과 더불어 相舍하는 것을 抑制하는 한편 諸將의 領土를 넓히려고 陰謀한다면 貴國의 形勢는 마치 孤注(乾坤)의 形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응한 것이 增大되고 있습니다. 中國의 올바른 時局觀을 가진 識者들은 「歎議(多恭協議)에서 事件

이 있는 事後에 救濟策을 생각하는 것은 事前에 對策을 樹立하느니만 못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歎議는 寧人(天下를 平安하게 할 策)을 삼기는데 道를 闡發하는 正論입니다. 이라도 끝내 關門을 닫으시고 鎖國을 하신다면, 어찌 너무 옳지 않다 하겠습니까.

西人들이 그 武力의 精銳만을 믿고 돌아다니다 하지만 地球上의 諸國을 왕래하지 않는 데 수 없는 自然의 運勢입니다.

貴國이 이미 不복이 日本과 通商約束을 하였으니 이로써 開國의 端이 되었는데라 各國은 필히 장차 이 예에 따를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日本은 이를 尙貨로 여면 마음을 품을는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지금의 討略을 쓰십시오. 즉 毒은 毒을 가지고 攻擊한다는 用法입니다. 이는 敵은 敵의 힘으로 制御한다는 方策입니다. 이러한 폐를 屢송하여 차제에 西洋의 각국들과 條約을 맺어 日本을 견제한다고 憑藉하면 日本은 諸將의 詐術을 다하여 잡아먹을 陰謀를 다할 것입니다.

저 琉球를 廢滅시킨 한가지 일만 보더라도 諸將의 端倪(일의 本末始終)가 現在 드러나고 말았읍니다. 貴國에 이런 일이 없으려면 이에 대한 有備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日本이 畏服하는 나라는 西洋의 나라들입니다. 朝鮮의 힘을 가지고 日本을 견제하는 것은 후시 그림이 부족하다고 念慮할지 모르나 西洋諸國과 通商을 함으로써 日本을 制御함은 크게 餘裕가 있을 것입니다.

國과 반드시 講和하고 通好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폐를 맞이하여 모든 그 뜻을 바꾸어 힘을 較量하여 變通을 한다면 別個의 다른 港口를 開港할 것이 아니라 日本과 通商하는 바로 그 港口를 開港하여 諸國의 船舶이 많이 來往하도록 하여 그 港口를 分割하여 쓰면 되는 것입니다.

日本과의 貿易에 있어서 貴國이 만약 關稅規則을 定해 둔다면 그 收入項目에 크게 도움 이 될 것이며, 그 商情이 熟達이 되면 軍械을 購入하는 費用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수시로 締約國에 사람을 派遣하여 通聘하여 情誼를 나눈다면 平常時는 별로 相關되 는 바 없는 듯하지만 別안간 한 나라가 外國의 侵入을 받아 無禮한 일을 당하게 되면 條約 이 있는 나라들은 公議를 發動하여 非難하는 務를 같이 올릴 것이니 日本도 橫暴한 것을 함 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貴國은 역시 遠隔에 있는 나라를 사귀는 方策을 택하여 事態를 해결함도 講究하여야 함 이다. 그리하여 剛한 것과 柔한 것의 中庸을 取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하여 操縱 悉協 (妥協)이 이루어지면 日本을 鉗制(갈래를 쥐음)하는 技術을 얻게 되는 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이것이 露國을 막는 方策이기도 한 것입니다. 역시 이것보다 더 妥善한 것은 없을 것입 니다.

오차의 各國의 公使들이 우리 總理衙門에서 각주 貴國과의 商務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泰西(西洋)勢力은 露國과 통하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他國을 奪取하거나 滅하게 하 지 않을 것입니다.

대지 各國이 相互 通商을 하고 各國間에 公使가 往來하고 있습니다. 각년에는 土耳其 가 露國에게 征伐을 당했습니다. 形勢가 어느 정도 危急해 지니 英國·오지리 등 諸國이 나 가 論爭을 벌였습니다. 露國은 처음에는 兵力으로 壓力을 加했으나 결국 退却하고 말았 습니다.

가령 土耳其가 孤立無援한 나라였다면 露國만 혼자서 利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歐洲의 「벨지움」이나 「네마르」는 모두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도 각국과 條約을 맺고 있어 마침내 아무 다른 나라도 함부로 그들을 侵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것은 強國과 弱國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證據입니다. 또 남의 國土를 覬여 넘어서 遠方의 나라를 攻擊하는 것은 옛사람도 어렵게 생각했던 일입니다.

西洋의 英·佛·獨·美 國 등 諸國은 露國과 數萬里를 相距하고 있어 구하는 본뜻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通商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國境을 通過하는 船隻을 保護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露國이 根據地로 삼은 땅은 庫頁島·綏芬河·圖們江一帶입니다. 모두 貴國과는 땅이 맞 아 있습니다. 形勢가 어려워져서 貴國이 먼저 英·獨國과 通交를 갖게 되면 비단 日本을 건 제한 뿐 아니라 露國의 領土를 넘보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露國은 따라서 貴

그러나 貴國의 政敎와 禁命을 생각컨대 모든 것을 貴國이 自主的으로 處理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데에 이와 같은 大事들을 우리들이 어찌 능히 간섭할 수 있으리오.

다만 中國이 貴國과 誼가 좋은 一家와 같으며 더우기 貴國은 우리 東쪽 땅을 지켜주는 防牌와도 같습니다.

이 어찌 단신히 일들에 발린 스키이겠습니까. 貴國의 憂患은 곧바로 中國의 憂患입니다. 다만 조심성 없이 남의 일에 뛰어들어 대진하여 일을 圖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衷曲(忠告)을 올리느라입니다.

바라옵건대 貴國의 大君主에게 이 문장을 올리어 事案의 核心을 省察케 하시고 貴國의 廷臣을 召集하여 深思遠慮하시어 可否의 密議를 하소서. 이와 같은 鄙人의 忠言에 謬謬가 없다면 바라건대 먼저 大略을 알려주시면 中國 역시 總理衙門에서 오렛동안 이 뜻이 서로 達成되기를 所望하였기 때문에 각각 相議할 때를 기다리다가 후 서로 機密한 措置를 취할 필유가 있을 때 이 뜻을 熟考하여 서서히 나타내기 바랍니다.

從前에 泰西(西洋)의 各國은 中國의 變故가 많은 틈을 타서 힘을 합하여 도와준다는 協約을 할 때마다 承諾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恣肆으로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그 동안 自由를 억압당한 일은 頻多했읍니다. 이러한 最近의 經驗을 통하여 熟知한 것을 생각해보면 貴國은 지금처럼 無事한 條約하는 것이 難한 지는 않은 기꺼이 다투어 앞으로 나올 것이며, 또 分數에 맞지 않는 過度한 要求도 있을 때면 지는 것은 기꺼이 다투어 앞으로 나올 것이며, 또 分數에 맞지 않는 過度한 要求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煙氣를 販賣한다면 그 內地에 異敎를 傳播하여 弊端을 크게 하는 일 등은 極力으로 禁하고 반드시 이를 살피야 할 것입니다.

모잘 것 없는 所見이 이와 같은 바에 따라 한두 가지 參酌을 하신다면 忠言을 드리는 참뜻이 다함이라 봅니다.

總體的으로 말하자면 大局의 인 속에서 損害를 보지 않으려면 먼저 知彼知己하는 것입니다. 利害關係에 있어서는 적당하게 用間(諜者를 活用) 用謀를 하는 것은 兵家의 常事입니다. 오직 일에 당하여 實利를 捕捉하도록 企圖할 수서. 「프랑스의 宣敎師 崔鎮勝이 貴國에 拿禁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一使臣이 中國 京都에 滯留하고 있으면서 中國의 禮部에 數願하고 釋放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事實은 調停이 이미 끝났기에 消息을 仰讀하는 鄙人의 調査와 照會가 끝난 것임을 생각하시와 모쪼록 交隣의 道理를 차분히 타일러 주시는 좋은 消息을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기란하는 바 없이 자질구레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오나 남몰래 마음속에 간직했던 말을 끝내고 다시 기쁜 消息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때에 美國이 通交를 요구하는 것을 韓國이 拒絕하고 수차에 걸쳐 中國側의 소개도 있었으나 끝내 效果를 보지 못했습니다.

李文忠(李鴻章)의 諱號가 文忠의 經고 教千言이 있는바 이를 보면 外交方針을 敷衍해서 兩民族의 情誼와 形勢를 가히 察할 수 있는데 마치 한 집안처럼 故로 이 분립해서는 되지 않으며 有憂同懼·有喜同慶의 사이로서 다른 民族에 있어서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韓國政府의 執政人들은 固陋한 習俗에 젖어 있어 자기 혼자만 先見之明이 있는 듯 떠는 바람에 是 公論에 屈服하여 屢次에 開國通商의 길은 열리지 못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老人(李鴻章)의 庸亡齒鑿의 理致를 논하던 豫言은 果로 中의 中하였으니 이 어찌 痛切한 일이 아니겠는가.

是 日은 小人輩들의 累年積弊와 亂政의 결과인데도 懲愆할 생각도 없이 또 改革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리어 그 罪를 大院君에게 歸屬시킨다.

淸國의 朝廷에서는 閔氏로부터 賂物을 받아 먹고 大院君을 保定府로 誘致케 하여 수년 동안 謫居하게 하였으나 이상한 徵兆가 빈번하게 일어나니 府民들은 大院君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淸나라 政府는 國際公議를 심히 두렵게 여겼으므로 大院君을 本國에 歸國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淸나라 政府는 國際公議를 심히 두렵게 여겼으므로 大院君을 本國에 歸國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淸나라 政府는 國際公議를 심히 두렵게 여겼으므로 大院君을 本國에 歸國토록 하였다.

英國의 某政治人은 말하기를 大院君은 人傑이라고 말하면서 淸國朝廷이 韓國政治에 세로운 局面을 展開시킬 憧憬을 가지고서 大院君을 歐美에 居處케 하였더라면 그의 心胸이 넓어질려 韓國政治의 改新에 도움이 반드시 至大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暗黑의 구름이 감도는 保定府에 모셨던가.

後日의 甲午變局에서 이 事實은 立證되었는바 비로소 이 英國사람의 先見之明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淸나라 政府는 國際公議를 심히 두렵게 여겼으므로 大院君을 本國에 歸國토록 하였다.

9. 韓·中兩國이 당한 日本으로부터 受侮

日本이 韓國社稷을 侵奪한 劫에 조심조심하면서 深思熟考하며, 경계한 지 二十年의 세월이 흘러, 明治初에 이르러 伊藤博文이 죽자, 日本人들은 부를부를 떨며 어쨌든 물라 했다. 桂太郎의 徒黨들은 合併을 謀議하였으나 여러 차례 거부를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合併해야 한다는 그 뜻을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韓國政情은 불안하다. 이 弱點을 틈타 이를 잡아 삼켜야 한다. 그러나 韓國은 長遠한 歷史를 가진 나라이다. 그러기 때문에 國際信義의 관계가 있기 때

말에 一朝에 襲擊하여 취하고 보면 福을 누리는 것보다 禍를 얻는 쪽이 더 클까 두렵다. 그렇다고 하여 諸外國의 盜賊들도 誘惑하고 위협을 하니 百年大計로써만 이를 꾸미다간 韓國을 만 나랏에 놓치고 아무 것도 안 될 것이며, 도리어 그 禍를 일찍이 떨치 모른다.

라고 했다.

이리하여 오랜 후에 認准받게 되었다. 日本의 宣傳書에는 韓國獨立과 皇帝를 존중한다는 句節이 있다. 그런데 이를 背信하고 盟約을 위반한 것이다. 日本이 韓國을 멸한지 이제 二十三년이 되었다. 또 저들은 수 차례의 戰爭에서 連戰連勝했다. 그래서 저들은 魂膽이 增壯하여 世界의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畏懼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들은 韓國人에 대해서는 蔑視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懷疑하고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의 獨立運動家가 있다 하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그 뿌리를 斷絶하는 政策을 쓰지만, 끝내 韓國사람을 腐敗시키기는 어렵게 것이며, 언젠가는 日本을 궁지에 몰아 넣는 張本人은 韓國人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이미 知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저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東北地方(滿洲大陸)을 재빨리 攻擊하여 日本의 外廓을 굳히고 있는 것이다. 또 다시 中國人의 목을 누르고서 大陸에서 主權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韓國人의 武力으로 反抗하는 基地를 없애려고 企圖하는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韓國人의 머리를 숙이고 고르므로 본따라 올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레야만 저들은 배개를 높이 하고 단 걸을 잘 수 있고 마음내키는 대로 行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상은 스위 田中義一 密使가 나열한 豫定計劃이었다. 이 계획은 지금도 實施 進行되고 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저 惡名 높은 스위 二十一個條 문제(제1차 세계대전 중 日本이 中國에 요구한 무리한條約) 이후 日本의 中國에 대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 졌다. 즉 태르는 暴惡하고 叱咤도 하며, 때로는 무시하고 玩弄하기도 하며, 그외로 濫捕하기도 하고 釋放하기도 하며, 마치 無人之境과 같이 행동함이 懼과하고 증오할 일이다.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갖가지 行위를 다 하였다. 유특히 中國에 대해서만은 이런 變行이 어렵지 않게 實施되고 있는데 차라리 南村에서 뛰놀고 있는 어린이들이 자기 할아버지가 無力하다고 이를 속이고 面前에서 도둑질을 한다면 이를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틀이켜 생각해보면 日露戰爭 때 日本의 뛰어난 權威로써 東洋天地에서는 뜻대로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이때에도 韓國人에 대해서만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들은 中國에서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데야! 十倍의 百姓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찌하여 건물인 말처럼 이 地境에 이르렀는가.

日本이 中國社會와 心理에 대해서 는 완전히 不懂하고 있어 新舊軍閥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의 雜誌에 많이 掲載하고 있다. 저들은 말하기를

그러나 저들은 韓國人에 대해서는 蔑視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懷疑하고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의 獨立運動家가 있다 하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그 뿌리를 斷絶하는 政策을 쓰지만, 끝내 韓國사람을 腐敗시키기는 어렵게 것이며, 언젠가는 日本을 궁지에 몰아 넣는 張本人은 韓國人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이미 知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저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東北地方(滿洲大陸)을 재빨리 攻擊하여 日本의 外廓을 굳히고 있는 것이다. 또 다시 中國人의 목을 누르고서 大陸에서 主權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韓國人의 武力으로 反抗하는 基地를 없애려고 企圖하는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韓國人의 머리를 숙이고 고르므로 본따라 올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레야만 저들은 배개를 높이 하고 단 걸을 잘 수 있고 마음내키는 대로 行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상은 스위 田中義一 密使가 나열한 豫定計劃이었다. 이 계획은 지금도 實施 進行되고 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저 惡名 높은 스위 二十一個條 문제(제1차 세계대전 중 日本이 中國에 요구한 무리한條約) 이후 日本의 中國에 대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 졌다. 즉 태르는 暴惡하고 叱咤도 하며, 때로는 무시하고 玩弄하기도 하며, 그외로 濫捕하기도 하고 釋放하기도 하며, 마치 無人之境과 같이 행동함이 懼과하고 증오할 일이다.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갖가지 行위를 다 하였다. 유특히 中國에 대해서만은 이런 變行이 어렵지 않게 實施되고 있는데 차라리 南村에서 뛰놀고 있는 어린이들이 자기 할아버지가 無力하다고 이를 속이고 面前에서 도둑질을 한다면 이를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틀이켜 생각해보면 日露戰爭 때 日本의 뛰어난 權威로써 東洋天地에서는 뜻대로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이때에도 韓國人에 대해서만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들은 中國에서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데야! 十倍의 百姓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찌하여 건물인 말처럼 이 地境에 이르렀는가.

日本이 中國社會와 心理에 대해서 는 완전히 不懂하고 있어 新舊軍閥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의 雜誌에 많이 掲載하고 있다. 저들은 말하기를

라지니 저 南宋初期 때보다 더 심했던 듯했다. 이와 같은 危機一髮의 때를 맞이하여 政策을 刷新하고 國家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諸葛亮이나 岳飛와 같은 人物로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많고 많은 億萬의 大衆을 갖고도 한 사람의 熱血男子를 產出하지 못하여 한놈의 敵酋長의 목을 치지 못하고 또 奸臣의 말을 한 마더로 겪지 못하고 드디어 天下의 耳目을 놀라게 하는 悲劇을 產出하였으니 東北四省에 있는 萬里山河의 二千萬의 무고한 同胞는 한 마더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雙手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별별말고 도망치기에 경황이 없었던 말인가. 녀성이 벼락치듯 불길이 언제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危機一髮의 때를 맞이하여 政策을 刷新하고 國家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諸葛亮이나 岳飛와 같은 人物로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많고 많은 億萬의 大衆을 갖고도 한 사람의 熱血男子를 產出하지 못하여 한놈의 敵酋長의 목을 치지 못하고 또 奸臣의 말을 한 마더로 겪지 못하고 드디어 天下의 耳目을 놀라게 하는 悲劇을 產出하였으니 東北四省에 있는 萬里山河의 二千萬의 무고한 同胞는 한 마더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雙手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별별말고 도망치기에 경황이 없었던 말인가. 녀성이 벼락치듯 불길이 언제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危機一髮의 때를 맞이하여 政策을 刷新하고 國家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諸葛亮이나 岳飛와 같은 人物로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많고 많은 億萬의 大衆을 갖고도 한 사람의 熱血男子를 產出하지 못하여 한놈의 敵酋長의 목을 치지 못하고 또 奸臣의 말을 한 마더로 겪지 못하고 드디어 天下의 耳目을 놀라게 하는 悲劇을 產出하였으니 東北四省에 있는 萬里山河의 二千萬의 무고한 同胞는 한 마더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雙手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별별말고 도망치기에 경황이 없었던 말인가. 녀성이 벼락치듯 불길이 언제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危機一髮의 때를 맞이하여 政策을 刷新하고 國家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諸葛亮이나 岳飛와 같은 人物로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많고 많은 億萬의 大衆을 갖고도 한 사람의 熱血男子를 產出하지 못하여 한놈의 敵酋長의 목을 치지 못하고 또 奸臣의 말을 한 마더로 겪지 못하고 드디어 天下의 耳目을 놀라게 하는 悲劇을 產出하였으니 東北四省에 있는 萬里山河의 二千萬의 무고한 同胞는 한 마더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雙手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별별말고 도망치기에 경황이 없었던 말인가. 녀성이 벼락치듯 불길이 언제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危機一髮의 때를 맞이하여 政策을 刷新하고 國家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諸葛亮이나 岳飛와 같은 人物로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많고 많은 億萬의 大衆을 갖고도 한 사람의 熱血男子를 產出하지 못하여 한놈의 敵酋長의 목을 치지 못하고 또 奸臣의 말을 한 마더로 겪지 못하고 드디어 天下의 耳目을 놀라게 하는 悲劇을 產出하였으니 東北四省에 있는 萬里山河의 二千萬의 무고한 同胞는 한 마더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雙手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별별말고 도망치기에 경황이 없었던 말인가. 녀성이 벼락치듯 불길이 언제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危機一髮의 때를 맞이하여 政策을 刷新하고 國家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諸葛亮이나 岳飛와 같은 人物로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많고 많은 億萬의 大衆을 갖고도 한 사람의 熱血男子를 產出하지 못하여 한놈의 敵酋長의 목을 치지 못하고 또 奸臣의 말을 한 마더로 겪지 못하고 드디어 天下의 耳目을 놀라게 하는 悲劇을 產出하였으니 東北四省에 있는 萬里山河의 二千萬의 무고한 同胞는 한 마더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雙手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별별말고 도망치기에 경황이 없었던 말인가. 녀성이 벼락치듯 불길이 언제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危機一髮의 때를 맞이하여 政策을 刷新하고 國家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諸葛亮이나 岳飛와 같은 人物로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많고 많은 億萬의 大衆을 갖고도 한 사람의 熱血男子를 產出하지 못하여 한놈의 敵酋長의 목을 치지 못하고 또 奸臣의 말을 한 마더로 겪지 못하고 드디어 天下의 耳目을 놀라게 하는 悲劇을 產出하였으니 東北四省에 있는 萬里山河의 二千萬의 무고한 同胞는 한 마더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雙手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별별말고 도망치기에 경황이 없었던 말인가. 녀성이 벼락치듯 불길이 언제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危機一髮의 때를 맞이하여 政策을 刷新하고 國家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諸葛亮이나 岳飛와 같은 人物로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많고 많은 億萬의 大衆을 갖고도 한 사람의 熱血男子를 產出하지 못하여 한놈의 敵酋長의 목을 치지 못하고 또 奸臣의 말을 한 마더로 겪지 못하고 드디어 天下의 耳目을 놀라게 하는 悲劇을 產出하였으니 東北四省에 있는 萬里山河의 二千萬의 무고한 同胞는 한 마더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雙手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별별말고 도망치기에 경황이 없었던 말인가. 녀성이 벼락치듯 불길이 언제 어느 곳에서

이제 몇 달 사이에 中國地圖의 빛깔을 바꾸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게 되었는데 다만 歐美의 勢力이 손가락을 그 사이에 끼워 넣어 붙들고 있어 日本이 獨食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라고 떠든다.

또 말하기를 때지처럼 미련한 中國이 능히 一戰할 勇猛이 있겠는가 하고 또 부연하기를

中國에는 또한 한 사람의 眞正한 愛國者도 없다. 또한 한 개의 良心 있고 廉恥를 아는 團體도 없다. 다만 下級社會의 勞動者는 忠誠之려워 부러며기 좋다. 이른바 中流 이상인 人物들은 모두 強盜들이다. 그러니 中國땅에서 武力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匪賊 메들을 討伐하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國際法을 援用하겠는가.

라고 한다. 또 말하기를

南北의 政客은 누구를 不問하고 賂物로써 미끼를 삼아 아주 적은 보잘 것 없는 것을 가지고도 朝廷에 있는 者를 誘惑하면 다리 사이에 끼워둔 것처럼 마음대로 弄奸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物質이 풍부하고 地帶가 넓다 해도 中國에서 부족한 것은 믿음이다. 슬프다. 中國사람들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는지 못미쳤는지 모르거니와 마땅히 百尺竿頭에서 새로운 進一步한다는 생각으로 비록 第一高峰에 오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百姓들로 하여금 높은 산 마루로 나투어 올라가게만 한다면 바람은 일고 물은湧솟음쳐서 四海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그리하여 鑿日이 없이 至誠으로 惻愍을 발려인으켜 同志를 結合하고 團體를 健全하고 規 律을 嚴正히 정하고 기본적인 道德을 보여주고 스스로 原則을 尊重하여 動靜을 有유자적하게

고 하는 것이다. 구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나라의 百姓들을 모두 죽이고 마지막엔 그 民族性까지 滅하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옛날엔 他國을 滅했을 때 그 나라의 主人만 바

를 再演한다 하더라도 그 中國人の 心中에 버티고 있는 原則은 動搖하지 않을 것이다. 諸將의 臣僕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 말고 저들에게 모든 決定權을 맡겨라. 지난날의 恥辱

해도 저들은 數가 적고 우리는 많으므로 그들은 結局 우리에게 同化될 것이니 어찌하여 저 五胡가 中國天地를 어지럽혔을 때 百姓들이 저들을 따라가면서도 金나라 元나라 滿洲에 亡國의 禍를 구출할 一大決心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한다.

國家의 興는 政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匹夫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中國人들이 전례없던 큰 災禍에서 벗어나서 子孫들에게 福을 남겨 주기를 원한다면 사람마다

本人은 以上の 諸說을 모고 듣다가 문득 붓을 던지고 몇 차례인간가 人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顧炎武(진시즈) 明末清初의 學者)는 말했다.

을 잘라내는데 아픈 感覺이 없으랴. 라고 한다. 이 말은 稱讚하는 말 같으나 恥辱인 것이다. 사람이 木石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살

中國人은 辱을 당하면서도 느끼지 않고 災禍 속에 살면서도 두려운 줄 모른다. 이는 진 眞로 이해하기 어려운 民族性이다.

中國人은 辱을 당하면서도 느끼지 않고 災禍 속에 살면서도 두려운 줄 모른다. 이는 진 眞로 이해하기 어려운 民族性이다.

인가. 이는 東西古속에 없는 크나큰 괴변이 아닐 수 없다. 中國人土들이여 어찌 그렇게도 健忘症이 많은가. 바야흐로 病은 크게 危篤한 데 어

고 歌舞와 宴樂에 빠져 正상을 잃었으니 天下의 大國民은 氣像이 여기에서 終止符를 적을 것

다시 떨어질지 모른다.)

韓民族은 古代文化에 흠뻑 젖어 있어 二國時代에 이르러서도 아직 棕道(宗敎의 道)에 투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治理(敎理)運反者를懲治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였다. 예를 들면 國仙이나 皂衣·花郎 등의 勳節은 돈독하고 진지했다. 그러기에 오랜 歷史가 흘렀어도 棕道가 바뀌어지지 아니했고 文德과 武烈 및 藝術·文化도 淸연하게 後世에 전하여 모범이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의 戰役을 世世로 겪었으나 國家의 用處는 淸일 유족하여 부족함이 없었다. 으니 正德과 厚生이 아울러 극치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가히 알 수 있다.

그러나 李氏王朝에 이르러서 高麗 때의 尙武精神을 꺼리는 弊習이 생겨 전적으로 修文一道에만 치달아 大賢과 巨儒가 각 世代를 거쳐 계승하였으며, 儒道가 弘張되고 文德이 보급되었으나 正德에 너무 경주한 나머지 厚生에 결한 바 되고 篤學之士는 仁義·性理의 科目만을 힘 쓸 뿐 達權(變通의 方法)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10. 李朝中葉의 廉潔政治

【註 1】 풀나라의 秦靖이 祖國의 滅亡을 淸탄한 故事. 주 高殿 앞에 세워졌던 銅駝가 나라가 난하여 가지발 속에 묻혀 있는 것을 淸탄한 말이다.

【註 2】 魏나라 사람은 三戸만 있어도 秦을 滅亡케 할 수가 나온다는 말.

【註 3】 十齋之基 佛家에서 由來된 말. 每月十日 동안의 齋日이 있어 이 날에 祈願하면 功德이 日本보다 效驗이 있다는 뜻.

9. 韓·中兩國이 淸한 日本으로부터 受侮 76

후면 후히 後孫들에게 감동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子女들에게는 먼저 玉帛을 넘겨줄 생각을 하지 말고 참되고 참된 救國의 熱血을 불려인 커 일깨워 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一區域마다 小學校를 創建하여 新國民精神을 배양하고 과 그 밖의 腐敗를 축진시키는 媒體가 醜惡菌을 불러올 만큼 진실로 蕩滌의 實跡이 인정 안 되면 모두 排斥하고 도태시켜야 할 것이다.

이들 假志士와 僞善의 君子들은 新進의 大路를 가로막는 分子들이다. 그러므로 가까이서는 「越나라의 句踐이 踐을 할었다」는 故事를 본받고 멀리서는 「페르시아의 大政種精神을 본 따서 새로운 氣風을 播種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目的을 가진 相應하는 團體가 없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上記와 같이만 응히 할 수 있다면 비록 中國大陸이 沈沒하더라도, 銅駝(生荆)의 탄식이 생기더라도 옛날의 三戸之謠가 秦나라 滅亡을 예시하고 十齋의 基本이 살어나듯 중국에 가서는 倭를 물리치는 效驗이 나타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경만 하던 傍觀者도 뜻을 알아 착될 것이니 어찌 새삼스레 구구하게 저들에게 同調할 것을 祈願하라.

이와 반대로 祖上 가운데 財物에 손을 대어 受罪者가 있으면 子孫에게까지 누가 미쳐서 영
 원토록 敍用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氣風은 크게 떨쳐 오나라가 이를 배우고 모범을 삼았
 다. 이렇게 때문에 士大夫는 一貧如洗하여 나이가 들면 아내는 배고파 울고 자식들이 커울에
 는 추위에 못견디 손에 일감을 붙게 되어도 士大夫는 태연하고 편안한 것처럼 행세해야 된다.
 나라 안에서 經濟가 유족한 家庭으로서 는 오직 象胥(通官)이나 農家·商人 등의 일부이나
 氣風을 崇尚하는 나머지 豐衣·足食하고 安享無缺하더라도 이를 도리어 수척스럽게 여겼던 것
 이다. 이야말로 財物이 파악서 넘쳐 넘쳐 흐르는 것보다 도리어 積塞한 것을 사모하였던 것이니 기
 괴한 일이라.

오늘날처럼 오직 物質만을 다투어 物質을 崇尚하고 廉恥를 파기하고 道義는 絶滅되고 타인
 을 아버지라 일컬고 오직 財物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新思想의 新人物들이 이를 보고 말한
 다면 이 어찌 커다란 變怪요. 특별한 사건이라 말하지 않겠으며, 블라자빠져 죽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朝鮮中葉 二百年間은 오랫동안 「桃源之夢」속에서 장하가 편안하게 지냈으나 國家
 의 經濟는 날이 갈수록 그 령상이 頹落되어 그때 士大夫들의 物質觀은 마치 王衍(渠一三西
 晉의 老莊思想)이 돈을 보고 「阿觀」라 했다는 故事와 같은 것이다.

일생 동안 돈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가 하면 혹은 일생 동안 돈을 손에 만져도 보

그러한 결과 紫陽(朱子의 號)의 糟粕으로 지리멸렬하다가 이것이 다시 범하여 奴隸의 鄙習으
 로까지 와하였으니 저 歷史적으로 傳承되어 오던 強毅하고 奮발한 기풍은 一掃되어 볼 수 없
 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한탄스럽고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二百年 동안 特殊奇絶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오직 唯一無二의 일으로써 세상 누구
 가 이 일을 한번 듣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믿겠는가. 즉 公卿大夫들이 公務에 종사하면서 배
 를 굶주리고 있다면 민들 사람이 있겠는가.

한편 外地의 道師(道伯)나 府縣의 官吏가 節用·愛民하고 騎射絃誦하고 絃誦의 소리가 四境
 (管轄區域 전역)에 들리며, 時和歲登하고 政簡訟稀하여 지광이 질고 天下를 逍遙하며, 與民同
 樂하여 받은 俸祿을 남김없이 공에 충당하였다. 즉 받은 俸祿을 國庫에 納入하거나 혹은 鄉
 校의 基本金으로 충당하거나, 道府縣의 公立學校에 또는 弊吏廳에 모조하는 일들을 하고 있
 는 것이다. 官吏가 解任되어 자기의 鄉里로 돌아오면 兩袖清風의 故事를 실컷에 읊는다. 때
 마침 벌어들인 薪金(財産)이라도 남은 것이 있어 이것으로 田産에 投資하면 世上에선 떠들썩하
 게 두고두고 그를 책망하며, 염치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만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富路는
 梗塞되고 심지어 婚事도 이 때문에 방해를 받으며 그의 餘生은 晩景을 면치 못한다.

반면 氣品이 크고 재능이 俊秀한 人物으로써 落拓이지만 軀軀(돈을 펴지 못한)의 苦痛을 받아
 또다시 社會에 대두될 수가 없다면 朝廷에서는 廉潔之風을 獎勵하기 위하여 그 중에 最善者
 를 提하여 清白班에 選人하여 두었으며, 父祖가 이 清白吏로서 選人이 되면 그 子孫은 世

本人은 대답하였다.

中國人은 글을 팔아서 생활하는 것을 고상한營業으로 삼습니다.

韓昌黎(韓愈의 號昌黎이다. 唐의 學者 夫(스민)는 墓文과 誌狀을 쓴 代價로 가난하지 않았고 이 일은 司馬溫公이 쓴 것으로 보아 그 證명이 틀림없는 것이다.

네저 孟耕(學問과 講義로 生業하는 事)과 稽古(學問을 뜻함)의 자랑! 이것은 古속에 萬人이 흠

이 있음을 보았다.

金澹江(스민)도 金澤榮의 號가 「澹江」이다. 舊韓末의 學者와 같은 文章大家가 저 南通縣 江蘇省 泰興縣의 동쪽)의 張季直이란 사람의 翰墨林에 머물고 있을 때 지금부터 十三年 전 本人이 上 梅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야기가 中國文人들의 志操에 관한 討論에 미치지 金澹江은 크게 한숨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選官이나 高官이라 하는 當代 大家의 名譽를 등에 업은 拂士(正道를 쫓아 일음을 輔弼하는 人)가 名의 글을 흥대내고 名이 쓴 글자를 模倣하는 判인데, 이는 尊卑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그래도 이들의 志操가 옳은가고 묻겠는가.

本人이 中國에 도착하여 交遊가 그다지 넓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中國人의 品格을 察할 이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을의 老人들 앞에서 노닐면서 들은 바로써 대략 그들 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런데 아직 廉潔한 人士라고 할 만한 人物을 만나지 이 없다.

내 일찍이 香山(河北省北京에 있는 寺刹)에 있을 때 烏希라는 사람의 淸談・高潔한 氣風이 있음 보았는데, 그는 아직 그림을 팔아 生活하고 있어 옛날 韓幽선비의 氣風과는 다른 一面

11. 中國人の 廉潔觀念

지 않고 산다.

아! 天下古속에 이런 일은 많이 있을 수 없는 지금의 崇尙해야 할 일인데 왕차 몇백년 동안 이런 氣風이 바뀌지 않고 계속되어 廉潔政治를 이룬 것은 일찍이 朝鮮中葉時代처럼 오래 계속된 적이 없었다.

註 1 梅의 따라 일을 쳐다 취리하는 데 능숙한 力量을 말함.

註 2 韓國의 法制에는 胥役에게 簿據으로 公務에 종사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弊吏廳이라 함.

註 3 王衍이 돈을 물러 돈을 보고 阿觀라 하였기 때문에 본에 무관심한 者를 비유할 때 쓰는 말.

가에서 발견되고 풀고기 잡는 獺夫, 나아가 죽 늘어진 小賣商人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三埭居 執禮에 스물함이 없었다. 이는 비단禮에 篤實한 집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山野나 海岸 李朝 開國 초에는 돈독하게 儒術을 숭상하여 四禮를 힘써 행하였다. 그리하여 五百年 동안

나지 않으며 그나마 오래 繼承될 수 없었다. 藍本이다. 朱子는 일생 동안 禮를 강론했으나 그것이 실행된 바는 그의 門人四,五家에 지 韓國人の 冠婚喪祭는 沙溪金長生(三溪)의 禮說을 많이 따르고 있다. 이는 朱子家禮의

12. 韓·中兩國의 冠婚喪祭

註 1 江蘇省上海縣의 북쪽에 위치한 閔北에서 孫介石이 단행한 反共革命(五三) 쿠데타이다.

라고 했다.

된다.

며 구제해야 한다는 뜻이나 責任感은 없고 방관하며, 이번의 閔北事變을 마치 歐羅巴戰 爭史를 읽는 기본으로 조금도 動心하는 바 없으니 이 어찌 통독하다가 죽고 싶은 일이 아

보통 市井人은 그 識見이 우한하고 지다가 오랫동안 國政을 談論하고 표현하는 것이 禁 止되어 있다는 생각에 쫓겨 있어 匹夫에게도 國政責任이 있다고 講論해 봤자 소용없는 인 이나 中學에까지 다니는 青年은 國家·民族에 있어 그關係가 막중한 적인 데 나라를 도우

本人은 이 때에 받은 印象이 너무나 悲感에 젖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歎息하기를 依이니 뭐니 하는 것에 영증을 느끼다고 말하고 더 이상의 奮發하는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까지는 미치더라도 浙江省까지는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끝으로 東洋人은 이제 問題에 미치지 먼저 그는 자기가 時事를 論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그 燃蕩이 江蘇省 閔北燃蕩) 때 마친 本人은 杭州에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中學生을 만났는데 이야기가 時事 숙한가를 말해 준다.

석하니 다른 말은 할 틈이 없을 정도이다. 이것만 보아도 中國人の 經濟觀念이 어느 정도 깊 문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날 때 흔히 大洋(中國의 貨幣單位), 몇 塊란 小洋 몇 角이란 말로 장 매번 中國의 보통 家庭에서 보는 일이지만 비록 장사를 하는 집이 아니더라도 男女끼리 서 을 주고 사가는 것 같이 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를 배척하고 상응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禮物의 品雅가 결코 低俗하지가 않다. 만약 그것이 物件을 사는데 비속하게 돈 韓國의 風俗에서는 대개 藝文을 撰하거나 읍겨 쓰면 반드시 어떤 贈物을 보내는 禮儀가 있다. 모하는 적인데, 韓國사람에게 있어서는 廉恥가 지나쳐서 潔癖症을 앓고 있는 病患者와 같다.

13, 李朝의 近代政治

李朝 純祖(충조)는, 淸에 外戚인 金氏가 비로소 政治에 干與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勸節과 淸介에 힘쓰는 家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점차 그 遺風과 規範을 破하고 오직 물질만을 아는 唯物一途로 치달아 奔放하게

라고 증언하였다.

文藝武書는 그 모두가 宗廟와 社廟를 위하는 것이다. 衝을 잃게 된다.

어찌 이라도 많았는가. 모를지기 국가政治를 하는 者는 마땅히 一張一弛를 모르면 그 權가 論爭으로 支離하여 트디어 敵軍이 揚子江을 넘어 오는 것도 알지 못했거늘 우리나라와 趙宋(南北朝)의 南朝의 宋(북)이 重文抑武하여 理學을 講明하는 데 전력하다

있어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나 그 終末에 있어선 때때로 變化를 가져와 害毒으로 여겨지

周禮는 中國에서 나왔거늘 지금은 禮의 根本을 잃고 있다. 한국인에게서 특수한 美德이

이며 나는 후자말르

의 風俗와는 다른 것이 많다.

이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婦人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 哭泣에 怨辭가 너무 많았다. 韓國 帊間을 받음)·誦經·懺度(음하는 懺度) 등의 절차는 禮儀·法度에 있어 슬퍼하는 것보다 더한 것 開市(死는 후 3일 만에 마당에 假屋을 設하고 門外에서 音樂을 奏하면서 帊間을 받음)·領帖(帊茶의

때만 겨우 靑衫을 신고 淡色의 袍衣를 걸치고 온갖 행동은 보통 사람과 같이 한다. 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窮손에 입면 물들인 衣服은 입지 않는다. 또 殯所안을 거닐

出殯할 때에야 겨우 麻巾과 布衣를 걸치는데 속에 입은 옷은 파껴 입지 않는다. 한국 風俗

상히 여긴)한 것이 있었다. 本人이 中國에 처음 도착하여 中國人들이 喪禮처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詫異(의심)하고 이

~(경), 初年 이래 한국에 居留하는 中國人들이 모두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온 것이다. 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德을 쌓치는 惡行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習俗은 光緒(2년) 3년 안에는 酒肉이 있다 해도 먹지 아니하니 이를 위반하면 不孝와 敗俗

士大夫는 보통 茶食을 하고 오두막집에서 거처한다. 그리고 古禮에는 감히 招待도 하지 않

되었다. 따라서 廉潔을 放棄하고 奢侈와 華麗함을 崇尚하고 賄賂가 公宮연히 行해지며, 强豪들의 횡포가 恣行되었다. 이에 有志人士는 銅鉞在生荆의 故事를 생각하며, 悲感이 鬱기 되고 다음과 같은 李山雲의 詩를 읊조리게 되었다.

啄木依啄木 먹달구리야 나무쫓기를 멈추려무나
古木餘半腹 古木은 으러되어 속이 半腹에 알찬데
風雨寧不畏 風雨가 오히려 무섭지 않구나
木摧無爾屋 古木이 쓰러지면 네가 살집 없을 것을

이 詩는 事實을 적은 듯이 古려 痛은 詩句이다.

大院君이 攝政을 하여 어느정도 小康상태를 이루었으나 그 후 뒤따라 閔氏가 用事하고서 부터는 淸 八年도 못가서 大院君이 罷어늘며 備蓄하였던 國庫의 金員은 蕩然히 사라지고 軍餉(軍補總)마저 竭속되지 못할 境에 이르러 마침내 壬午軍亂이 일게 되었다.

小人輩들이 무리지어 古슴도치기 가처럼 모여들었으니 政治氣象은 혼탁하고 亂雜하였다. 金氏들이 政治에 간여하기 이전과 兇異하게 다른 모양의 세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金玉均·朴泳孝 등은 眞이 世上風潮에 자극을 받아 그간 나머지 大院君의 聯淸政策을 배척

하고 獨立進路의 策畧을 謀事하였다. 그래서 駐韓日大使 竹添進一郎과 더불어 改革을 위한

密計를 짰으나 이때 日本의 國力은 아직 미약하였다.

國際關係를 생각해 가면서 불리한 점도 있지만 힘자라는 데까지 應援키로 했던 것이다. 그

례서 겨우 巡洋艦의 水軍 二百名을 가지고 擧事하면 호응하는 軍勢의 基本으로 삼았다. 金玉

均 등은 日兵을 인솔하여 임금을 철박한 후 聯淸政策의 巨頭 閔台鎬·閔泳穆·趙寧夏 등 數

十人을 刀殺하고 改革更張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二日이 못가서 袁世凱에게 內帑가 密承되어

袁世凱는 이 內帑를 가지고 吳兆有(淸將)가 駐屯軍 一千을 이끌고 곧바로 昌德宮으로 밀어닥

치어 日本軍과 開仗(開戰)한지 얼마 안되어 日本은 敗退하고 改革派는 죽거나 도망쳤다. 이

를 甲申政變이라 한다.

袁世凱는 이 一戰의 機會를 捉승하여 半島江山을 통틀어 滿淸의 一個省으로 만들어 자기가

그 總督이 되고자 李鴻章 등과 더불어 書面으로 密謀하여 오랫동안 쉬지 않았다. 그러나 滿

淸(淸國)의 奄奄한 숨소리로서는 이러한 일을 치를 만한 暴力이 될 수 없었으며, 變論할 능력

도 못되었다. 袁世凱의 인생이 發達·出世한 것은 그가 韓國에 駐屯한 것에 기인한다.

아름은 韓國朝廷은 수차의 變亂을 만나면서 도 德前愆後의 代價를 강구치 못하고 興邦啓運(나

라를 興하게 하고 聖德을 펴는 일)의 德이 없었으니 光武(光武)의 末期 十九年間은 惡하고 후

달한 腐敗政治로 朝鮮開國 이래 가장 酷毒하고 가장 심각했던 時代인 것이다.

賣國의 賊으로는 李完用과 宋秉畱의 徒黨을 사말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나라는 점점 망해

가고 있는 관주에 金氏外戚이 씨를 뿌리고, 閔族들이 이를 더 完熟시켜 놓은 터에 李完用과 宋秉喙이 이미 이루어진 결과들 받아들이는데 불과하다 하겠다.

閔泳徽는 五, 六년 權勢를 누리는 동안에 實買市況이 極盛하였으며, 內外大小事に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으며, 名譽로운 職秩(職位)에도 十萬鎊이란 價格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또 四季節에 따라 賂物바치는 規例가 있어 행해졌기 때문에 地方官의 중사자는 治理할 틈이 없을 정도이며, 오직 誹刺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렇고서 國民이 어찌 窮乏하지 않고 안樂할 수 있겠으며, 國家가 망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實慮한 政治에 격분한 나머지 甲午의 東學亂이 있게 된 것이다. 大淸 淸末期은 民國의 初年에 各省의 縣知事는 반수 이상인 實官으로 轉任되어 부임함 있으나 이 者들은 금히 本錢을 回收하여 갖기 에 利盆을 確保하기를 警長이나 區巡察官은 물론 各科附屬下級職에 이르기까지 價格票가 붙어 있고 그 밖에 刑罰의 民事事件의 審理도 金錢이 아니면 심리하지 않아 相樣(처럼)로 눈감아 주는 것(相殘)으로 肅政을 부리는 것(하)여 금기

야 義和團事件(義和團)을 빚어 내었다. 韓中兩國의 亂政의 모습이 서로 對峙를 이루니 西洋人들이 評해 말하기를 韓國은 小淸國이요, 반면 淸國은 大朝鮮이나.

라고 했다. 이 말은 魯衛之政(魯衛의 정치)은 一體임을 일컫는 것이다. 東學亂에서는 三道를 守備치 못하여 마침내 折衝(王京近處의 땅)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에 袁世凱의 獻策에 따라 淸朝廷에서 是馬玉崑·葉志超 등에게 兵力을 이끌고 韓國에 건너가게 하였다. 이에 日本에서는 中國側이 約束을 違背하고, 함부로 派兵했다고 엄중하게 詰責했다. 이에 淸朝廷에서는 물레 甲申의 中日條約에는 軍事行動은 固勇으로 취한다는 條文이 있다. 그 결과 遼東半島와 臺灣을 일본에 割讓하고 아울러 戰費의 배상까지 치렀다. 이 和約이 체결된 후 露·佛·獨은 各各 異心을 품기 시작하여 일본을 強壓하여 겨우 臺灣만을 일본에 許諾하였다. 아래지 않아 露國은 旅順과 大連을 強령하고 獨國은 靑島를 차지하고 佛國은 九龍灣을 占領하고 英國은 威海衛를 租借하고 伊大利는 二門灣을 租借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後日의 日露戰爭은 이와 같은 前因이 後果로 나타난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이때부터 中國은 위축일로를 걷기 시작했고, 五億萬의 대중은 列強의 食卓 위에 치열된 陳列品이 되게 되어 年四十年이 되었다.

【註 1】魯衛之政兄弟也란 故事에서 引用한 말.

即魯公은 周公의 後裔이며, 衛國은 康叔의 後裔이므로 원태가 兄弟의 나라인 데다가 두나라 똑같이 襄弱하여 國政은

14. 中國의 近代政治

甲午(己未)年과 乙未(己未)年 사이 本人은 中日戰爭을 參與하였는데 이때 丁汝昌의 芘蔭을 公島에서 叱르케 되었다.

丁汝昌은 나라 위해 殉國한 亡靈이 되었을 뿐이다. 그의 遺蹟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그의 손이 스쳐간 곳에 筆跡도 생성할데 그 絕句에 담겨져 있기를

昔年薄子拜元良 지난해 나는 引導을 받아 元良(太子)을 찾았주려

漢水風雲在一堂 漢江에 소용돌이 치는 風雲은 방안에 가득한데

今我訪君君不見 이제 나 그대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고

居然人事閱滄桑 居然히 人事하고 滄桑을 들러 보네

라고 하였다.

己丑年 봄에 丁汝昌이 來韓하였는데 때마침 가득찬 朝廷들 앞에서 國王을 謁見한 자리물 인

어 알현하였다. 丁汝昌 一行은 戰區를 두루 살피었는데 中·日兩國의 戰爭에서 승패한 이유 를 자세히 시찰하였다. 그때 丁汝昌은 느끼 바 겪었을 것이다.

日本은 新興國家로서 物力이 신기한 것도 있지만 拙한 것도 있었다. 海軍에 있어서 中國艦 船인 鎮遠號나 靖遠號와 같은 함선의 噸數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또 魚形의 水雷같은 武器 도 없었다. 저들은 大阪의 商船을 軍用으로 충당하고 있을 뿐이다. 또 그 밖에 輜重(補給)이나 工兵 등 일체의 裝備軍需品에 있어 결코 충족한 것이 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陸海軍의 軍紀·軍律은 정연하여 문란한 점이 전혀 없었다. 大山巖·桂太郎· 井上馨 또 閑院宮親王 등 人士들은 軍職에 忠誠을 다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軍人의 모범이 라 자처하고 있었다. 그래서 成歡·安東에서 遼陽·威海衛에 이르기까지 통과하는 처처에서 秋毫無犯法함이 없었다. 저 焚燒하고 劫掠하고 擄掠하고, 不自然하고, 不合理的하고, 야만적 행위는 그 이름을 붙 일 수 없을 정도였다. 日本의 各省·官邸나 新舊華族들의 집집마다에 갖고 있는 古玩珍品은 모두 戰爭 때 가져간 盜品들이었다. 반면 中國의 戰跡은 사사건건 이와 背馳된다.

李鴻章이 全中國의 國力を 총동원하여 十年 동안 쌓아올린 財力이 그 절반이 頤和園으로 제공되어 西太后에게 上納되었고, 그 나머지 半額은 北洋艦隊를 키우는 데 消費되었다. 그때 서 工廠이나 砲臺나 各종의 艦艇같은 것이 모두 精銳가 最精銳 아닌 것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

을 왕래한지二十四年の 세월이 되었다. 그 동안市·鎮·鄉村 등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庚戌(戊戌)年 겨울 本人은 東北地方(滿洲)에 도착하여 蕪滬(蕪은河北地方, 滬는上海地方)地域을 방문하였다.

內政은 좀더 개하고 있으니 國家前途를 생각하고 염려하니 不知中 人들을 玄海灘에 면구지 政治에 몸을 담고 國政을 도모하는 자들의 浮沈이 勢利에 따라 좌우되고 外勢를 도우면서는 거와 같다.

官에겐 百名의 百姓이 歡迎하는데 나에게는 十名의 百姓밖에 出迎하지 않는구나 하고 탄식하 한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마치 土牛(土牛)를 타고 百姓을 앞에 나타나는 鄉長이 어떤 地方 本人은 今年에도 去年과 같이 또 다시 中國을 생각해 본다. 그 中國이 十年에 걸쳐서 진보 좋으랴만! 祖國 韓國政治의 불행함을 슬피 생각해 보았다.

島와 中國大陸 사이에 바로 비추었으면! 비록 終日도록 그 日光의 勢力이 비추지 않더라도 그 國力의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습이란 驥尾과도 같았고, 日光과도 같았으니 이 빛이 驛半 誠은 밤낮 가리지 않고 추진하고 있었다.

고 이를 모방하거나 비추하게 흉내내어 만들고 있었으니 그 精巧하고 精銳함을 추구하는 熱心 三戰三勝의 志高氣揚한 때였다. 누차의 戰爭 때마다 鹵獲한 戰利品을 陳列해 놓 (500) 때 列強의 聯合軍으로 北京(京城)의 警備를 거쳤으며, 또 日露戰爭(日露)의 경험마저 있어 그때 日本은 일찍이 甲午(甲午)年에 戰爭(朝鮮의 東學亂)을 거쳤고, 다시 義和團事件(六六)

本人이 그 뒤 十年쯤해서 司法制度 視察次 日本에 건너간 적이 있었다. 저 大阪에 있는 砲 兵工廠과 吳(吳)에 있는 軍港 등 軍機製造所를 두루 다니며, 觀覽했는데 크게 감탄하였다.

丁汝昌의 自殺도 그 末路는 一역시 이와 같은 牽聯關係에서 유래된 것이니 두 나라가 각 뜻이 있다 하더라도 戰爭을 치러 내고 守備를 할 人材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면 허망하게 失機하게 된다. 이런 속에서는 비록 金城湯池가 있고 강력한 武器와 날쌔 精銳 精銳가 되니 할일없이 감투나 쓰고 있는 徒黨들이 자기 면목을 세우느냐 이 말저말 敷衍하다 그 脆弱하고 또 用軍·行陣을 하는데 있어 일의 大小를 가릴 것 없이 上級驪의 決裁를 거 을 일삼으니 砲彈材料가 精銳할 수 없고 큰고작은 巨격이 맞을 리 없다. 그래서 砲彈의 힘은 지금 砲彈 하나를 예로 들어 말해 보자 廠長이나 工役夫할 것 없이 서로 남을 속여 營私만 으릴 기분이 있었다.

황한 事態를 벌써 드러내고 있어 國民의 상하는 이케 주지않아 失神한 나머지 敵愾心마저 일 없었고, 敵軍은 북쪽 遼州(河北省 通縣)에 臨洎한다고 퍼들썩 하였다. 局面이 이에 이르자 흥 가 뛰바뀌었고 軍紀는 紊亂하여 整頓되지 않았으며, 民心은 하루아침에 뒤흔어져서 賊軍을 黃昏이 것은인 마지막 政權은 부패하여 國庫는 조개어져 분산되기에 바빴고 계획은 늘 안락 지 못했다.

은 모두 日本이 旅順을 함락시킬 수 없다고들 했다. 그러나 누가 政權의 主導人物인지 알

그러서 내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質問해 보았다.

先生께서는 高英의 大志를 품고서 成績을 쌓으신지 오래이며, 學界에서 卓越하신 분이시나. 先生의 門下에서는 많은 桃李(門下生)를 배출하여 온 나라에 두루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盛하면 盛할수록 좋습니까.

그러나 公家에서 기를 어지고 무절려진 나라를 부흥하고 구제하지 못한다면 또 개인의 처지에서 變價되어 버리고 喪失당한다면 이는 教育의 根本精神에 背馳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子願을 逆賊으로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무릎을 꿇어 땅겨 마주대고 이 나라 百姓과 나라에 관해 한번 시험삼아 물어 보십시오. 끝내는 어떤 민을 만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날은 나라의 形勢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鑿國的으로 善政을 바라고 願합니다. 그런데 善政이라고 하는 것은 改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醫師가 病根을 잘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中國은 一身萬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病源을 考究할 수가 없다고 해서 癡醉시키는 注射針만 함부로 꽂는다 하면 비록 잠시 동안 鎮靜은 되는 몰라도 그것이 목숨을 살리는 根本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15、中國改革論

작년 여름 湖濱振社에서 우연히 中國人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말하기를 日本에 留學한 바 있으며, 專攻은 師範科를 修習했으며, 中國에 돌아와서 教鞭에 數十年 從事했기 때문에 弟子가 수다하다고 했다. 語調는 높고 氣像은 壯大하며, 骨子와 자망스런 테도가 있고 있다.

註 1 北京 근처에 있었던 滌米의 離宮. 明나라 중엽 好山園으로 출발하여 清乾隆帝 때 增築하여 萬壽山 昆明湖를 鑿鑿하였다.
 註 2 立春日에 地方官이 城밖에서 糶으로 만든 소(王生)를 가지고 와서 밭가는 시늬를 하면서 出迎한 百姓 등이 糶을 받고 牛牛를 갖아 祭를 지내는 數年新願行事에 씀이는 土牛이다.

본다면 가슴속에 擘메이는 슬픔을 느끼고 하였다.

本人 스스로도 다른 나라의 進退를 가지고 왜 이렇게 슬퍼하고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미 내게서 떠난 일이면 나와 光觀이 없는 일이겠으나 松茂栢悅의 誠心이 있고 死地를 빠져나온 여우에게 悲哀가 남아 있는 것처럼 여기에 類類相憐의 감정이 우리같은 天性이 그러함에 서 유래된 것일 것이다.

小賣商이 가령 한번 이런 뒷골목에 도착하면 동네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뺨돌러서 包圍하고 등글게 열을 짓습니다. 다음엔 소리 소리 지르며, 物件을 흥정하고 값을 흥정합니다. 장사꾼은 이들을 應酬하기에 精神이 없습니다. 左顧右察하여 꽤나 注意를 기울이나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이때 할부 婦人이 物件값이 싸다 비싸다 떠들면서 곁에 있는 다른 男子와 婦人들도 역시 이렇게 떠들고 맞장구를 치는 틈을 타서 손으로 만지각거리던 物件을 물레 뒤에 서 있던 아이에게로 넘겨 줍니다.

장사꾼은 혼자 뜻밖의 利益이 난다고 좋아하지만 盜賊질 당하는 損害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損害는 物件값 두 배의 利益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子女들이 혹 도둑질 하는 行爲가 있다면 그 父母들은 사람의 道理로써 이들을 養

할부 가치를 窺悉하게 되었습니다.

本人이 일찍이 小戶人家(下流階層人家)에 雜居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家庭教育의 不良한 점(악마의 軍隊)을 제 조해 내는 本營이 될 적인데 이래도 教育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退하고 더욱 건잡을 수 없이 混沌하여져서 教育이란 것이 蠱賊牟리를 잡아 먹는 逆賊(과 魔軍) 이와 같은 精神狀態를 가지고 不斷하게 의욕으로 간다면 相互 傳承되어 갈수록 더욱 衰며 우리들의 地位가 어찌 榮遷하겠으며, 우리들의 權威가 어찌 伸張될 수 있겠습니까.

長한 生애를 하지 않고 단지 前轍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우리들의 薪盆收入이 어찌 늘겠고 예로부터 傳來된 각종의 嗜好와 致命的인 癖에 癡病(癖)이 있다 해도 이를 癡蕩하고 改

지 못했습니다.

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쌓여지고 뼈에 스며든 癮癮에는 오히려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治標(末端枝葉)에까지 不及했다고 나무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 實에 있어서 根本을 變하게 하는데 加勢 激勵하는 것이며, 病에다가 病을 더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숨이 막혀 죽어가는 生氣 없는 모음이 역력하게 흐르는 黃昏지는 中國입니다.

아침에 그날 저녁의 일을 圖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荒涼한 混亂과 災業산이 늘고 頹한 것은 二十一年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저 殷나라 紂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九名의 大臣이 들어서 있다 해도 精神은 만드 걸레기 肉身에 있을 뿐이요. 精氣는 이미 脫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危險한 現象은 반드시 到來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비록 補聖한 醫人이 있다 하더라도 이 版局에 手術할 醫術을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絕望 속에서도 生을 圖謀코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生理의 源泉에 置重하여야 할 것입니다. 國家生命의 元素는 실로 教育의 改良에 存在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第一의 主人公을 產出하는 일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百骸身體의 구석구석을 整理케 하고 活潑健全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는 根本을 바꾸지 않고서 根本을 다스리는 添道입니다.

이제 先生의 論法을 들으니 이것과는 크게 다른 마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을正義로써 訓導하고 罪의 咎을 免하여 버려야 하며, 善한 뿌리가 내리도록 생각하고 培養해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道理의 基礎라 하겠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열굴엔 기쁜 靚色을 나타내며, 子女를 訓戒하는 일은 서 두르지 않고 있으며, 이런 것을 하고서 父母가 痛恨히 할 일들을 다 한 듯 한 靚色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여나 商人이 이를 추궁하고 그 흔적을 찾아 내려고 하면 힘써 僞證을 드러내며 큰 소리로 辯을 하며, 말다툼을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로 하여금 그 不道德한 觀念을 助長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結果는 官民上下나 老少 各급의 百姓이 서로 다투어 거짓을 일삼게 되고 人間에게 羞恥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日本이 中國에 대해서 不法한 것을 敢行하고 있고 人格을 가진 者로서는 참아 볼 수 없는 것을 敢行하고 있어 이는 中國이 德聲을 스스로 自取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人들은 아직도 그 本色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國民의 劣等한 根性은 教育이 가지는 薰陶의 힘이 아니고서는 끝내 그 改善은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近世에 崇尙하는 精神을 教育을 통해서 비록 薰陶한다 하더라도 그 遺傳의 惡素因은 장차 반드시 增加했으면 減少하지는 않을 것인즉 종국적으로 보면 스스로 그 精神을 改

(岳武穆(二)은(二)岳飛, 南宋의 武將, 愛國者)은 말했습니나.

文官不愛錢 文官이 돈을 좋아하지 않고.

武官不惜死 武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天下可復 天下가復興할 수 있다.

참으로 뜻 깊은 말이다. 이 이야기는 將軍된 몸이 죽음을 아끼고 두려워하면 반드시 功

을 세우지 못하니 이는 田單(戰國時代 齊나라 將軍)이 魯連(魯仲連 齊나라 高士)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인 것이며, 宰相이 된 者가 돈을 좋아하면 반드시 賣國奴가 되나니 이는 秦檜(二)은(二)은 南宋의 政治家)가 金나라 사람의 嚮導노릇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토록 구차스런 삶을 아끼는 陋는 본디 羞恥스러운 것이며, 돈을 사랑하는 禍가 이토록 酷烈한 바는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先生께서는 이와 같은 百姓을 振興시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日本의 醬이고 醬이고 倭寇의 壓力을 膺懲하고 아울러 이를 넘어 쫓고 歐美를 旅行하시어 반드시 먼저 廉潔精神을 基本教育에 輸入하여 불어 넣어서야 未來의 青年으로 하여금 陋하고 拙劣한 생각을 벗어나고 脫皮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守雌(柔弱하고 卑賤한 태도)와 馴伏하는 第二天性을 떨쳐 버리고 強毅하고 莫屈의 特種人格으로 變成시키어 세계의 何人이라도 다지는 敢히 이 老病의 몸을 慢侮하지 못하게 하여야 國家가 復興할 것입니다. 또 民族의 勢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理致를 깨닫고 信奉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중국인 친구는 韓末의 宮中 變史를 끄적여 내었다. 나는 이에 대꾸하기 어려웠

자 무슨 손용이 있겠는가.

遠토록 전승의 발근과 새들의 발자국으로 너럭이 한다면 그 優劣과 得失을 學論해 보았
內亂을 鎮壓시키는 實績도 없고 外寇를 防禦하는 氣運도 없고 스스로 百年大患을 심어 永
그리고 辭職을 하고 落鄕하여서는 萬公나라를 잃고 亡命한 者의 福을 누리려고 생각하며,
하여는 堡壘를 築造하기 전에 退却할 길을 먼저 정하고 하는 形편이다.

을 排斥하며, 時宜에 면승하여 謀利나 하고 外國의 힘을 빌려 民衆을 強壓하고 陣地에 입
그러나 지금 流行하고 因襲되어 오는 軍閥政策은 그의 兵力을 引込하여 와서 甲의 兵軍
것이다.

여겨 다만 一世의 偉人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世界歷史의 大人物이라 해도 좋을
水火의 危難에서 救出하여 보토 위에 앉히고 그 功이 豐裕하고 그 忠烈이 茂盛한다면
되어도 患難에 이르지 않게 되고 外的으로는 強寇가 暴肆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
察하여 오히려 國家와 公共의 일에만 專念하여 이렇게만 된다면 內的으로는 各派가 分裂
사람을 채용하고 行政을 함에 있어서도 合理이 正義에서 發出하고 公論을 잘 듣고 觀
鑒에 옮겨야 할 것이다.

리고 矯養을 遺棄하고 賅를 거둬 儲蓄한 私財를 公庫에 輸送하여 獻身과 效命의 뜻을 實

가치나 무로 한탄 비너를 짓고 무명으로 찬치마죽으로 갈아 입고 一切의 僧祿을 털어 버
士卒들과 더불어 苦樂을 함께 하고 奢侈를 一掃하여 없애 버려야 한다.

玉與佩孚의 空의 소마하고 깨끗한 氣風을 思慕해야 한다. 妻子를 同行隊에 함께 끌어 시켜
오늘날 將軍이라 하는 者들은 田單의 決死의 心情을 부러야 되고 가까이 있는 子
될 것이 많다.

다만 옛 將軍의 嚴肅한 遺風이 있을 따름이다. 이를 지금의 新興軍閥과는 呼應해서는 안
는 날 절에는 備蓄한 財產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儉約을 奉行하고 妻子는 食貧하게 지니며, 그가 軍服을 벗고 落鄕하
없었다.

르는 곳마다 海內人士로서 그의 風采를 想望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一世의 英雄임에 틀림
나 그 당시를 回顧하면 數個의 洲의 땅을 根據로 하여 百萬의 群衆을 휘어잡아 그 權威가 이
吳佩孚는 노래나 하고 책을 읽으며, 그림이나 그리면서 淡淡하게 落伍된 生涯를 보냈으
用兵의 技術은 古今이 無二한 것으로 器械가 精하고 籠한 것은 匪에 따라 갈지 않다.

吳佩孚(公獨) 完北洋軍閥(隸派의 巨頭)의 故事를 講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이에 中國人 친구는 別란 모습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급히 話題를 變換으로 돌려

다. 그래서 한참 동안 멈추었다가 다음과 같이 대략 이야기를 하였다.

16. 李朝末 宮中秘史

明成皇后 閔氏(은혜)는聰明하기 絶倫한 분이였다. 多聞·博識하고 經典이나 諸子百家에 이르기까지 無不通曉했다. 또 뿐만 아니라 辭命(廢談)은 마치 물이 흐르듯 거침이 없고 마힘이 없었으니 그를 치마 두른 아녀라 하고 할 수 없었다.

駐韓日公使 井上馨이나 伊藤博文이 가끔 皇后를 알현하고서는

古의 國際非常法例를 論及하는 것을 보면 그 抱負와 指向하는 바가 尋常치 않아 놀라

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였으며, 日本의 政治評論에서는 이런 말을 하였다.

韓國의 皇后인 閔氏의 人格은 現代의 東西 皇室 가운데 甚히 匹敵할 사람이 없다. 漢의 呂后(漢高祖妃)나 唐의 武后(唐高宗의 妃)와 가히 論議될 수 있는 人物이다. 그러나 그 절를

라고 했다.

日本이 처음 韓國을 겁에 삼키고자 마음을 품고 있었으나 바로 꺼리는 것이 明成皇后의 存在였다.

乙未(은혜) 八月 韓國駐在 日本公使 三浦 등 四十餘名은 亂이라 칭하고 宮城을 범한 후 直

行하여 皇后를 慘酷한 變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 뒤 廣島에서 擧해진 裁判에서 日本의 面目을 지키려는 計略 때문에 三浦 등의 逆魁가

明證한 데도 불구하고 無罪宣告했다. 그리고 大院君과 禹犯善 등이 이 陰謀를 主犯했다고 했

다. 그래서 光緒帝(은희) 清十一代 溥儀의 悲劇을 代表하는 皇帝)는 大院君을 幽閉하고 權位를

빼앗고 다시 일어선 餘地를 없었다.

그리하여 日本을 排斥하고 韓國을 復興시킨 計略을 세웠으며, 오래도록 이 計劃을 拋棄하

지 않았다. 日本은 이러한 事情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韓國에서 偵探꾼을 일본에

많이 派遣해도 이들이 오히려 朝鮮王位를 嫌惡하게 되었다.

드디어 尹·韓두 눈을 使喚해서 高宗皇帝를 毒殺한 變毒을 계속 嚮하였으니 韓末의 宮

中歷史는 가히 憎惡하고 羞恥스런 일을 뿐이다.

閔后가 被殺된 후에 多幸스런게도 한 宮嬪으로 있는 某氏가 한 사람 있었는데 모든 後宮 중

에서 高宗으로부터 寵愛받음이 으뜸이었다.

이보다 앞서 이 宮嬪에게 交情한 某人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情人은 정키인을 謀殺하려 다가 政治犯으로서 逮捕되어 東京監獄에 收監되어 있는 者였다. 이 宮嬪이 高宗의 寵愛를 받 아 富貴가 極에 달하자 옛情이 간절하게 그리운 나머지 비밀히 情은 편지를 써서 手票(어음) 을 함께 갖추어 피난 주머니에 넣어 東京에 보냈더니 뜻밖에 이 주머니가 그 情人에게 도달 되지 않고 某國公使의 手中에 墮落하게 되었다.

公使는 이것을 奇貨로 생각하고 꺾 잡고서 寢床에 달아 놓고 慨然한 체 가장하고서 은근히 근심스럼고 탄식하는 소리로 이는 皇室에 相關되는 큰 일이라고 하면서 이는 각은 일로서 다 를 것이 아니라 마땅히 皇帝를 가서 직접 알현하고서 드려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 消息을 그 宮嬪이 듣고서는 青天霹靂과 같았으며, 魂飛魄散하였다.

그러하여 그 宮嬪은 간절하게 뒤돌린 일의 完璧을 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 일이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生命을 잃을 것은 명백한 터전이나 某國公使는 허락치 아니했다. 公使는 이에 禍根을 뜻하면서 임은 다물고 鴉鴉의 奸計를 써서 內藏金品을 秘密裡 에 투여하게 하였다.

이러하는 時日이 一年이 흐르는 가운데 홀려들어간 金品이 幾千萬鎊이 되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였으며, 이 絶好의 奇異한 因分을 잠은 그 公使가 巨大한 財物을 橫領하게 되었으니古 今의 國際社會에서 우례가 없는 일이 되었다.

每般 秘密約束 金品을 납부할 適時에 親呈二字를 提示해서 自進納付치 않고 適時를 넘기고 계속하지 않으면 公使는 威脅을 가하니 비록 宮嬪의 힘을 전부 다 기울여도 우심많은 秦나라 의 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形勢와 같았다.

國內의 最高富庫인 內藏院의 金庫도 빈처럼만 남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韓國사람이 저주하는 兇穢의 兇 別名을 듣는 李容翊이란 者가 있었다. 본래 威 鏡北道의 不良輩였는데 어떻게 宮中에 인연이 닿아 宮에 출입하게 되어 아랫 僻성에게는 損 害를 일으키고 上位者에게는 利益을 안겨주는 媚寵의 詭略을 써서 內藏院이란 機構까지 設置하

였다.

그러하여 內藏院에서 國內 각 鑛山·驛屯土 각 宮莊土·漁場·鹽田·蘆田 식지어 수렵·蓼 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生産場에는 전부 李容翊이 侵占하고 專管하여 무리들을 地域內에 配 置시켜 속속들이 파가고 빼앗아가고 쫓겨어 갔다. 이렇게 舞弄하고 作奸한지 十年이나 계속 되어 僻성들은 田畓을 버리고 만곳으로 떠돌게 되고 怨聲이 沸騰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內藏院의 富가 國家歲入의 十倍나 되고 李容翊 등은 豪奢放縱하게 되어 백성 들은 그를 白眼視하게 되었다.

山같이 쌓인 珍寶는 아깝게도 주머니 속의 手形으로 轉轉移動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珍

寶는 枯竭되고 倒産되었다.

그 결과 중국에 가서는 國家의 機密이 交換條件으로 戀情이 단견체로 偵探과 刺殺가 되

였는데 帝王께서 어찌해서 그것을 아시고 復國之計에 一貫하셨으나 뛰어난 생각이 없었으니 密書는 海外에 나가게 되었으나 마침내禍는 오위려 겨드 남아 있을 뿐이어서 帝王의 密書는 海外에 나가게 되었으나 마침내禍는 오위려 겨드 량이 근처에 있었는지 드디어 蕪穢까지 당하지고 말았던 것이다.

아! 孔子께서 『春秋』(魯나라 歷史)를 지으시고서 魯나라가 미워서 숨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이제 내가 숨김없이 韓末의 秘史를 摘錄하였으니 큰 犯罪가 있으면 숨기고 하던 것을 이를 바로 摘示하자는 戒律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 역시 어찌 나 혼자만의 心情일까 보냐 이것이 또한 病이랄 수는 없는 狂氣가 발동한 것일까.

痛恨할 일이다. 일분이 앞서 國王을 弑殺한 일이 없었다면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나라 社稷을 다지 폐위로 만들려고 이 나라의 固有精神을 滅絶시키고 우리 三千萬民族을 영원히 奴隸의 密林에다 埋沒시키었으니 이는 내가 기뻐하지 못하겠거니와 暴露를 하게 된 이유이다. 또한 事實 있는 그대로 바로 써두는 것은 우리 同族으로 하여금 敵에 대한 敵愾心を 增長시키고 나아가 中國人士에게도 殷鑑(殷나라의 亂을 教訓으로 삼는다)을 삼고 警惕(경계)하고 두려워하기를 권한다.

中國의 龔仁和氏가 한 말이 있다.

他國의 백성을 滅絶시키고, 他國의 人材를 總하게 하고, 그 나라 宗教를 없애고, 紀綱을 廢弛시키고, 그들의 祖宗을 祀하지 않으면 반드시 먼저 그 歷史

를 없애야 한다.

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이 책을 읽을 때마다 歷史에서 유래된 慘境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感想은 없었다고 생각했다.

17. 韓末의 日本公使 非行

金斗源은 韓末 한 사람의 威鏡北道 金斗源에게 불과하다.

光武年間에 金斗源을 金斗源이라고 하였다. 南行하는 길에 日本船과 衝突하여 金斗源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리하여 被告船主에게 대하여 賠償을 請求하는 提訴를 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해결되지 않았다.

駐韓 日本公使 林權助 등은 金斗源의 人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단순한 談判으로써 屈服되지 않을 事件임을 알고 몰래 本國 政府에 대하여 비밀리에 協商을 하여 마침내 被告인 日本船主에게 破産을 宣告했다. 金斗源은 비록 勝訴하는 듯했으나 懲罰이나 賠償은 할 道理가 없었다.

따라서 日本朝廷은 특별히 恤金이라 하여 수천량의 돈을 주고 이 일을 完結시키려 했다. 그

이 문제에 대하여 賠償을 요구하고 懲罰을 요구함은 나의 正當한 權利이며, 民·刑事法에서 許容하는 바이다. 어찌하여 恤金 云云하며, 구구한 소리를 하는가.

十年 동안 그는 滯滯 속에서 싸우면서도 조금이라도 苟하거나 憊怠하지 않았다. 金斗源은 본래 法律에 대한 基礎知識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法律家를 찾아 諮詢한 精誠의 보람으로 사 말들에게 배워서 國際私法이나 裁判先例에 대해서 諳諳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法廷에 출두하여 辯論을 할 때마다 그의 말에는 條理가 당아 內外 法律家들도 이에 놀라움을 攄투를 지경이었다.

日露戰爭의 終期에 이를 무렵 日本公使의 舉動은 그야말로 나날이 驕傲가 더해갔으나 오직 金斗源에 대해서만은 아주 두려워해서 閉門하고 만나 주지를 않았다. 그러나 金斗源은 매일 아침 먼저 日本公使館에 도착하여 日本政府의 不法을 彈劾했다. 오후에는 外務衙門에 도착하여 理論을 開陳했다.

나는 일찍이 外務衙門의 일을 보고 있었으나 金斗源의 日常 工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이때 日本公使館은 南山의 綠泉亭에 있었으니 公使 이하 職員들이 門 밖을 나설 때마다 金氏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나섰기 때문에 그해가 지날수록 한 번도 金氏와 이들을 만나지는 못했다.

이 만나지는 못했다. 하루는 公使館 터를 둘러보면 金斗源이 살고 나무가 마침 담장을 의지하여 서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났다. 그 나무가 저에 기억이라 보니 公館職員의 宿所가 咫尺間에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屣을 벗기 시작했다.

야! 이 큰 強盜 林權助야! 좀 도둑 監川아! 國分아! 너희들을 辱罵하는 好坦 노릇이 나는 表裏가 뒤새끼 같은 도둑질이나 하는 놈들아! 내가富有하는 正當한 權利를 虛僞의 話를 트쳐 消滅시키다니 내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너희들의 쓰레기 같은 物件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뿔하고 또 매도했다. 이렇게 하기를 대낮부터 저녁때까지 쉬지 않았다. 또 오늘이 렇게 한 것처럼 내일 또 그대로 반복했다.

公使 이하 모든 職員들은 커머거리인 체하고 잔취 이를 간섭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저를 이 번뇌하고 고민하는 모습이란 이루 形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세째날 아침에는 문제의 살 나무를 뽑아 치우고 그 관자리에 井戸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討論이 窮해진 金斗源은 다만 要路에 지켜 섰다가 屣을 벗는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林權助가 糞土峒 쪽으로 말을 달리는 데 金斗源이 꼬리를 쫓아 糞土峒에 갔다. 마치 독수리가 닭새를 쫓는 격이요. 그양이가

한 사람이 그를 가토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金斗源의 이야기에 대해서 觀察컨대 中國의 北伐軍이 揚子江을 넘어선 이후에 日本은 故意로 北伐軍의 船隻에 火를 點키고 人民을 물에 빠져 죽게 하였으며, 戰後 몇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이다.

平民野人으로서 金斗源과 같이 百折不屈의 人士가 있기가 어려울 것이며, 官職에 있는 朝

하며 얼굴에 怒氣를 띠고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다.

李外相은 正식으로 이에 應酬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國際禮儀를 犯했으니 자연히 處罰을 받을 罪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이다. 그러나 貴公使가 本大臣에게 한 失禮는 어찌 이럴 수가 있소.

하나, 이때에 林은 몸을 바를 알지 못하여 沈沈 愧矣였다.

이미 金斗源에게 辱을 당한 데다 또 이번엔 李道宰外相으로부터 責망까지 들었으니 아무런 氣가 새기도 유명한 林權助라도 끝내 감히 한 마디의 말을 다시 꺼내지 못하고 退去하였다.

金斗源은 본래 條理가 剛直하고 拘禁되기도 며칠씩이나 하였다. 外國公使의 面目을 保全하기 위해서 各々 구속했다가 各々 다시 釋放하곤 했으니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日本은 그때 마침 戰勝한 때요. 英國과 同盟을 체결한 때문에 氣高 驕文한 때이라서 누구

생쥐를 낚아 채는 꼴이었다. 그 활나야말로 羊이 따로 거머쥐어 튀겨서 놓을 듯한 氣勢였다. 몇 차례 辱을 퍼붓고 責望을 했다. 黃士峴은 景福宮으로 향하는 큰 길인데 구경꾼이 길을 빠져 있었다. 이때 日本公使는 別안간에 다음과 같은 演劇을 벌였다. 그렇다고 스스로 튀돌아 갈 겨를도 없었다.

따라서 羞恥로 인하여 怒하게 되었다. 金斗源이가 끌어 안으면 林公使도 부응하여 안고 汗斑의 異影로운 모양의 奇異한 유희가 벌어졌다. 막상 外務衙門 근처까지 도착했는데 아직도 距離는 一里쯤 더 멀어졌다.

金斗源은 본래 健壯하고 날쌔으나 林公使는 脆弱했다. 林이 一步 더 단는데 한 번 踉蹌할 것 같으면 金은 두 걸음 내디디면서 辱을 한바탕 하곤 하였다. 이 모양은 마치 누런 쪽제비가 큰 암닭을 물고 잡아채는 모습을 방불케 했다. 兇惡한 內外群衆이 捫라외인 가운데 拍手 喝采가 터져 나왔다. 따라서 金斗源의 猛威는 그 불리싼 觀衆들의 응원과 함께 높아만 갔고, 거리가 늘어선 警察들도 群衆을 헤치고, 뜰어와 간섭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警察隊가 말을 달려 도착했을 때 金과 林은 이미 둘다 外務衙門에 當到해 있었다.

그때의 外相은 李道宰였는데 아래층에서 있던 일을 모두 듣고 있었는데 林은 얼핏 李外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金斗源의 손뼉이 저니 이를 李外相의 가슴에 밀어 붙이며 말했다.

이놈을 당신의 裁判에 맡기겠소.

人으로서 책임을 지고 面對해서 節度있게 따금하게 처리하는 奏進率 같은 人品이 될지 않을 것이다.

귀를 막고서 좋은 소리는 못들은 채 하면서 오히려 兇습하는 데 부족함이 없느니 스스로서 두려워하면서 當世에 偉물을 남기니 사람으로 하여금 말장을 움켜쥐고 애를 태우게 하는 바 다. 이것이 내가 日本이 中國을 대하는 것과 韓國을 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누차 이야기하는 연유이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공연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남을 侮罵하는 것은 결코 하지 말라고 筆者를 誤解해도 좋다.

18, 日本의 對韓詠史

부통 富貴한 사람들의 後裔들이 때에 따라 차레로 돌아 가며, 襄退한다. 陵夷瑣微라! 그 頹頹하고 窶窶했던 先祖의 德과 遺澤이 날이 지날수록 잊혀져 간다.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이름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혹시 갑자기 부유인이 오히려 驟興하는 사람도 있어 當代에 그 이름을 떨치고 빛 내기도 한다. 그럴 때 그 子孫을 차기 家門을 빛나게 장성하고, 설어 한다. 그리하여 系譜

를 빌어 古代의 名人의 系統을 좇아 族譜를 기록하는 일까지 있게 된다.

國家의 王系 역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拓跋氏인 魏나라가 中國貴族의 立場에서 直筆한 崔浩나 劉裕의 著書에 遺憾을 표하게 되었고 先祖의 계통은 반드시 漢나라 高祖系統인 것이라고 하였다.

또 近世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日本의 神武天皇의 歷史는 日本 明治維新이 일어남으로써 뒤늦게 假飾된 것이니 그 概要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漢高祖인 劉邦이나 明나라의 朱元이 도 그 先祖의 역사를 記述하는데 있어 빠진 것이 있어 다 學論치 못하는 弊病이다. 그래서 적어도 眞實을 좇아 하는 者는 없고 그렇지 않은 者가 많다

요사이 日本學者들이 史書類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實飾하는 것이 범람하고 眞實과 거리가 먼 말들이 아주 많아졌다. 이제 한 토막의 假어치도 안 되는 글을 하나 紹介해 볼까 한다. 그들은 同化政策에 고심한 나머지 年代도 고려치 않고 사실을 講論치 않고 說理없이 理論만 내세웠다.

식지어 한국의 檀君과 日本의 神武가 伯叔兄弟가 되어 二千年 전에 兄弟之國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 併合하여 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假假 神武의 歷史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歲月의 相距가 二천四백년이나 있는데 兄弟가 될 수 있겠는가 謬妄하고 不倫함이 대개 이와 같았다. 茂園 金教獻(二翁(三 大傑의 二代後)氏는 널리 古代의 名家를 찾아 一生의 精力을 모두

殺生有擇
臨戰無退
交友以信
事親以孝
事君以忠

이라고 대답하시었다. 이것은 俗五誠라고 하여 전하고 있다.

韓族은 儒敎를 敬修한다. 五誠을 專독하게 지키며, 이러한 것은 上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다. 新羅人 貴山과 簞項은 모두 花郎徒였는데 加悉善에 있었다. 그때 圓光法師에게서 가르침 이 될만한 誠銘을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너희들은 仁君의 臣下된 사람들이니 보 살년의 十誠을 행하기에 적합치 않다. 그러므로 마땅히 「世俗五誠」를 닦아야 한다. 즉

19. 韓族의 美德·善俗

【註 2】「劉裕(美々三) 漢高祖御邦의 禮儀.

【註 1】「崔浩(美々四) 北魏의 宰相 史丹臣의 개인을 지고 完成하였으나 漢人 叢族의 昆地에서 直蕪한 것이 禍根이 되어 一族뿐 아니라 姻戚까지도 控殺되었다.

오늘날의 통속적인 講演이나 兒童들의 敎材 가운데 무엇이 하나도 가짜로 만든 책에 同화된 것처럼 아닌 것이 없다. 瘧疾증이 한조각 배에 의지하여 韓國에 다녀오고 스스로 말한 것이 明明白白하고 正鵠을 잃은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病은 病에서나 일컫는 데 불과한 것이요. 저 鄭聲謔이 말하는 自發症과 같은 것이다.

芝蘭(난초)의 香氣를 어찌 소금에 전인 魚鱈에게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대들(日本人)의 膺을 빙자하여 남을 侮辱하거나 죽이거나 한다면 역시 큰 일들이라 비난해도 不足할 것이다.

다한 분인데 잿더미 속(四庫藏史·內宛秘本·古碑古傳)에서 秘本을 찾아 모아 처음으로 檀君(檀道 耜)을 인본인데 神史 神誌 그리고 三國古史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記載된 遺籍을 追緒하고 本이 되었다.

어찌 이것이 奴史(애늑이 적은 가짜 歷史)에서 지지는 誣問을 追跡하여 正정하는 데만 그칠 것이냐 이는 가히 後人에게 龜鑑되는 바 크며, 垂範되는 바 큰 책이다. 불행히도 韓나라 皇室이 기울어 뒤집히게 되며, 이와 같은 民族精神의 文字가 담긴 책들은 모두 日本에 의하여 禁忌 되고 그 流行本은 국내에서 流布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中國小說에 보이는 歷代의 系統의 忠義驍 같은 것은古今을 통해서 變에 變지 않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 黃炎培君이 그의 列表中에서 韓國의 強盜件數를 攄하였던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載탄해 마치 않은 일이다. 무릇 物價文化가 고도하게 발전한 곳에 無產階級은 反比例하게 증가하기 마련이며, 警察搜查力이 발달한 地區인 知能犯이 더욱 더욱 兇巧를 더해 갈 뿐인데 이는 世界 通례인 것이다.

韓國 민족은 卓越한 試鍊과 淫刑을 당하고 또 압박·착취·壓逐을 당하여 歿되어 故郷을 등지는 禍를 입고 있는데 이는 算術級數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現狀이다.

富豪는 감소하고, 中産層으로 되고 다시 階等하여 구경을 하게 되었다. 忠實한 節은 不法이란 劣으로 傾倒하게 하니 暗澹한 나머지 苟且한 나머지 苟且에 있는 해가 晝를 잃을 노릇이다. 그러면 저 이 二十年 이래 強盜殺人的의 건수가 기록을 突破하였다 함은 사람이므로 하여금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實相을 考察해 보면 그것은 보통의 살인이 아니라 모두 政治的 殺人的이다.

모든 獨立運動團體나 개인이 萬반 죽음을 무릅쓰고 敵線을 돌파하여 工作을 積極히 進行시키고 있다.

일단 日本 軍警이나 官吏 또는 그 偵探走狗들을 만나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그들로부터 變和 스린 危險을 받지 못하고 死刑이 집행되었다.

저 四千四百年 전 佛敎의 十誠도 아니고 또 儒敎의 五常(父義·母慈·兄弟·弟恭·子孝)을 그 때 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니 이는 韓族의 고유한 전통적 美德·善俗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 二十年 전 나는 때때로 損徒라는 品속을 實踐하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즉 五誠의 戒命을 어기고 위배하였을 때 스승이 그 弟子를 黜斥시키고 隣近人도 그 사람을 唾棄시키는데 韓俗으로는 이 려게 쫓겨나는 者를 損徒라고 부른다.

貴賤를 막론하고 한번 이 려게 損徒라고 당하면 마치 지금의 前科者와 같은 것이어서 다시는 몸 돌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節俗은 아직도 이처럼 아름답고, 政治는 簡潔하고 風俗은 厚하며, 山에는 도록이 없고 밤에는 문을 열어 잠그는 일이 없다. 이것이 桃源의 一面이요, 이것이 곧 仙鄉의 一區域이 아니겠는가.

高麗末에 기강이 좀 문란하여 盜風이 熾盛한 때가 있긴 했다. 李朝의 開國 초에는 五衛五統의 制度가 整齊하여 紊亂하지 않았고 瑣屑와 河漏과 같은 인물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善治를 하였고.

李孝爾(三ノ四三 李朝開國功臣)과 趙波의 軍事에 曉暢(通達)하고 李原(三ノ三九 李朝世宗 때 領政)이 都市政策을 整齊한 것은 모두 탁월하여 紀念할 만하고 이때 以來로 즉 좀 도둑 같은 것은 있어도 아직 兇手이나 惡地僧에 歸어서 匪도둑질을 하는 무리가 있다가 말은 틀어 본 적이 없다.

日本이 中國을 장대하는 태도는 韓國을 滅亡시켰던 옛 智謀를 그대로 踏襲하는 것이다. 그것은 옛날 지나간 과정들을 回想해 보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은 어떤 事件에 부딪칠 때마다 강차 일어난 일들은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를 미리 짐작하고 가만히 앉드려 기다리고 있다. 미리 예측 판단을 하여 機先을 잡아 일을 꾸미고 비오기 전에 빈틈없이 자제하게 준비하여 單一戰線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도리어 韓國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人이 尾行(跡涉)하고 越俎(越俎)하는 틈에 스스로 눈이 어두어 機密이 누설되어 諫書한 것이 방해가 되어 深夜에 방황하고 하늘을 보고 가슴을 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리면서 數年이 흘러오면서 精神이 살아 있는 것은 臥薪嘗膽에 精勵하면서 必死之心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을 나누어 敵情을 탐색하며, 揣摩(眞相을 推理하여 판단함)함으로써 日本人들이 어떤 機會를 틈타 어떤 陰謀를 하고 있다 해도 이를 알아 차리게 되고 또 그 巧詐·詭譎하고 暴厲·輕狂하는 日本人의 성질을 마치 照準鏡을 들여다 모든 鉅細長短을 마음속에 논을 가진 것처럼 밝게 드러내 놓을 수 있으니 이에 감히 斷言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惑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그래서 韓國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韓國人이 魔塊가 變容하는 毒이 그 치는 아수라장에서 스스로 같고 담고 담고 달구어 두면

20、中國의 鑑戒

또 獨立軍의 軍資金은 富豪의 집에서 대부분 強制로 徵收하는데 이를 發國運動人들을 日人官吏들이 알기만 하면 반드시 極刑으로써 다스린다. 이들을 治罪하는 형법은 強盜·殺人이라 는 명목이다. 그 法의 名稱은 이른바 「治安維持法」이다. 이 法律을 日本官吏는 黑赤主義者(獨立運動者와 共產主義者)에게 많이 적용하였다. 強盜·殺人이란 곧 獨立軍의 代名詞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찍이 참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他人의 財産을 함부로 빼앗으라는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 그런데 中華民國 九年(三〇)부터 특히 우리는 強盜殺人的 徽號를 부여받고 있다. 上海法租界에 照會하여 우리를 引導하라는 요구를 어찌 一·三회에 걸쳐서만 요구한 줄 아는가. 政治犯은 인도할 수 없다는 國際慣例 때문에 일부러 이를 거짓으로 꾸며서 政治犯 아닌 常事犯으로 誣告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써 본다면 道徳을 범한 犯罪數가 世界記錄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韓國 사람은 저 毛遂之錐¹⁾의 故事처럼 그 경험과 지혜를 누구에게 제공하려 하는데 어떤 공자가 이 智惠를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할지 알 수 없다. 韓國 사람의 경험과 智惠를 包藏을 품어 볼 것 같으면 마치 異邦의 情態를 느낄 것이며, 보통적이 아닌 別個의 것이 갖 추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民族主義者의 眞誠·眞意는 다락 이상과 같거나 여기서 그 한 데를 들어 보자.

中華民國十年(辛巳)에 있는 上海 經濟斷絶을 하던 때 한자兒童들이 中國 小學生에게 援助를 했는데 그 設計와 계획이 점차 進行됨에 따라 그 효과는 奇異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달 過去의 조그마한 예이지만 장래를 預察하는 데는 크게 效驗이 있을 일이다. 中國人土는 오늘에 처하여 가시발을 자르고 구린내를 불사르고 힘써 光明을 회복하고 大同之域에 도달하려면 그 進行과정의 順序가 순서로 그 極端的인 것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반드시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그 가장 急先務는 對日戰線이다.

즉 韓國人과 더불어 對日戰線에서 合作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成就를 助長시켜야 할 것이다.

비유한다면 探勝하는 사람과 같이 길이 험하고 通路가 막혔을 때 반드시 熟悉하는 사람에게 諮問하여야 하는데 가리키는 사람이 南쪽으로 指示하면서 돌려보면 혹시나 誤導하는 것은 없는지 當面이 생각하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이제 韓國 사람이 이 미 우레도록 나라를 빼앗기고 亡國의 길을 걸어온 사람인지라 살아갈

方塗를 다시 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國人은 韓國人의 발자취를 더듬어 따라야 할데 아직도 등지 속에 자라고 있는 제비와 같은 단꿈에 젖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더우기 슬픔마저 더하게 하는 것이니 어찌 慟恨하고 罔涯한 일이 아니냐. 痛罵를 하고 싶어도 할릴 만큼마저 없는 것이다.

또 이미 亡國의 痛苦를 헤아려보는 것과 강차 亡할지도 모른다는 危懼를 較量해 볼 때 말인 즉 先病者醫라는 얘기가 있다. 후량이에게 별을 얻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實情을 어찌 諷刺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겠는가.

지금부터 中國人土들은 韓國人을 觀察하며 절대로 관심을 기울리 해서도 안 된 일이며, 慢梅하고 猜疑해서도 될 일이 아니며, 의당키 親密을 더해서 提携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이 있으니 依賴하고 怕懼(파구=투려위함)하고, 신임하고 의심하는 分別이 明眼之士가 아니고서는 分析할 수가 없는 것인즉 그 品流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品流를 바꾸어 혼동하기가 일쑤라는 뜻이다.

註 1) 毛遂는 戰國時代 趙나라 平原君의 食客으로서 秦나라가 趙를 侵略할 때 平原君을 도와 楚王과 合從하게 하여 功을 세웠는데 이때 毛遂가 自薦해서 平原君을 따라갔다 해서 毛遂自薦이라고도 한다.

寬容함으로써 깊은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 면 역시 無謀한 政客에 불과한 것이니 아무 感動도 肝(속셈)은 모두 보듯이 드러내고 人格을 張失하니 참으로 痛惜한 일이다. 다시 忠厚하고 고 지극한 思考와 많은 煩惱를 거처 쌓은 결과라 가지고 사람을 應酬해야 할 것이어서 그 肺을 살피어 그의 心理를 비추어 보고 處身함은 어찌 슬피할 일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精巧하 비록 사람마다 각기 抱負가 다를지라도 급히 말려 와서 두 다리를 끌어안고 相對方의 눈빛을 誣言하니 참으로 기괴하고 비열했다. 이러한 者들의 이름을 다 들 수 없으나.

들었고, 남의 말은 멀리 하였고, 더욱더 선한 者는 同一黨에 속하면서 異派에 속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서 믿음은 주었고, 저에게는 排底를 했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내말은 귀담아 후 丙에게 厚待하고, 丁에게 疎忽하게 하지 않으나 사람마다 그 語題만을 들려 떠돌아 걷다. 립타는 顏色로 개별 말도 개별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면서 혹 甲이 없었고 乙이 튀어나오 아날는지 織되거나 양을까 혹시 不時에 그 慈善家의 爐中에 賓客으로 초대되거나 양을까 하여 부끄 各其 經路를 찾아 앞을 다투어 哀訴하며 나간다. 그래도 혹시 다른 사람이 나오다 앞서 接 刺(제빠트레 소게·추선하는 것)가 되고 丙·丁戊·己의 나머지 사람들은 無名의 新看板을 걸고 甲은 孫繼曾(孫次) 때문에 識荆(有名한 人)을 만나 이름이 남)이 되고 乙은 吳與別儒를 끌어鑽 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者는 貧者를 돕고 救濟할 방책을 들고 나섰다. 이 소문이 한 번 퍼지자 遠近 각지가 떠들

21. 韓·中兩國人の缺陷

한 國인은 時代潮流에 汚染되지 않고 오직 나라를 光復하는 마음에만 굳히고 있다. 그러한 韓國인이 遠近各地에 많이 分布하여 살고 있다. 그러나 사람과 物資가 한결 같이 자자부부테 한 感覺을 주는 것이 그 흠이다. 따라서 그 成績으로 치자면 表彰감이 되지 못한다. 그 最大의 疑點은 猜疑難信의 네 글자에 있다 하겠다. 오늘날 우리의 目的은 틀이 아니요. 같은 땅위에 同一한 事業을 하고 있는 것이다. 黑色과 赤色의 兩色은 여기서 제외해야 한다.

그래서 甲이 만든 것이면 乙이 不贊成하고 乙이 圖謀하는 것이면 丙이 難色을 표시하고 또 甲派에서 撥資키로 謀함이 된 것이면 乙派에서 꼭 해방을 한다. 甲이 不信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면 甲이 不讚成하고 비난하여 妨害하는 것은 그 事實이 乙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甲 스스로에 歸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보면 견해가 他人을 해하고 利己의인 것에만 집착하고 보면 중극적인 丙面者가 모두 敗亡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丙面으로는 同業하며 外形은 달로 分解되어 있고 外面의 모든 友邦이면서 거듭 거듭 실망을 안겨 준다. 또 요사이 어떤 慈善家가 義憤을 발동하여 제사할 快擲하겠다 하니 어떤 者는 東北(滿洲)의 義勇軍을 원조하겠다고 나서고 또

國人士를 앞에警告하노니韓人들이自國을 되찾고자 하는 일을 매하기를 마치 자기 집안의
그러나 同病相憐하고 同求相應함은 哲理가 賦與하는 바라 삼가 한술의 뜨거운 눈물로써 中
謀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다.
逆孻을 벗어날까를 묻고 다니며, 나의 子孫萬代를 保全할까 하지만 내져 나라를 걱정하고 圖
禍災가운데 치하여 급히 서둘러도 崇朝의 形勢를 다하지 못할 형편인데 어면 循策으로써 이
이미 韓國은 나라를 잃었고 中國은 危機가 繼續되고 있다. 이러한 腥風과 悲雨가 直面한
患인가 보다 통탄스런 일이다.
협하여 놓고 相互間에 交通이나 交涉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역시 人類가 무면할 수 없는 痛
苦인가 보다 통탄스런 일이다.

國은 건에 淸나라 光緒(1875~1908) 때부터 韓國으로 인하여 衰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
침내 危局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中國을 구하고 싶거든 반드시 먼저 韓國을 구해야
한다. 이는 論理學에 있어서의 三段論法인 것이다.

22. 世界失國人之缺陷

이와 같이 타락한 마당에 실사 열마 안되는 義捐金이 주어졌다 해도 그 損害得失을 어찌
서로 보살할 것인가.
나는 본래 才陳하고 語訥한지라 오늘날의 新交際家의 勳에 끼이지도 못하는 주제라 어찌를
나란히 길을 걷는데 다룰 수도 없고 이미 전부터 알고 지내던 民黨의 老先輩와도 관계가 단절
되어 聲息이 없든지 벌써 십여년이 되었다.

대개 世界의 亡國人이 만는 結社나 集團은 상호간에 齟齬하고 自他가 猜疑하고 하여 一致
團結하지 못한다. 때로는 敵에게 도리어 이쪽 情報를 提供하는 者까지 있으니 한결같이 모두
가 이런 꼴라져니틀이다.
멀리는 佛蘭丹·印度·安南 등이 그렇고 가까이 白系露西亞가 그렇다. 어느것 하나 그렇
지 않은 것이 없다. 무릇 이들 社會의 온갖 謀劃은 그 대부분이 秘密에 속하는 것이요. 이를
對外的으로 宣布하거나 露出시켜서는 안 될 것들이다. 또 각자가 하나의 깃발 밑에 각은 膈膜
을 남에 삼아 가야 한다.
그런데 上海에 사는 일부 露西亞사람들을 보면 同一主義·同一事業을 하면서도 機關을 본

中國人士에게 바라노니 그 한결같은自大하고 虛僞한는 應酬을 버리고 實實을 기우어 드릴 것을 기약하고 濶濶한 것과 實實을 正確하게 발견하여 단연코 中斷없이 精進할 것이며, 前轍을 밟아 虛送歲月하며, 질질 끄는 일이 없어진다면 크게 다행으로 여기겠다.

23. 結 論

일찌기 내가 中國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너의 나라는 본래 中國의 屬邦이었다. 그러므로 너의 나라와는 競爭을 하지 않았다.

이게 너의 나라가 그하여 없었으니 우리가 동히 日本을 驅除하여 영토를 다시 保全하게 하여야 할 義務가 있으니 이는 실로 中國인의 權利・義務와 관련된 문제다.

이상의 몇 마디는 가장 悲憫한 나머지 同情어린 言語로 하는 말투이다.

다음 연재이든 中國이 日本의 羈絆에서 이탈하여 權力이 신장되어 地球를 점령하고 御稱하 노니 이 유나 민어찌 구려 韓半島의 一國에 한하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領土를 관하여 領土는 人格마저 가누지 못하여 事事件 그 뜻을 펴지도 못하는 주체에 스스로 反省하는 생

각은 하지도 않고 驕傲한 버릇은 고치지도 않고 어찌 이처럼 몽롱하여 감에서 깨어나지 못하 는가.

전에 清나라 光緒의 十七年間 日本의 某旅行社 雜誌가 中國人을 侮蔑하는 한 토막을 게재하

였는데 말하기를

歐美人들은 支那人을 紅黑土아 메리칸 인디안과 똑같이 보는데 비록 欽差大臣(皇帝의 特命 全權大臣)이라도 겨우 二等席의 座席을 허용해 준다.

우연히 富豪 洋裝人이 一等票을 구르려다 하더라도 그 身分이 中國人이란 것이 발각되 면 즉시 一等이나 二등 客室으로 쫓겨난다. 한저녁을 당하고도 감히 이를 단투지 못한다. 또 下等級의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설 때마다 兒童들이 폐를 지어 그 뒤를 따라 다니면서 소 리를 지르며 욕지거리를 퍼부는데 「야 쥐새끼 잡아먹는 놈! 봐라! 야 쥐새끼 먹는 놈! 하고 떠든다. 대개 水上에 있는 陸上에 있는 飲食과 宿泊 등 일체 行動에 制限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저 支那人들은 태연한 데도 흐물하게 이에 對處하고, 있으며 조금도 마음에 動搖되느냐 없으니 이른바 이것이 大陸의 大國民性인가 보다.

고 했다. 참으로 모욕이 심한 言語이다.

근래 歐美人들에게서 이와 같은 종류의 橫暴가 歐美에서 있다고 틀어보지 못했는데 日本은

이렇게 支那人을 輕視 侮辱하는 것이다.

또한 가지 크게 잘못된 것이 있다. 在外韓國人의 社會는 극히 그 형편이 複雜한 바 있다. 그 래서 그것을 辨別한다는 것은 아주 곤란한 일이다. 일종의 生김새는 모두 忠信스러운 나 속 에 는 詐僞를 품고 있으며, 外裝은 白色이나 內心은 紅黑이다. 든든한 일에 因緣을 맺고 사는 사람들은 道略에 들떠하게 서로 들어서 있는데 中國人이 素疎한 눈으로 관찰한다면 그

自赤과 眞假를 어찌 분명히 하는가.

마치 大僧敎가 일본종이 수립한 宗敎처럼 錯覺하여 인식되다가 하면 清나라 公廳의 責任秘 書가 모조리 染色人(西洋人)으로 바뀌는가 하면 몇 차례씩이나 敵軍에게 降伏한 자를 진정한 獨立闘士로 誤認하기도 하며, 또 틀림없이 日本人의 保護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돈을 거 두어 救濟金을 전해 주며 의당히 信任해야 할 者를 不信하고 의당히 거부해야 할 者를 도리 어 親熱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혹은 어떤 인물을 評價하기를 印度의 「간디」처럼 생각하고 혹

은 想像하고 希望하기를 土耳其의 「케말 파샤」같이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가지 矛盾되고 가소로운 일들이 한데 어우러져, 모두 주위 설견 수도 없다. 每 般은 일이지만 左翼分子들은 은밀하게 한국인에게 緣分을 대어 獨立運動이란 명목을 앞세우고 赤色運動을 進行하여 線과 脈을 密通하는 者가 그 예 적지 않으며 이런 일이 있으면서

케 내 한 고로 해서 造成된 사태인 것이다.

東北三省(滿洲大陸)은 韓國사람들이 獨立運動하는 基本基地인 것이다. 그런데 그곳 歷代 地

方長官들은 國家의 利害를 不察하고 日本에 迎合하여 韓國獨立運動을 파괴하는 일을 대신 말

아 하고 있으니 이는 진정한 迫害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갈 곳도 없는 百萬이나 헤아리는 窮人들이 進退維谷에 빠져 있을 때 赤色露國

이 이 機會를 覘望하여 미끼를 던져 民族主義 青年들을 선동시켜 불과 수년만에 그 半數이 상을 赤色分子로 만들고 말았다.

三十年 동안 奮鬪한 獨立軍의 將領들이 赤色分子의 손에 의하여 被殺되었다. 이는 敵의 칼

지예 이르기까지 손수하고 올라온 民族主義의 集團은 역력히 그 數를 헤아릴 만하다. 기타 혼잡스럽게 장식하여 標榜한 것들은 民族主義의 標語를 口號로 내세우면서 수마음의

로는 他人의 賤한 父姓을 사모하며, 內面으로는 民族精神을 奮發하는 策動을 하고 있다. 또 밖으로는 中國의 耳目과 視聽을 흔들리게 하여 五光十色으로 混淆紛亂케 하고 陸離(잡고

별할 수 없을 것이다. 대저 人材의 絶頂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 寧靜澹泊하면 消極으로 되고 脫羈奮進하면 虛荒한 데로 기우니 中國의 諸葛孔明이나 岳飛는 韓國에 있어서는 姜邯養이나 李舜臣과 같은 人物이다. 이들은 理致를 통달하고 忠誠에 투철하여 가라만 알고 스스로

들은 알지 못하니 이럴으로써만이 끝내는 나라의 危險한 境遇를 면할 수 있고 또 시를 고약한 世風을 다시 불려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늘이 후지 우리 두 民族을 굽어 살피사 救世主 역할을 할 큰 별을 내어 주실는지 알지 못

할 일이나 俗談에 말하길 백성들이 願한다면 하늘도 이에 따르나라고 했고 人材를 다른

時代로부터 빌어 올 것이 아니라 時代에 어찌 人材가 없을까 보나라고 했다.

기왕 濟世할 偉人이 없다 하더라도 兩國의 人士들이 계속하여 失敗한 過去를 크게 懲戒하고

장래 이런 일이 再演되지 않도록 신중히 염계해서 虛心坦懷하게 生死一線의 같은 치지에서

相互間에서 서로 계획하고 議論하여야 할 것이다.

磁石이 바늘을 잡아 당기듯 奸邪한 인간과 小人輩들이 投機 搗亂하지 못하도록 하면 지금

비록 漆黑같은 긴 밤이라 목숨을 保全할 계책이 없다 하더라도 一點의 曙光이 大地를 밝게

비추어 國權을 되찾아 활약할 날도 멀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續) 四二六七年 甲戌 三月 一日

始林山人 李始榮 · 中國浙江省 永康에서 이 글을 썼노라.)

「國民에게 告함」

◇ 附 錄 ◇

西紀一九四八年 七月 二十日 東京에도 國會에서 나를 初代 副統領으로 選任함을 폐에 나는 그 總任이 아님

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이것이 國民의 總意인 이상 내가 辭退한다는 것은 도리어 國民의 期待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深思遠慮 끝에 말기 아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 告白한다.

그 뒤 재임 三年 동안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대체로 무엇을 하였던가 내가 副統領의 重任을 맡음으로써 國

政이 얼마나 刷新되었으며 國民은 憲權을 잃었을까만 아니라 大統領을 補佐하는 것이 副統領의 任務라면

내가 辭任한지 三年 동안에 얼마만한 翼贊의 效果를 빚었었는가. 하나로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야말로 尸

位素餐(위소찬)에 지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 過責이 오히려 나 한 사람의 無能無能에 있었다는 것을 國民에게 또한 솔직히 表明할 수 없

다. 그러나 매우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일을 하도록 해줌으로써 사람의 職能을發揮할 수 있

는 것이니 萬幸에 그렇게 못할진대 부질없이 空位에 앉아 虛樂에 陶酔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자리를 깨

끗이 물러가는 것이 옳다고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政府에 奉職하는 모든 公務員된 사람이든 上階級을 寡論하고 다 그러하리니와 特別 副統領이

라는 나의 處地로는 더욱 그러하다. 더 분례 無能한 중에도 모든 環境은 나로 하여금 더구나 無爲하게 만들

어 이 이상 高位에 앉아 國祿만 축번다는 것은 첫째로 國家에 不忠한 것이 되고, 둘째로는 國民에게 慙愧之

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國家가 興亡竿頭에 걸렸고 國民이 存沒斷崖에 달켜 危機一髮에 있건만 이것을

匡正하고 弘敍할 誠意를 두드리지게 나타내는 槓槩之材가 別로 없음은 여쭙 가 닦 인가.

그러나 眞 人 材 다운 人 材 가 있다 하 뎠 羊 頭 狗 肉 인 假 面 是 愛 國 僞 善 者 들의 跳 梁 으로 람 미 야 草 野 에 문

혀 體 肉 의 數 語 를 자 아 내 고 有 志 者 로서 열 마 나 痛 罵 할 일 인 가 ! 眞 만 아 니 라 는 政 府 樹 立 以

來 上 卜 에 이 르 기 까 지 高 官 의 地 位 에 얹 은 人 材 로서 그 濫 所 의 濫 用 된 것 을 別 로 보 지 못 했 다.

그 理 由 가 貪 官 汚 吏 는 都 鄙 에 발 호 하여 國 民 의 信 望 을 喪 失 케 하여 政 府 의 威 信 을 毀 損 하고 나 아 가 서 는

國 家 의 尊 嚴 을 冒 瀆 하 니 이 어 쥘 新 生 國 民 의 痛 苦 的 인 業 이 아 니 며 , 마 음 아 름 業 이 아 니 가 . 故 려 나 사 람 마

다 이 것 을 그 러 나 하 뎠 古 錢 을 모 르 며 나 뎠 다 하 뎠 巴 로 잡 으 려 하 지 않 을 뿐 아 니 라 그 政 府 의 是非 를 論 하 면

그 사 람 초 차 官 位 에 얹 게 되 면 또 한 마 찬 가 지 로 濁 水 汚 流 에 휩 쓸 려 들 어 가 고 마 니 누가 참 으 르 愛 國 者 인 지

나 르 지 는 黑 白 과 玉 石 을 가 린 道 理 가 없 나 .

더 구 나 이 렴 官 紀 가 흐 리 고 民 情 이 어 지 러 운 것 을 目 擊 하 면 서 도 워 님 無 稽 無 能 하 지 아 니 쥘 듯 하 게 된

才 人 者 來 手 無 策 에 袖 手 傍 觀 할 따 름 이 나 어 쥘 그 實 任 을 痛 感 할 것 인 가 .

故 려 한 나 인 지 라 나 는 이 번 決 然 코 大 韓 民 國 副 統 領 의 職 을 이 辭 退 함 으 르 써 李 大 統 領 에게 柳 佐 의 職 責

을 다 하 지 못 한 功 勞 를 씻 으 려 하 며 , 아 울 려 國 民 들 앞 에 三 年 中 間 阿 木 樂 頌 과 實 績 이 없 었 음 을

謝 하 는 功 勞 에 앞 으 르 나 는 一 個 布 衣 로 들 어 가 國 民 과 함 께 苦 樂 과 生 死 를 같이 하 뎠 矣 .

故 려 나 내 아 무 리 老 耄 한 몸 이 라 하 지 만 아 지 도 虛 忠 報 國 의 丹 心 과 誠 懇 是 결 크 사 그 러 지 지 않 았 는 지 라

故 生 을 祖 國 의 完 全 統 一 과 永 久 獨 立 에 결 결 이 바 지 할 것 을 여 기 에 公 開 明 報 함 다 . 故 려 고 國 民 여 러 분 은

안 으 르 더 우 爲 國 盡 忠 의 誠 意 를 各 各 祖 國 의 危 難 을 克 報 하 여 주 었 으 민 欣 幸 일 까 한 다 .

西 紀 一 九 五 一 年 五 月 九 日

副 統 領

李

始

樂

感時漫語

省齋李始樂著

(駁黃炎培之韓史觀)